



#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oEF 한국청년기입기정신재단



I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 활용하기



II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1. 국가적 관점 .....14
2. 개인적 관점 .....20



III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26
2.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 43
3. 창업지원 전담조직 ..... 51
4.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 60

#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

## CONTENTS



### IV

####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1. 대학(원)생 ..... 70
  - 가. 정규 교과 ..... 70
  - 나. 비정규 교과 ..... 83
- 2. 교원 ..... 95
  - 가. 창업교육거점센터 ... 95
  - 나.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 ..... 97
  - 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99



### V

#### 창업도전 지원하기

- 1. 대학(원)생 및  
청년 창업지원사업 ..... 102
  - 가. 사업화 ..... 103
  - 나. 창업교육 ..... 113
  - 다. 행사·네트워크 ..... 116
  - 라. 정책자금 및 지역연계 ... 118
- 2. 교원 창업지원 ..... 122
  - 가. 개요 ..... 122
  - 나. 주요내용 ..... 122



### VI

####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1.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의 이해 ..... 144
- 2. 대학 창업지원 역량  
자가진단하기 ..... 149
  - 가. 자가진단모델 1 \_  
실전창업 중점형 ... 149
  - 나. 자가진단모델 2 \_  
창업교육 중점형 ... 152
- 3. 대학 창업지원 역량  
자가진단시 고려사항 ... 155

#### < 참고자료 >

- 1.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안) ... 162
- 2. 대학창업규정 예시 ..... 170
- 3. 최신 창업트렌드 ..... 177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PART I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 활용하기





# I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 활용하기

## 1 운영매뉴얼 구성 체계

- 본서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직원들이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에 대학 창업의 중요성을 국가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본서에서는 다양한 창업지원활동을 논리모형에 따라 투입(창업지원 인프라) → 과정(창업교육) → 산출(창업)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학 창업지원모델에 근거하여 대학 스스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에 따라 3장 투입, 4장 과정, 5장 산출, 6장 자가진단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구성	제목	비고
I	소개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 활용하기	
II	개념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III	투입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인프라
IV	과정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창업교육
V	산출	창업도전 지원하기	창업
VI	자가진단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본서는 다양한 창업지원활동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현황과 우수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독자들은 다양한 창업지원활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황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본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각 대학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II.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 대학 창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국가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전문가 코멘트

- ▶ 전문가들은 대학 창업 교육 시작에 앞서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왜 창업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창업 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창업 교육을 오직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가적 역량을 발전시켜 취·창업에 필요한 핵심 진로 역량 교육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1절에서는 대학 창업 중요성을 국가적 관점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의 실험실 창업은 일반 기술 창업에 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을 확인하였다.
  - 세계 주요 대학은 산합혁력을 통해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화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 독자는 국가적으로 대학 창업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여 대학 창업 지원 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2절에서는 대학 창업 중요성을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100세 시대 향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대학생 때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대학 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에서 창업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며, 창업 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 독자는 개인적 관점에서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창업 교육 초기에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창업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3

### III.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대학 내 지속가능한 창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으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전담인력 및 조직, 공간 및 장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전문가 코멘트

- ▶ 전문가들은 대학 창업지원활동이 내재화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이제 막 창업지원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의 경우는, 우선 창업지원조직을 만들고,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관련 제도와 공간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8

- 1절에서는 학생의 창업교육과 관련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현황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독자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진단을 통해 각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본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대학 내 관련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 2절에서는 교원과 관련된 창업친화적 인사제도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현황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학에서 교수가 창업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학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독자는 창업친화적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진단을 통해 각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본서에서 제시된 우수사례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대학 내 관련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 3절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창업지원 조직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이다. 본 매뉴얼은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4절은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전국에 구축된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하여, 대학 내 필요한 공간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4 IV.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창업교육은 창업강좌와 같은 정규 교과 이외에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캠프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다.



### 전문가 코멘트

- ▶ 전문가들은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이 단편적이 아닌 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 또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보다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체적 체계를 갖고 운영되어야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한다.
- ▶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이 단순히 기업가정신 함양을 넘어 준비된 창업인재가 과감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실전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1절은 정규 교과인 창업강좌의 현황, 커리큘럼 및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비정규 교과인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캠프 및 특강의 운영현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단순히 창업강좌 몇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대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창업강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또한 다양한 창업강좌 커리큘럼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에서 창업강좌 개설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 대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와의 연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2절은 교원을 위한 창업 교육으로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과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은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해외교육 부문인 Lean Innovation 교육의 국내화를 위한 국내 실험실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이다.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따른 교육 기반 마련 및 교육자 대상 인식 전환·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다.



## 5 V. 창업도전 지원하기

- 5장은 준비된 창업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때 필요한 정보와 지원방식을 소개하고, 최신 창업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교원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전문가 코멘트

- ▶ 최근 들어 창업교육 활동이 양적으로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원의 과감한 창업도전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준비된 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 단, 창업은 실패 시 부담하는 리스크가 높고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중 학생들의 창업도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절에서는 다양한 최근 창업성공 스토리를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소셜벤처 등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대학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2절에서는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관계되는 협력주체인 대학-교수-대학(원)생 등에 필요한 정책, 법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 발명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교원 창업기업의 창업 후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 6 VI.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6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 창업지원모델에 근거하여 대학 스스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절과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따라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하기를 권고한다.
- 3절은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PART II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 II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 1 국가적 관점

- 성장과 분배,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
-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 고용창출 및 분배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0%에서 2016년 2.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제조기업의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됨
    - ※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선순환 된다는 '낙수효과'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업 구조 자체가 달라져 오히려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심화(중소기업 연구원, 2017)
  - 자동화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연도별 청년 일자리 현황〉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업률	청년	7.0	7.9	7.8	7.4	7.5	7.9	9.0	9.1	9.8	9.9
	전체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차이	3.8	4.3	4.1	4.0	4.3	4.8	5.5	5.5	6.1	6.2
고용률	청년	59.1	58.2	58.2	58.5	58.1	56.8	57.4	57.9	58.3	57.8
	전체	64.0	63.0	63.4	63.9	64.3	64.6	65.6	65.9	66.1	66.6
	차이	-4.9	-4.8	-5.2	-5.4	-6.2	-7.8	-8.2	-8.0	-7.8	-8.8

※ 자료출처 : 고혁진 외(2018), 기술창업 스카우터 활성화 방안에서 재인용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의 직면으로 노동력 수요 및 일자리의 급감이 예상되는 바, 세계적으로 융합 기술·산업구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중요성 대두됨

- OECD(2013)에 따르면 창업 후 6년 이상 기업은 매년 일자리가 연 평균 2.07% 감소하였으나,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은 매년 2.87%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 ※ 스마트팩토리의 대표 사례인 독일 암베르크 부품공장은 26년 전에 비하여 생산량은 8배 증가했으나, 일자리는 1,000개로 동일
  - ※ 미국의 경우도 '15년 41만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2백 5천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17년 통계국 (US Census Bureau))
- 국가별 초기단계기업활동지수(TEA)는 1인당 GDP와 U자형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신동평 외, 2015)
- 우리나라도 기존기업에 비해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12~'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17. 한국개발연구원)
  - ※ 고용증가율('03~'13) : 벤처기업 9.1% >> 일반 중소기업 2.7% > 대기업 2.1%

### 창업의 정의와 범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12.11.)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의 정의와 범위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9.06.11.)

- 세계 393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 유니콘기업(CB Insights, 2019.09)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 33.6세 /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 31.3세('18. 중소기업연구원)

-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Good Job)를 만들어 내고 있음
  - 기술기반 창업은 다른 형태의 창업은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선우 외, 2015)
  - 최근 들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기업의 급여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인식됨
    - ※ 노동시장서의 ‘좋은 일자리’란 일자리부터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보상(경제적 측면)과 직업적 위세(사회적 측면) 그리고 근로자 자신이 그 일자리에 대해 갖게 되는 직무만족도(주관적-심리적 측면)가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함(방하남 · 이상호, 2005)
    - ※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585명을 상대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2017)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을 묻은 결과 50.6%(복수응답)가 ‘근무시간 보장’을 지목했으며, 우수한 복지제도(34.2%), 일과 사생활의 양립(27.5%), 높은 연봉(24.1%), 고용 안정성 보장(15.2%) 등을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제시

〈'연봉 반토막도 좋다, 대기업 때려치고 스타트업 우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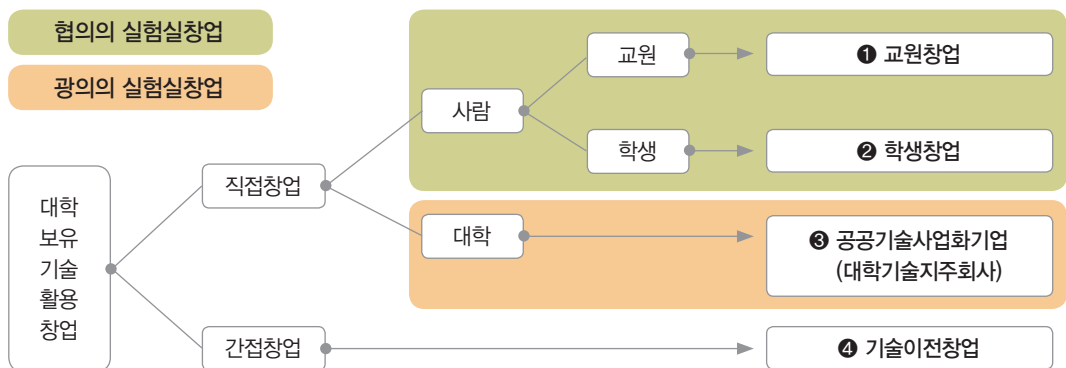
-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피키캐스트'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김모씨(30) : "대기업에서 계속 일할 자신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기업보다 연봉은 30% 가량 줄어들었지만 좋아하는 글쓰기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 1년전 A제조기업에서 2년차 소셜미디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최모(39)씨 : 연봉은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깎였다. 그러나 직급은 사원에서 팀장으로 올랐다. 무엇보다 매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약 3000주를 받았다. 현재 주식 가치는 주당 1만 원 정도"라며 "미래가 밝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

※ 자료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1425.html](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1425.html)

특히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실험실 창업은 일반 기술창업에 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대학보유 기술기반 창업의 유형은 활용주체에 따라 대학 및 구성원의 직접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한 외부의 간접창업으로 구분
  - 직접창업은 대상에 따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창업하는 ① 교원창업과 ② 학생창업으로, 대학이 창업하는 ③ 공공기술사업화기업(대학기술지주회사)이며, 간접창업은 ④ 기술이전 창업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대학 외부 기관(민간기업 포함)이 창업하는 것을 의미

[ 대학보유기술기반 창업의 유형 ]



※ 자료출처 : 연구진 작성



**PART 2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Lab to Market)으로,
  - 실험실 창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첨단기술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 실험실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규모(‘00~’10)는 9.5명으로 일반창업(전체 창업기업 평균 2.85명)에 비하여 3배 이상의 고용효과(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18)
    - ※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27%)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음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17)
  - 일반적으로 실험실기술에 기반한 창업아이템은 복제가 쉽지 않고 기술을 보유한 고급과학기술인의 인적네트워크가 우수하여 사전적으로는 창업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
-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 실험실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

**〈실험실창업 일자리 창출 해외사례〉**

업체명	내용
Palantir Technologies (미국) 2004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li> <li>• CIA, FBI, NSA, 미 군사조직 등에서 해당 솔루션 사용</li> <li>•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창업</li> <li>• 현재 기업가치 약 24조 원 / 약 2,000개 일자리 창출</li> </ul>
Mobileye (이스라엘) 1999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용 자동차(센서 및 카메라) 핵심기술 보유</li> <li>• 히브리대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li> <li>• Intel이 17조 원에 인수(’17) / 약 750개 일자리 창출</li> </ul>
iLumina(미국) 1998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분석 및 DNA시퀀싱 관련 생명공학기술 보유 회사</li> <li>• 터프스(Tufts)대학 교수가 VC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li> <li>• 현재 기업가치 약 25조 원 / 약 5,500개 일자리 창출</li> </ul>
DeepMind(영국) 2010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브리지 대학 인지신경과학 박사 데미스 하사미스</li> <li>• 구글에 4억~5억 달러에 매각, 알파고의 전신</li> </ul>
Shade 2014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구원인 Dr. Emmanuel Dumont이 웨어러블 자외선 측정에 대한 연구결과로 창업</li> <li>• Romell Tech : Runway startup Postdocs 프로그램 참여</li> </ul>
na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연구원인 Dr. Assaf Glazer이 아기수면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li> <li>• Romell Tech : Runway startup Postdocs 프로그램 참여</li> </ul>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2.22), 과학기술, 창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 한편 세계 주요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변화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형성을 주도

- 대학은 우수 인력, 연구장비, 지식재산 등이 집적되어 있는 “창업의 보고”로,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

- 해외 유명 혁신단지\*는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담당

\* Silicone Valley(스탠포드대학), 中關村(중국), Techcity(영국), 실리콘와디(이스라엘), 베를린(베를린공대) 등



“스탠포드대학이 없었다면, 실리콘밸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을 갖춘 좋은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시장에 나오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대학에서 먼저 발견, 연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 드레이퍼 & 존슨 투자회사 빌 드레이퍼

- (미국 밥슨칼리지) 미국 창업교육의 메카로 지난 10년간 교내벤처 5,000개 배출

- (핀란드 알토대학) 노키아 몰락 후 핀란드 창업 활성화를 주도

- (일본 도쿄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2015년 8월 기준 240여개로 5년 전인 2010년 (120여개)의 두 배가 넘음. 이 중 16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했고, 이들의 시가총액만 총 80억달러 (약 9조4800억 원)에 이룸 <조선닷컴, 2016.01.06.>

-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창업가는 대부분 대학교 및 청년 때 창업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

※ 애플(스티브 잡스), 페이스북(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 구글(래리 페이지), 우버(트레비스 칼라닉), 쿠팡(김범석), 티켓몬스터(신현성) 등이 대학교 때 창업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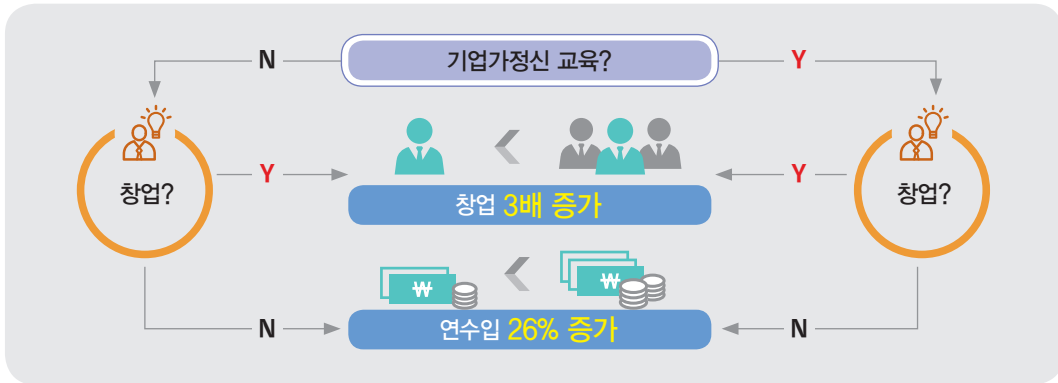




## 2 개인적 관점

▶ 창업교육은 도전정신, 진취성, 혁신성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능력과 업무 추진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 결과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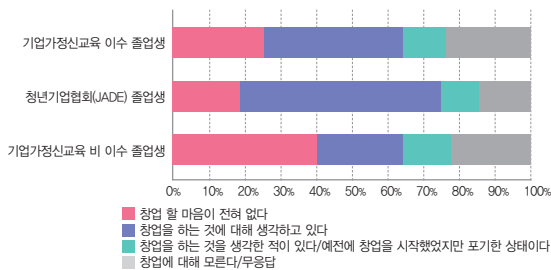
- 애리조나 대학이 최근 13년 동안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3배 정도 많이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하지 않은 학생도 창업교육을 받은 쪽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연간수입액이 27%, 자산이 62%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취업을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해 자산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료출처 : 애리조나 대학, Alberta Charney & Gray Libercap, 1985~1998

- 유럽의 9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수강생과 비 수강생, 유럽청년기업협회(JADE) 출신을 포함하여 총 2,582명을 조사한 결과,
  - 기업가정신교육 이수자가 비 이수자에 비해 창업에 도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교육 이수자가 비 이수자대비 “취업률”이 월등히 높음

[ 기업가정신교육 (비)이수자의 창업의도 비교 ]



[ 현재 유급고용 상태인 졸업생의 직무 경험 비교 ]

	기업가정신 교육 이수 졸업생	청년기업 협회(JADE) 졸업생	기업가정신 교육 비 이수 졸업생
나는 실업 상태였던 적이 한 번 있다	11%	19%	22%
나는 실업 상태였던 적이 두 번 이상 있다	1%	6%	8%
나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다	78%	6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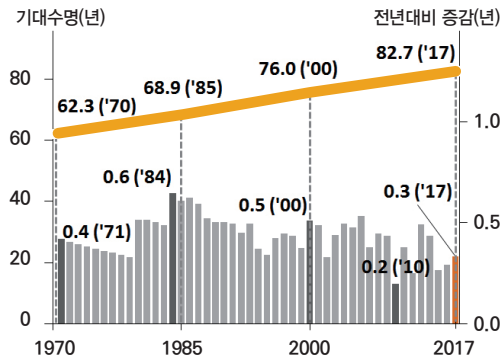
100세 시대 창업은 언젠가 한번은 만나야 하는 과정으로, 성공적 창업을 위해서는 대학생 때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곧 100세 시대는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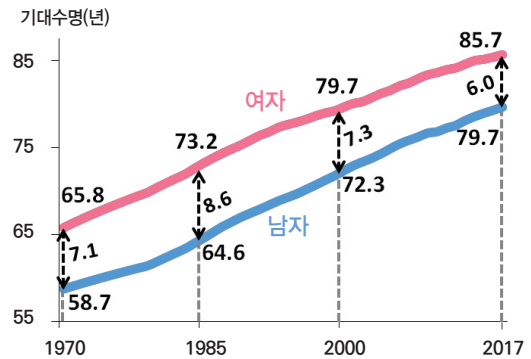
※ 2017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2.7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임

※ 2017년 60세 남자는 향후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됨

[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17년 ]



[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17년 ]



※ 자료출처 : 통계청, 2017년 생명표

● 반면 퇴직연령은 점차 감소되어 2016년 기준으로 남성 51.6세, 여성 47.0세로(한국고용정보원, 2017) 퇴직 후 3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2013년 7만5574개였던 창업기업은 2018년 사상 최초로 10만개 돌파하였으나,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40.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

- 퇴직자들의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으로 꼽히는 여관·치킨집 등 숙박·음식점업의 5년 후 생존율은 17.7%로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

● 100세 시대, 창업은 언젠가 한번은 만나야 하는 과정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요



## PART 2 대학 창업 중요성 알아보기

### 〈‘100세 시대’ 누구나 창업, 창업교육은?〉

고벤처포럼과 엔젤투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고영하 회장은 은퇴 후 아무런 창업 교육 없이 무작정 창업에 나섰다간 실패하기 십상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은퇴 후 창업하면 능동적인 대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기업에서 20~30년간 직장인으로 지내다 보면 수동형 인간으로 은퇴하기 십상”이라며 은퇴 후 속성으로 창업 교육을 받아 봐야 그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치원 때부터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생 설계 측면에서 언젠가 창업해야 하는 만큼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준비하고 교육을 받아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기업가정신을 배우면 독립성, 능동성, 인성, 비즈니스 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 보도자료(2014.07.31.)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PART III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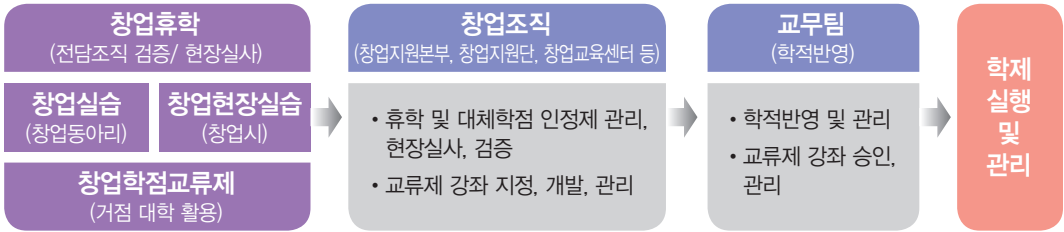
##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가 추진배경 및 목적

대학 내 창업휴학제 등 다양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전파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활동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흐름 예시 ]



#### 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현황

##### 1) 창업휴학제

- ▶ (정의) 창업휴학제도는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창업'을 학사규정 내에 마련하는 제도
- ▶ (운영기준)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등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창업휴학의 최대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 2년(4학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창업휴학 기간은 대학의 일반휴학제도에서 허용된 기간과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휴학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 신청할 수 있게 운영
  - 창업휴학의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조건과 구비서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 ※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학 내 전담조직의 평가를 통하여 창업휴학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무리한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창업강좌 및 다양한 창업 준비활동 등 일정 수준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 (현황)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창업휴학제도를 시행중인 학교는 232개교(55.5%, 2017년 교육부 통계 기준)이며, 창업휴학제도 이용자는 565명
- 많은 대학들이 기존 교내 휴학 규정에 창업휴학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휴학과의 연계 및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

창업휴학제도 운영여부

(단위 : 개, %)

구분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139	134	273	144	126	270
	비중	50.9	49.1	100.0	53.3	46.7	100.0
전문대학	빈도	78	71	149	88	60	148
	비중	52.3	47.7	100.0	59.5	40.5	100.0
전체	빈도	217	205	422	232	186	418
	비중	51.4	48.6	100.0	55.5	44.5	100.0

창업휴학제도 세부 운영현황

(단위 : 학기, 명)

구분	승인기간				이용자 수	
	2016		2017		2016	2017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대학교	1	10	1	제한없음	525	556
전문대학	1	제한없음	1	제한없음	2	9
전체	1	제한없음	1	제한없음	527	565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 (정의)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

▣ (운영기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학점을 인정

-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 등 창업과정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 준비활동으로 창업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2인 이상의 학생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



예시

### <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창업실습 >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의 활동은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 (다수의 참여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미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제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 실시

-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은 한 학기 6학점 이상~18학점 범위 내 대학 자율 판단
  - ‘창업현장실습’은 기간 내 지속적인 창업활동이 요구되며, 폐업시 미 이수 처리
  -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학생에게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일반기업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





**예시 < 학생 창업자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창업현장실습 >**

-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이 학기별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 (학생) 실제 창업의지가 있는 학생이거나 창업 중인 학생을 선발하여 창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야 함
- ◎ (검증과 사업화지원) 창업관련 부서 및 조직(창업지원본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 취창업 교육센터 등)에서 실제 창업활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구비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실시

● (현황)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준비 및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를 시행중인 학교는 124개교(29.7%)이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이용자는 2,533명으로 전년대비 5.3% 감소
  - 세부 시행대학수 : 창업실습 85개교(20.1%), 창업현장실습 93개교(22.0%)
  - 세부 이용자수 : 창업실습 2,121명, 창업현장실습 412명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운영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창업실습	대학교	빈도	59	214	273	71	199	270
		비중	21.6	78.4	100.0	26.3	73.7	100.0
	전문대학	빈도	26	123	149	33	115	148
		비중	17.4	82.6	100.0	22.3	77.7	100.0
	전체	빈도	85	337	422	104	314	418
		비중	20.1	79.9	100.0	24.9	75.1	100.0
창업현장실습	대학교	빈도	63	210	273	73	197	270
		비중	23.1	76.9	100.0	27.0	73.0	100.0
	전문대학	빈도	30	119	149	31	117	148
		비중	20.1	79.9	100.0	20.9	79.1	100.0
	전체	빈도	93	329	422	104	314	418
		비중	22.0	78.0	100.0	24.9	75.1	100.0
소계	대학교	빈도	72	201	273	86	184	270
		비중	26.4	73.6	100.0	31.9	68.1	100.0
	전문대학	빈도	33	116	149	38	110	148
		비중	22.1	77.9	100.0	25.7	74.3	100.0
	전체	빈도	105	317	422	124	294	418
		비중	24.9	75.1	100.0	29.7	70.3	100.0

※ 소계는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중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여부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세부 운영현황**

(단위 : 학점, 명)

구분		인정학점				이용자 수	
		2016		2017		2016	2017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창업실습	대학교	0	24	0	18	1,915	2,010
	전문대학	1	8	0	20	139	111
	전체	0	24	0	20	2,054	2,121
창업현장실습	대학교	0	34	0	30	620	411
	전문대학	2	24	0	24	0	1
	전체	0	34	0	30	620	412
소계	대학교	0	34	0	30	2,535	2,421
	전문대학	1	24	0	24	139	112
	전체	0	34	0	30	2,674	2,533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대다수 대학들이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애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정확한 개념의 이해와 운영이 필요한 부분
  - 기존 창업동아리 활동과의 적용 차별성 기준, '창업실습' 과목 개설에 대한 이해도 부족(지도교수 활용 시수 인정) 및 세부 커리큘럼, 구체적 결과물 등), '창업현장실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발생

**3)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 📌 (정의) 창업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 (운영기준)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각 대학의 내부 학점교류 운영지침을 활용하되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대학간 창업강좌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창업강좌 학점교류 협정 포함 내용 예시
    - 창업강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수강자격, 수강범위 및 수강신청절차, 수강료 납부

- 성적부여 및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강좌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 등

▣ (현황)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는 양질의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 우수 창업교원 확보 등 개별 대학이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간 특성화 및 우수 창업강좌를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를 시행중인 학교는 86개교(20.6%, 2017년 교육부 통계 기준)이며, 총 수강 인원은 4,568명, 개설강좌는 717개로 나타남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운영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68	205	273	67	203	270
	비중	24.9	75.1	100.0	24.8	75.2	100.0
전문대학	빈도	17	132	149	19	129	148
	비중	11.4	88.6	100.0	12.8	87.2	100.0
전체	빈도	85	337	422	86	332	418
	비중	20.1	79.9	100.0	20.6	79.4	100.0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세부 운영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이수학생 수						개설강좌 수	
	2016			2017			2016	2017
	자교	타교	소계	자교	타교	소계		
대학교	5,615	1,517	7,132	2,379	2,189	4,568	612	717
전문대학	30	0	30	0	0	0	3	0
전체	5,645	1,517	7,162	2,379	2,189	4,568	615	717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점교류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창업 관련 강좌 교류에 대한 제도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우수한 창업강좌 보유 대학 및 지역 내 관련 조직과의 교류협력 등 활성화가 요구됨
  - 창업강좌 학점교류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온라인 수강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바람직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4) 창업장학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창업장학금제도를 시행중인 학교는 73개교(17.5%)이며, 전년대비 9.0% 증가, 총 수혜자는 5,537명, 지원금액은 3,015.7백만 원으로 나타남

창업장학금제도 운영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59	214	273	63	207	270
	비중	21.6	78.4	100.0	23.3	76.7	100.0
전문대학	빈도	8	141	149	10	138	148
	비중	5.4	94.6	100.0	6.8	93.2	100.0
전체	빈도	67	355	422	73	345	418
	비중	15.9	84.1	100.0	17.5	82.5	100.0

창업장학금제도 세부 운영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지원금액						수혜자 수	
	2016			2017			2016	2017
	총 지원금액	학교당 평균	학생당 평균	총 지원금액	학교당 평균	학생당 평균		
대학교	2,721.9	46.1	1.0	2,932.5	46.5	0.6	2,617	5,211
전문대학	96.9	12.1	0.5	83.2	8.3	0.3	191	326
전체	2,818.8	42.1	1.0	3,015.7	41.3	0.5	2,808	5,537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5)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2017년 창업특기생 선발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8개교(1.9%)이며, 입학정원은 90명, 입학인원은 81명으로 나타남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운영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14	259	273	8	262	270
	비중	5.1	94.9	100.0	3.0	97.0	100.0
전문대학	빈도	0	149	149	0	148	148
	비중	0.0	100.0	100.0	0.0	100.0	100.0
전체	빈도	14	408	422	8	410	418
	비중	3.3	96.7	100.0	1.9	98.1	100.0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세부 운영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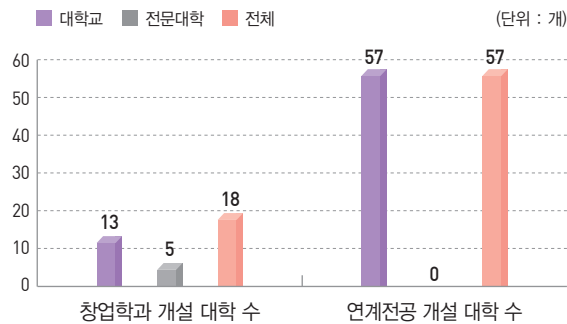
구분	입학정원		입학인원	
	2016	2017	2016	2017
대학교	137	90	103	81
전문대학	0	0	0	0
전체	137	90	103	81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6) 창업학과 및 창업연계전공

2017년 창업학과 또는 창업연계전공을 개설한 학교는 71개교(17.0%)이며, 전년대비 9.2% 증가 (창업학과 수는 18개, 창업연계전공은 57개임)

[ 창업학과 및 창업연계전공 세부 운영현황('17년 기준) ]



창업학과 세부 운영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학과 수		입학정원 수		부전공 학생 수		복수전공 학생 수		전임교원 수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대학교	13	14	556	903	22	92	290	256	59	112
전문대학	5	5	195	171	0	0	0	0	12	12
전체	18	19	751	1,074	22	92	290	256	71	124

창업연계전공 세부 운영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전공 수		부전공 학생 수		복수전공 학생 수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대학교	62	74	502	318	724	711
전문대학	0	0	0	0	0	0
전체	62	74	502	318	724	711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사례

###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

- ▣ (내부 구성원의 인식 개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 본부(의사결정권자) 등 내부 구성원들의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보\* 등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

\* 대학 내 창업교육전담기구 차원에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교수 및 직원) 설득 및 공감대 형성 부족을 호소

- ▣ (학사제도 운영규정 및 인프라 구축)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별 역량과 자원의 차이를 반영한 특성화된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규정 마련 등의 제도 구축을 병행

- 대학별 창업교육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상황(빈익빈 부익부) 이므로, 대학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구축이 중요

- ▣ (전담조직 설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는 단순히 1~2개의 창업강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므로 학사제도 전반의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존 전담 조직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

- 아울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원활한 운영 및 검증, 평가, 조정 등이 논의될 수 있는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가 요구됨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기구(교무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각 전공학과 등)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함



예시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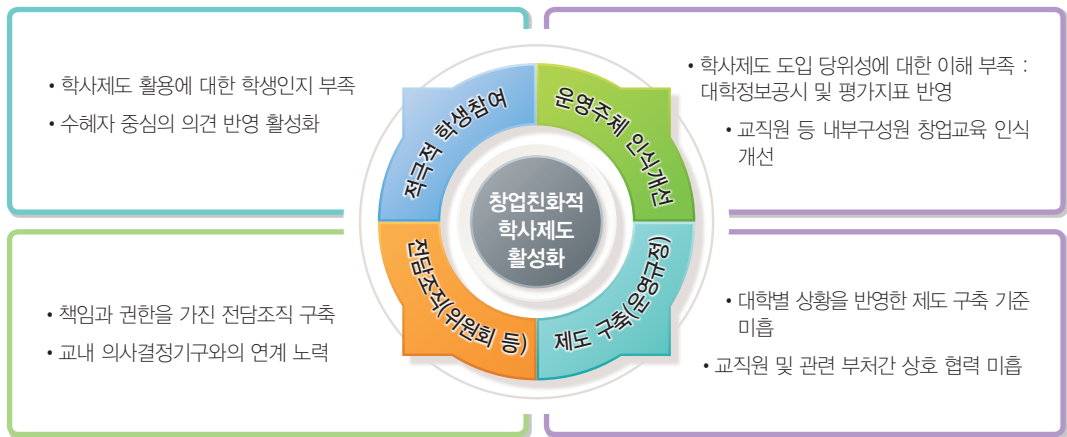
- ‘창업휴학제’ 남용 방지,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심의 및 평가, 관리 감독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에 관련 내용을 전담할 수 있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의 설치가 요구됨

**예시 1** ▶ 창업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등으로 구성하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및 심의·감독 전반을 관할

**예시 2** ▶ 교과과정 운영위원회에 창업교육센터장 등 관련 인력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과과정 내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

- ❖ (수혜자 인식개선 및 적극 참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수혜자인 대학생이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능동적인 참여 의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혜자인 학생의 요구와 의견에 대한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제도 홍보 등 필요)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 ]



## 2)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우수 사례

### ❖ 창업휴학제 : 단국대학교

학칙	<p>제21조 (휴학) (중략)</p> <p>① 학생이 가사·질병·창업·입대 및 그 밖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lt;개정 1980.8.14., 1981.6.10., 1984.7.16., 2011.9.26., 2013.2.19., 2013.12.26.&gt;</p>
학칙 시행세칙	<p>제13조(휴학의 종류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p> <p>① 학생이 가사·질병·창업·입대 및 그 밖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lt;개정 1980.8.14., 1981.6.10., 1984.7.16., 2011.9.26., 2013.2.19., 2013.12.26.&gt;</p> <p>(중략)</p> <p>④ “창업휴학” 이라 함은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증빙자료와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12.26.&gt; &lt;개정 2014.6.11., 2015.4.1.&gt;</p>

※ 자료출처 : 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https://rule.dankook.ac.kr/>)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 건국대학교**

드림학기제

**I 개요 I**

- 학생이 주도하여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수요자 중심의 '자기설계학기제'(정규학기(총 8학기) 중 1학기만 신청 가능)

\* 기존 학사제도를 활용하며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등은 총장의 승인에 따라 별도로 정함

**I 운영방식 I**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 3학기~8학기 재학생(초과학기 신청 불가)
취득가능 학점	• 최소 3학점~최대 12학점(정규수강과목 병행 가능)
수강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명 : 드림학기설계 I, II, III, IV (각 3학점)</li> <li>• 학점인정기준 : 주당 10시간 이상 시 3학점 인정</li> <li>•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학점인정 가능</li> <li>• 신청 당시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적격여부를 확인, 위원회 심사 후 학점 부여</li> </ul>
수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수강신청기간</li> <li>•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지도교수, 학생 소속 단과대학장 및 관련 행정부서(학사지원팀)의 확인 후 수강신청</li> </ul>
강의수강 및 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을 지도교수에게 정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별 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li> </ul> </li> </ul>
학점 및 성적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 : 프로젝트 결과물, 지도교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성적 부여</li> <li>• 성적 : 해당과목의 절대평가(A/B/F) 적용하며 지도교수 확인</li> </ul>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납부생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li> <li>•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프로젝트 심사 후 최종 결정</li> <li>• 활동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li> <li>• 중도포기, 휴학,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환수 가능</li> <li>• 지급시기 : 중간보고 이후 1차 지급, 최종보고 이후 최종 지급</li> </ul>

**I 모형 I**

구분	내용	확인부서
창업 연계형	참신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	학생 소속 단과대학장, 창업지원단, 지도교수

\*창업연계형, 사회문제해결형, 지식탐구형, 기타(자율형) 관련내용 생략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 송실대학교, 한남대학교**

● 송실대학교

국내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송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타 대학교(이하 "타교"라 한다)간에 교환학생 및 학점교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락)
비고	협정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학점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 등을 통해 정함

※ 자료출처 : 송실대학교 규정정보시스템(<http://rule.ssu.ac.kr/>)

● 한남대학교

학칙	제30조(학점교류) ① 본교와 협정관계에 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정부나 국가 기관 등에서 파견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35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4.6.8)
----	--

※ 자료출처 : 한남대학교 웹사이트(대학정보)규정집(<http://www.hannam.ac.kr/>)

**창업연계전공 : 동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군산대학교**

● 동서대학교

학칙	제 38조의 1(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연계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학칙 시행규칙	제 24조(자격 및 신청) ① 연계전공을 하려는 자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3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

연계전공	참여학부(전공)	학위
벤처창업학	경영학부,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보시스템공학계열	벤처경영학사

※ 자료출처 :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 별도 제공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순천향대학교 웰니스융합학부

Ⅰ 웰니스융합학부 추진 목표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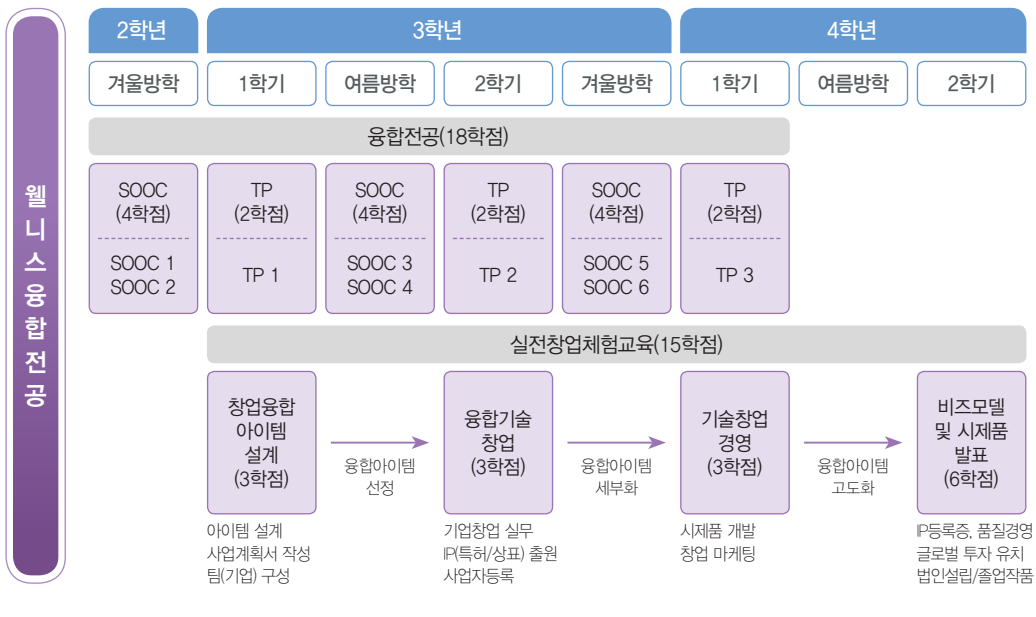
-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통한 통섭형 창의 인재 육성
- 맞춤형 실전 창업 과정을 통한 자기 주도적 리더십 함양
- 인문소양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변화대응력 강화

Ⅰ 웰니스융합학부 교육과정 Ⅰ

-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주기적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융합적사고와 실무에 강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저학년(1~2학년)에는 'Pre융합교육', 고학년(3~4학년)에는 '웰니스융합전공(복수전공)'의 교육과정 제공

교육과정	Pre융합교육		웰니스융합전공
구분	교과(교양)	비교과	교과(복수전공)
내용	생활속의 창업이야기 맛있는수학 이야기만들기 앙트레프레너십 인사이트	융합전공 동아리 창업프로그램	융합전공(18학점) 창업과목(15학점)
대상학년	1학년~2학년		3학년~졸업

- 융합전공 18학점 + 창업과목 15학점 = 총 33학점으로 복수학위 과정
- 융합전공 : 순천향온라인공개강의(SOOC), 창의실계실습교육(TP)
  - ☞ [전공선택] → 웰니스로봇, 웰니스게임, 글로벌웰니스관광, 스마트케어, VR
- 창업과목 : Self-Teaching 방식의 실전창업체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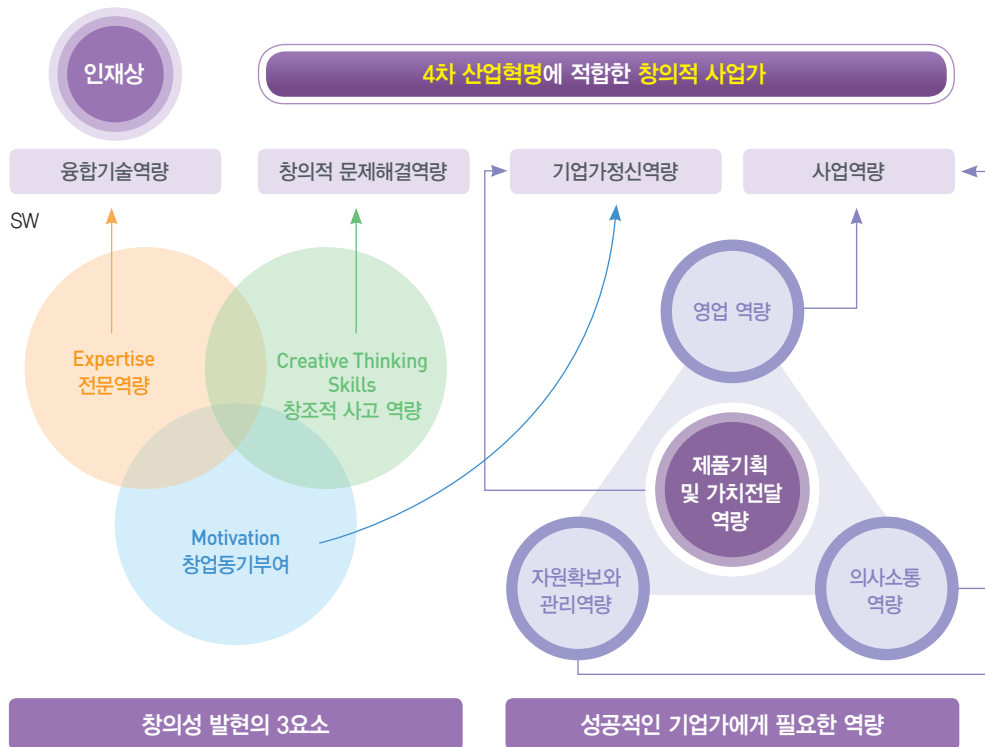
Ⅰ 웰니스융합전공 교육과정 Process Ⅰ

- 웰니스융합전공은 전공별 계절학기 순천향온라인공개강의(SOOC)를 통한 이론교육과 정규학기에는 창의설계실습 교육(TP)실습을 하는 '플립러닝' 교육을 실시하며,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아이템 개발부터 시제품까지 팀 단위 실전창업교육



●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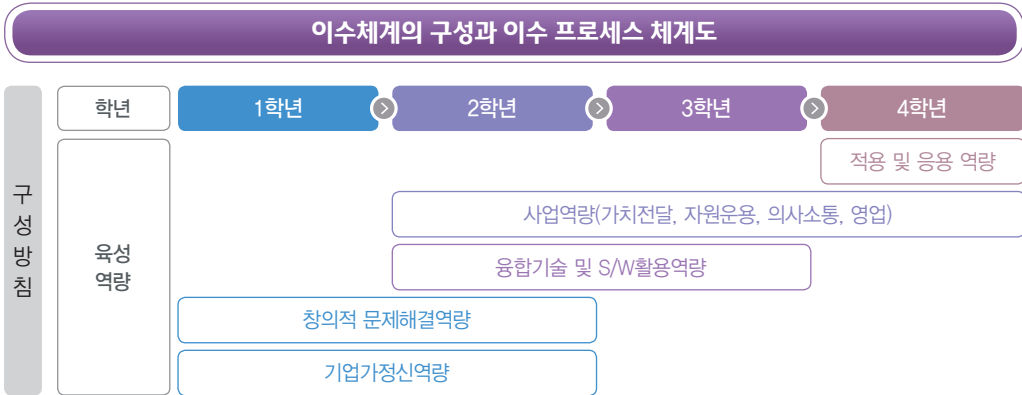
Ⅰ 융합기술학부 추진 목표 Ⅰ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Ⅰ 융합기술학부 전공이수체계 Ⅰ



Ⅰ 융합기술학부 교육운영방식 Ⅰ

역량 육성과정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4-1	4-2
창업경영 실습과정 (응용/적용)							· 캡스톤 디자인	· 장기현장실습 · ERP 실습
사업역량 육성과정			· 창업과 마케팅 · 지식재산권과 세법	·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 시장과 소비자 원가의 이해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 조직행동과 리더십	· 적정기술의 이해 · 상권 및 입지 분석 · 창업기업의 인적자원관리 · 가상기업 경영 · 창업영업관리	· 창업자본 조달과 창업 지원제도 · 경제지표의 이해 ·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 기술평가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융합기술 육성 및 S/W인증 과정			· 기계제작의 실제 · Arduino 제작 실무	· 확장품 및 생약원리와 제조 · 3D 디자인 및 프린팅 · 식품가공 원리와 제도	· 모바일 프로그램 및 실습	· 사물인터넷 프로그램 및 실습		
기업가정신 및 창업기초 지식 육성과정	·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 · 지역전략산업 분석	· 창의적 사고기법 · 경영경제 통계학	· TRIZ 이해	· CEO 특강				



**교육체계**

• 창업주기별 역량과 기초-핵심-심화과정에 따른 설계



**교육방법**

• 인재양성 목적과 과목별로 특성 고려  
• 이론, 실습,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실무



**학생진로**

•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다양화  
• 창업진로, 취업진로, 진학진로별 맞춤형 교육이수과정 설계(부전공 설계)

**창업장학금 : 경일대학교, 원광대학교**

● **경일대학교**

장학규정	제3조(장학금의 정의) 장학금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및 학비보조금을 총칭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학교회계(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교외의 각종 장학단체나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3.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2조(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선발기준 및 장학세부내역은 별표1 참조) (중략) 30) 기타 학교정책 반영 및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장학금은 총장이 별도 승인 후 지급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경일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http://rule.kiu.ac.kr/>)

● **원광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단체(국가장학 포함)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12.02.28, '15.02.23)> (중략) 2. 창업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교내 · 외장학금 종류와 지급액) 교내 · 외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6.05.26., '17.01.03)> (중략) 50. 창업장학금 <신설 '17.01.03)> 본교 재학생으로서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 지원 예산을 재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창업지원단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이중 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자료출처 : 원광대학교 통합규정관리시스템(<http://rule.wonkwang.ac.kr/>)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창업특기생 : 전주대학교, 단국대학교**

● 전주대학교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요강에 관한 사항</li> <li>2.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li> <li>3.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li> <li>4.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li> <li>5. 입학정보 자료분석과 개발에 관한 사항</li> <li>6. 학생부종합전형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lt;개정 2015.6.11.&gt;</li> <li>7. 그 밖에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중요 사항에 관한 사항</li> </ol> <p>(중략)</p> <p>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p>
'18 신입생 모집요강	<p>&lt;수시모집&gt;</p> <p>◎ 창업인재전형 (학생부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li> <li>- 지원가능 학과 : 경영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li> <li>- 기타 혜택 : 창업인재전형 입학자 중 창업캠프(오리엔테이션) 참석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창업장학금 100만 원 지급</li> </ul>

※ 자료출처 : 전주대학교 웹사이트<학교안내>규정(<http://www.ji.ac.kr/>), '18년 입학전형 안내

● 단국대학교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p>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0.6.1., '11.9.26., '14.7.30.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li> <li>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li> <li>3. 대학입학전형 자격과 선발기준 모형 개발</li> <li>4.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기준, 사정방법,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모집인원의 배분 등)</li> <li>5.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심의</li> <li>6. 그 밖의 신·편입학과 관련한 총장의 심의요청 사항</li> </ol> <p>(중략)</p> <p>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p>
'18 신입생 모집요강	<p>&lt;수시모집&gt;</p> <p>◎ 창업인재전형 (학생부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 2016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는 자</li> <li>- 지원가능 학과 :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응용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li> </ul>

※ 자료출처 : 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https://rule.dankook.ac.kr/>), '18년 입학정원 안내

## 2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 가 개요

대학에서 교원은 고급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창업가이자 창업교육의 주체이지만, 창업도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소극적

- '17년 기준 교원 창업기업 수는 233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대학(402개)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 당 0.5명에 불과한 수준
  - 교원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4,958.9백만 원이며 고용인원은 213명

대학 교원 창업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2016		2017	
		창업자 수	창업기업 수	창업자 수	창업기업 수
대학교	전체	205	185	242	220
	학교당	2.6	2.3	3.1	2.9
전문대학	전체	10	10	15	13
	학교당	1.4	1.4	1.4	1.2
전체	전체	215	195	257	233
	학교당	2.5	2.2	2.9	2.6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대학 교원 창업 성과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2016			2017		
		매출액	고용인원	자본금	매출액	고용인원	자본금
대학교	전체	2,462.7	164	11,980.2	4,605.8	204	7,174.7
	기업당	13.3	0.9	64.8	20.9	0.9	32.6
전문대학	전체	38.7	4	306.5	353.1	9	88.0
	기업당	3.9	0.4	30.7	27.2	0.7	6.8
전체	전체	2,501.4	168	12,286.7	4,958.9	213	7,262.7
	기업당	12.8	0.9	63.0	21.3	0.9	31.2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교수는 높은 보수, 직업안정성 등 재직 시 이익에 비해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높은 창업 기회 비용으로 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창업을 주저

※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창업에 대한 의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대학은 2.9점에 불과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기술인력 유형별 창업도전에 대한 속성 및 제약조건

기술인력의 유형			속성 및 제약조건				
			기술수준	위험 회피도	준비의 용이성	도전 유인	창업실패 기회비용
재직자	민간	대기업/중견기업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매우 높음
		중소기업	보통	높음	매우 낮음	높음	높음
	공공	대학 교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높음
		연구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높음
비재직자	퇴직기술자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석·박사		높음	보통	보통	낮음	매우 높음

\* 주 : 연구진이 5명의 창업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

**교원의 창업아이템은 높은 기술성으로 복제가 쉽지 않고 인적네트워크가 우수하여 사전적으로 창업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적극적 창업도전을 유인할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

- 미국 USOs\*의 IPO 비율이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108배 높음(Shane, S.A., 2004)
-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만 연간 40여 개의 스핀오프 기업이 창업되고 있으며, 설립 후 3년간 파산율이 4%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 스핀오프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남기고, R&D 라이선싱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
-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기술창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9.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평균인 2.8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 기초·원천기술이나 출연(연)의 연구성과물을 논문이나 특허로 발표된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을 "과학기술기반 기술창업" 혹은 "고급연구인력의 창업"이라 함
- 최근 5년간의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39.9%, 39.2%씩 성장하고 있으며, 3년 생존율도 82%로 일반기업의 38% 비해 월등히 높음
- MIT, Stanford 대학의 경우 대학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대학 명	창업기업수	고용효과	연간 매출액	비고
MIT	30,000개	4,600,000명	1.9조 달러	2013년 기준
Stanford	40,000개	5,400,000명	2.7조 달러	2013년 기준



나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유형과 운영현황

1)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교원창업 휴·겸직제도는 교원창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 교원창업 휴·겸직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전체 418개 대학 중 167개교(40.0%)이며, 창업휴직 105개교 및 창업겸직 165개교 운영 중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운영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8								
		창업휴직			창업겸직			소계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시행	미시행	전체
대학교	빈도	79	191	270	123	147	270	123	147	270
	비중	29.3	70.7	100.0	45.6	54.4	100.0	45.6	54.4	100.0
전문대학	빈도	26	122	148	42	106	148	44	104	148
	비중	17.6	82.4	100.0	28.4	71.6	100.0	29.7	70.3	100.0
전체	빈도	105	313	418	165	253	418	167	251	418
	비중	25.1	74.9	100.0	39.5	60.5	100.0	40.0	60.0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학교 중 창업휴직한 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보유한 학교는 13개교 (12.4%)이며 전년대비 44.4% 증가
- '17년 교원창업 휴·겸직 승인인원은 563명(휴직 5명, 겸직 558명)임

교원창업 휴·겸직 승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창업휴직	창업겸직	전체	창업휴직	창업겸직	전체
대학교	전체	6	363	369	5	525	530
	학교당	-	-	-	0.1	4.6	4.6
전문대학	전체	0	18	18	0	33	33
	학교당	-	-	-	0.0	1.0	1.0
전체	전체	6	381	387	5	558	563
	학교당	-	-	-	0.1	3.8	3.8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학교 중 창업휴직한 교원을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14개교 (13.3%)이며 전년대비 16.7% 증가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창업휴직 및 겸직 둘 다 최초 승인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제한없으며, 연장 승인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제한 없음
- 창업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학교 중 창업휴직한 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보유한 학교는 13개교 (12.4%)이며 전년대비 44.4% 증가

교원 창업 관련 이슈 및 유의사항

- 최근 들어 교원 창업이 증가하면서 창업 후 · 겸직에 따른 대학 내 교수, 직원 등과의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대학기술기반 창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안내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안내서를 참고
  - 대학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겸임 · 겸직을 승인받는 경우 교원의 본분인 교육 및 연구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는 교원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 창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해 소속학과 의 업무행정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교원 창업 승인 절차에 있어서 먼저 소속학과 또는 소속단과대학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대학본부 내 설치된 교원의 창업을 심의하는 기구에 안전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이 교원 창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교원 창업기업의 성장이 대학의 이익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창업 시 주식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도록 교원 창업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고 창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기여하는 것이 필요
  -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됨. 또한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미국대학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교원 창업기업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

-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 -

- 제 14조 (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벤처기업 · 실험실창업이나 실험실공장의 설립에 따른 운영으로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창업교원은 대학 교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교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④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창업교원은 창업 이후에도 창업활동에 대하여 대학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2) 교원 업적평가

●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기준이 논문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원이 창업에 도전하거나 지도학생의 창업을 독려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교원·연구원이 재임용, 승진,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해서는 SCI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또한, SCI 논문 성과는 지도학생에 의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지도학생의 창업독려에 소극적



**(창업경험 교수)** 4년 전 창업하였으나 사업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림. 조금 더 하면 성공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지속하다가는 논문부족 등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창업을 포기함. 지금은 교수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편하기는 하지만, 당시 내 아이টে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함

### 〈신문 보도자료 : 科技 골든타임 놓치면 하청국가 된다 “교수 업적평가에 ‘창업 요인’ 넣어야 학교도 살고 벤처도 산다”〉

“교수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줄 때나 대학의 승진 업적평가에서 이공대조차 창업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하겠다며 대학의 도전정신이나 창업가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허공에다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벤처기업가인 윤병동(49·사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대 연구공원에서 기자와 만나 “교수 업적평가나 R&D 과제평가가 논문이나 특허 위주여서 교수의 기술이전은 물론 연구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매출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꿈꾸는 윤 교수는 “서울공대마저도 400명 가까운 교수 중 창업자는 수십 명 있으나 진지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교수나 연구원의 기술 기반 창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벤처 창업 문화도 조성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교수 업적평가가 좋아야 정부 과 제도 잘 따는 현실에서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이 창업 등 책임자의 우수성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공계 교수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료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aily.com/NewsView/1VGOCYXYLI>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교원 창업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학교는 140개교(33.5%) 수준

교원창업 업적평가 반영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7			2018			
	반영	미반영	전체	반영	미반영	전체	
대학교	빈도	91	182	273	103	167	270
	비중	33.3	66.7	100.0	38.1	61.9	100.0
전문대학	빈도	29	120	149	37	111	148
	비중	19.5	80.5	100.0	25.0	75.0	100.0
전체	빈도	120	302	422	140	278	418
	비중	28.4	71.6	100.0	33.5	66.5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교원의 직접 창업 및 지도학생의 창업지원성과를 누적으로 반영하고,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 창업 점수로 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

- 현 정부 창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17.11.01)」에서도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환경 구축을 제1과제로 제시
  - ※ 기업·대학·출연연구 우수인재들의 **質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환경 구축을 위하여, 대학·출연연구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을 제시
- 교원의 창업 및 지도학생의 창업지원성과를 누적으로 반영하고,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 해당점수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도 업적평가 반영 필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례

영역	지표	배점	세부내역
2-8 (창업)	교원 창업	100	- 최초 창업 1회에 한함
	지도학생 창업	30	- 최초 창업 1회에 한함
	교원 창업기업 학생 취업	10	- 점수×학생수로 창업교원에게 부여 - 연도별로 누적 적용
	학생 창업기업 학생 취업	5	- 점수×학생수로 창업 지도교수에게 부여 - 연도별로 누적 적용
	로열티	20/100만 원	- 로열티×20점/100만 원 (년 200점 상한)

- 교수 커뮤니티 모두가 학문분야에서 그들 동료의 업적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차원의 시상식 개최 필요



**사례** 서부 캘리포니아 대학

- ◎ 대학은 교수진의 업적을 지원하고, 보람을 주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교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
- ◎ 기업가 연구를 위한 Lloyd Grief 센터는 연례 Faculty Research Awards의 일환으로 총 11,000달러의 연구 보조금으로 3명의 교수진을 선발
- ◎ 센터는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작성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연례 Greif Research Impact Award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갖춘 교수에게도 보상을 제공

- 창업교육 관련 교원으로 지정된 인력은 교육시수를 감면하여 창업과 교육을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3) 창업(중점)교수

- 창업중점교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학 내 전임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창업전문가를 선발하는 방법이 있음
  - (대학 내 자원의 활용) 기 채용된 전임교원 중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원을 창업중점교수로 지정하여 대학 내 창업지원 활동을 전담하게 하고, 시수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 (외부 선발) 별도의 창업중점교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현재 대학 내에 정착된 산학협력 중점교수제도를 활용하여 교수를 선발하고, 창업중점교수의 직책과 업무를 부여
- 또한, 창업으로 인한 겸직을 하는 교원 중 매출과 고용 등 일정한 성과(학생의 취업 성과 등)를 달성한 경우, 창업중점교원으로 지정하여 교육시수를 감면하여 창업과 교육을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창업이후 겸직을 통하여 창업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강의부담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으로 창업과 교육의 병행에 어려움
    - ※ 창업 및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활동과 학문·연구 활동 등에서 대학, 소속학과 교수, 대학원생 등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

### 4) 창업연구년

-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구년 신청이 가능한 “창업연구년제도” 도입 추진 필요
  - 창업은 마켓타이밍과 몰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년을 활용한 창업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연구년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속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켓타이밍과 미스매치 발생



###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연구년의 경우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존 연구년과 비교하여 신청기간, 자격조건 등에 있어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창업연구년제도 반영(안)

##### 규정(안)

제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학술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창업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연구년 교수라 함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0조(신청자격 등) ① 본 대학에서 7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고, 3년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6개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창업연구년의 경우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 대학 관련규정에 의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2회차 이상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구년 종료후 7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1년, 3년 6개월이상 근무한 교원은 6개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창업연구년 신청으로 7년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2회차 이상 연구년의 신청은 창업연구년 종료 후 7년에 미충족 근속기간을 근속해야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창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구년을 장려하도록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책(예, 소액의 연구비 지원)을 마련하고, 해당학과 및 학문분야의 창업교육을 1년간 연구한 이후에 창업교육 및 훈련의 전문가로 활용



연구년제도를 활용하여 매년 각 대학에서 해외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수들에게 창업 또는 창업교육을 연구 주제로 하는 경우 대학 내 사업(LINC+ 사업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 연구년을 이수한 창업교육 전문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연계의 플랫폼을 만들고, 해당과목의 교육에 체화된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유도

### 3 창업지원 전담조직

#### 가 추진배경 및 목적

대학 내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별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최적의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현황

##### 1)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현황

- ❖ (필요성 및 조직형태) 최근 대학 내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관련 조직이 생겨나고 있으며, 각 조직별 기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학 내 효율적인 창업지원 주체 운영 모델 개선이 요구됨

지원사업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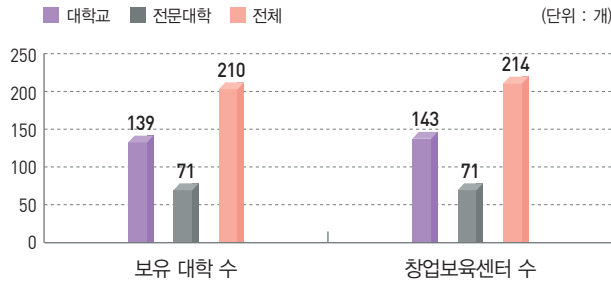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조직 현황
LINC 사업 (창업교육센터) *17년 이후 L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 이후 창업 멘토링, 자금 지원, 창업보육 등 창업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으로 연계 보완이 필요</li> <li>• LINC 사업단의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및 지원정도가 결정</li> </ul>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학 내 창업교육과의 연계성 부족</li> <li>• 대학 내 낮은 위상, 인력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해 입주한 초기기업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수익사업 외에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li> </ul>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창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대학생 창업자 발굴 한계</li> <li>• 초기창업패키지 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 사업의 확산이 어려움</li> </ul>
기업가센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센터 중심의 창업지원사업 일원화에 대해서 예산 집행 및 인력 조정 문제로 인해 기존 창업 조직의 협력이 어려움</li> <li>•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교비, 기부금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li> <li>• 기업가센터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 사업의 확산이 어려움</li> </ul>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창업교육센터)** 2011년부터 LINC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LINC 대학도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을 통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이후 창업 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기술 지원, 보육지원 등 창업사업화에 대한 연계지원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
  - 일부 대학의 경우 설립 초기 LINC사업단 내에 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외부 사업의 재정과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존재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 제공을 위해 설립된 시설
  - \* 17년 창업선도대학 선정 시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단'으로 통합을 의무화
    -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학교는 210개교(50.2%)이며 전년대비 1.4% 증가, 창업보육센터 수는 214개 ('17년 기준)

[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보유 현황

(단위: 개, %)

구분	구분	보유여부						창업보육센터 수			
		2016			2017			2016		2017	
		보유	미보유	전체	보유	미보유	전체	전체	학교 당	전체	학교 당
대학교	빈도	135	138	273	139	131	270	138	1.02	143	1.03
	비중	49.5	50.5	100.0	51.5	48.5	100.0				
전문대학	빈도	72	77	149	71	77	148	72	1.00	71	1.00
	비중	48.3	51.7	100.0	48.0	52.0	100.0				
전체	빈도	207	215	422	210	208	418	210	1.01	214	1.02
	비중	49.1	50.9	100.0	50.2	49.8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지원단)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해, 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선발된 대학의 경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함
  - '19년에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 사업화자금 지원, 초기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두 가지 공통 지원 내용으로 일원화하고 주관기관별 창업특화 프로그램 수행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확보 및 보호 등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 별 운영)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2022)과 창업관련 정부 정책 및 지원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교원/행정직원)이 증가하면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보유한 학교는 293개교(70.1%), 전담인력은 3,446명 (교원 959명, 직원 2,487명 (‘18.4.1 기준))

창업교육 전담조직 보유 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보유	미보유	전체	보유	미보유	전체
대학교	빈도	167	106	273	170	100	270
	비중	61.2	38.8	100.0	63.0	37.0	100.0
전문대학	빈도	126	23	149	123	25	148
	비중	84.6	15.4	100.0	83.1	16.9	100.0
전체	빈도	293	129	422	293	125	418
	비중	69.4	30.6	100.0	70.1	29.9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창업교육 전담조직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전담 교원	직원			소계		전담 교원	직원			소계	
		전담	겸임	소계	전체	학교 당		전담	겸임	소계	전체	학교 당
대학교	406	686	232	918	1,324	7.9	763	1,693	461	2,154	2,917	17.2
전문대학	170	134	124	258	428	3.4	196	187	146	333	529	4.3
전체	576	820	356	1,176	1,752	6.0	959	1,880	607	2,487	3,446	11.8

※ 창업교육 전담조직 인력 현황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예산은 231,065.8백만 원(교비 89,605.1백만 원, 외부지원 141,460.7백만 원)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교비	외부지원	소계		교비	외부지원	소계	
			전체	학교당			전체	학교당
대학교	24,739.2	107,563.0	132,302.2	792.2	86,558.8	132,446.0	219,004.8	1,288.3
전문대학	2,336.0	13,195.3	15,531.3	123.3	3,046.3	9,014.7	12,061.0	98.1
전체	27,075.2	120,758.3	147,833.5	504.6	89,605.1	141,460.7	231,065.8	788.6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17년 창업교육 전담조직 소속은 독립형(총장직속) 35%, 취업관련부서 28.9%, 산학협력단(26.4%) 순

**창업교육 전담조직 소속(중복응답)**

(단위 : 개, %)

구분	2016									
	취업관련 부서		산학협력단		독립형(총장직속)		기타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대학교	64	22.5	92	32.4	84	29.6	44	15.5	284	100.0
전문대학	68	44.7	53	34.9	22	14.5	9	5.9	152	100.0
전체	132	30.3	145	33.3	106	24.3	53	12.2	436	100.0

구분	2017									
	취업관련 부서		산학협력단		독립형(총장직속)		기타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대학교	82	19.2	119	27.9	174	40.7	52	12.2	427	100.0
전문대학	92	52.6	40	22.9	37	21.1	6	3.4	175	100.0
전체	174	28.9	159	26.4	211	35.0	58	9.6	602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최근 들어 대학 내 창업지원단 설치 등을 통해 기존 창업교육 및 지원 조직 간 상호 연계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
  -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형태는 대학별 보유 역량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대학 내 다양한 창업지원 조직(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등)이 존재할 경우 창업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일관된 학내 창업지원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다 창업지원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사례

### 1) 창업지원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통합형 모델

- (창업지원 관련 주체 통합 운영) 대학 내 창업지원 관련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창업교육과 보육, 사업화 및 성장지원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방안
- (적용대상) 교육, 보육, 사업화 등 3개 이상의 창업지원 조직이 갖추어져 있으나, 해당 조직별로 업무 연계 및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인 경우 적용
- (추진방안)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의 창업관련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해 동일인이 해당 조직을 총괄
- (장/단점) 대학 내 모든 창업지원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단계별로 운영함으로써
  - ①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의 중복 가능성을 제거
  - ② 조직 및 직제 신설 등 효율적 운영
  - ③ 기존 창업지원조직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창업교육 및 보육, 사업화 지원 등 각 영역별 기능이 원활치 않은 경우 통합으로 인한 혼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교육-보육기능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리형(이원화) 모델

- (핵심역량과 기능에 따른 전문화) 대학 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의 분리를 통해 각 주체별 전문성을 우선 강화하고 향후 단계적인 통합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적용대상) 분리형(이원화) 모델은 초기 창업교육 및 보육지원 조직 등은 갖추어져 있으나 해당 기관별 기능 및 역할 중복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적용
- (추진방안) 대학 내 창업교육 기능은 창업교육센터, 창업 사업화 지원 및 일반인 창업교육은 창업지원단, 성장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기능별 분화하여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 (장/단점) 대학 내 창업지원조직 간 전문성을 인정해 별도의 조직으로 유지하되 대학생에 대한 창업교육은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화 지원과 일반인 창업교육은 창업지원단,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각 지원조직이 보유한 핵심역량 및 역할에 따라 기능별 분화를 통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조직간 업무의 중복 및 협력체계 혼란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 통합형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

## 2) 창업지원 전담조직과 지역 네트워크 연계

### 대학 창업지원 전담조직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연계방안

-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금 및 기술자원, 지역 혁신주체 등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행조직(협의체)과 운영예산의 수반이 핵심 기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연계 노력이 필요
- (1단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창업활성화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및 활용
  -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 창업활성화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센터지역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창업교육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기관, 기타 창업지원 유관 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을 연계하며,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내부에 설치하기도 함
  - (주요기능) 지역 특색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지원 방향 및 목적,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통합 조정 및 심의 등을 담당
  - (운영예산) 운영위원회 예산은 참여기관의 분담금 형태로 운영
- (2단계) ‘지역 창업활성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분담
  - (운영위원회) 지역 내 창업교육 통합 운영 심의 및 조정 역할 수행

- (지역 대학)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인력양성 및 공급 역할
  - (창업교육지역협의회) 창업교육 현장컨설팅 및 콘텐츠 교류 지원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운영중인 지역 내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자금, 기술, 컨설팅, 설비/공간 등 해당 기관이 보유한 유·무형 네트워크를 대학과 연계 운영 및 지원
- (3단계)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연계 및 통합 추진
    -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 지역 대학의 창업지원 전담조직 내부에 '지역별 창업지원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계 및 통합 추진

[ 단계별 지역창업지원 활성화 추진방안 ]





### 3) 창업지원 전담조직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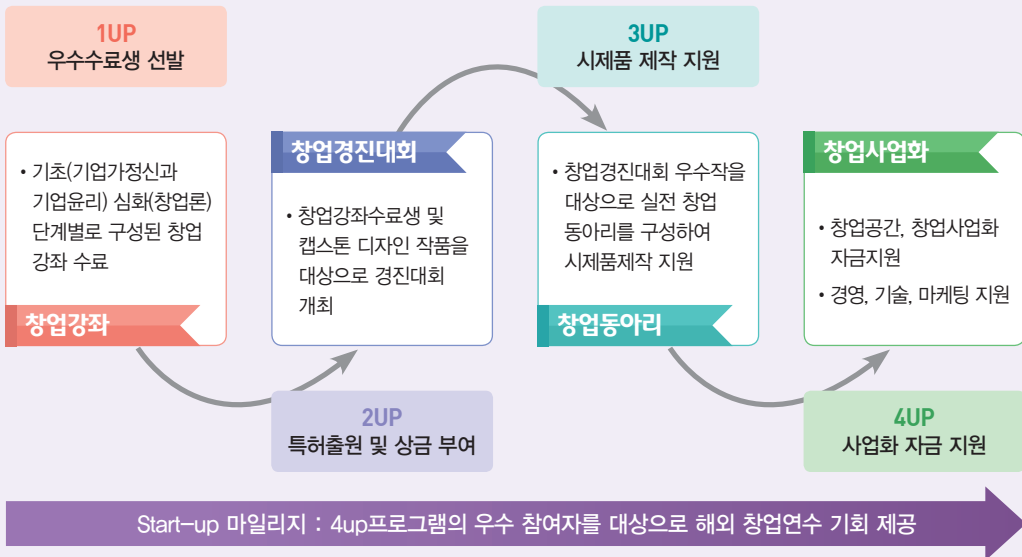


사례

#### 한국산업기술대

-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를 각각 운영하던 중에 13년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강좌 → 경진대회 → 창업동아리 → 창업으로 이어지는 4UP 프로그램을 운영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UP 프로그램 ]



- 창업지원본부 산하의 3개 센터로 구성

-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서 대학 내 독립된 조직으로 창업지원단 (대학내 조직)과 창업지원단장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현재 형식상 구성되어 있는 창업지원단을 창업지원본부로 개편 (단,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 조직 및 직제 신설을 최소화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활용



※ 자료출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magination house 구축방안(2014)



## 4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 가 추진배경 및 목적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성공 창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운영현황

#### 1) 창업지원 공간 및 전담인력, 예산

- (개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이디어 공유, 시제품 개발, 창업멘토링 및 외부 네트워크 연계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하는 대학이 점점 증가
-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창업 지원 전용 공간은 148,994㎡, 전담인력은 1,781명(18.4.1 기준)이며, 총 지원금액은 171,867백만 원(17년 기준)으로 나타남

학생창업 지원금액, 전용공간, 전담인력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교비	외부지원	소계		교비	외부지원	소계	
			합계	학교당			합계	학교당
대학교	22,047	88,960	111,007	458.7	31,336	128,859	160,195	1,033.5
전문대학	2,089	10,909	12,998	83.3	2,392	9,280	11,672	110.1
전체	24,136	99,869	124,005	311.6	33,728	138,139	171,867	658.5

(단위 : ㎡, 명)

구분	전용공간				전담인력							
	2017		2018		2017				2018			
	총면적	학교당	총면적	학교당	교원	직원	소계		교원	직원	소계	
							전체	학교당			전체	학교당
대학교	126,204	876.4	130,543	882.1	407	864	1,271	4.4	450	990	1,440	8.8
전문대학	21,928	252.0	18,451	205.0	130	207	337	1.7	142	199	341	3.1
전체	148,132	641.3	148,994	626.0	537	1,071	1,608	3.3	592	1,189	1,781	6.5

\*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2)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현황

● (개요) 정부는 국내 메이커 운동 확산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메이커 교육과 메이커 페어, 메이커톤 등 메이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지원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 간 교류·협력하는 지역 메이커 얼라이언스 운영, 융합형 전문 메이커 양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역량을 집중

● (운영현황)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메이커 활동공간은 126개(17.9월 기준)

-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 운영시설이 92개로 시설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무한 상상실(21개), K-ICT Device Lab(6개), 시제품 제작터(5개), 아이디어 팩토리(10개) 등으로 구성
  - 평균 운영현황 : 공간 535㎡, 상시 운영인력 4.3명, 월평균 이용자수 610.1명
  - ※ 벤처중소기업부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8년 75개소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367개소 확충할 예정
- 서울 등을 중심으로 민간 운영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미흡, 경직적 운영(업무시간에 한하여 운영, 출입 제한 등),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미흡
  - 연간 운영예산 평균 1.6억 원 수준으로, 자체 수입비중은 36.5%에 불과하여 정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16년 실태조사 결과)
-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인의 62%, 청소년의 74%가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
  - “기회가 된다면 메이커 활동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인 56%, 청소년 70%로, 참여 의향도 높은 상황, 반면, “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불과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과학창의재단, '16년)

(단위 : %)

	성인			청소년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메이커 활동 관심여부	10.4	51.8	37.8	15.6	58.6	25.8
향후 참여 의향	19.8	36.4	43.8	25.4	44.6	30.0
경험여부	7.5	29.9	62.6	10.6	37.8	51.6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 (메이커 페어, Maker Faire) 메이커들이 직접 만든 개인작품 또는 성과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세미나와 유명인사 강연이 함께 진행
  - 2006년 San Mateo에서 열린 첫 메이커 페어에는 22,000명이 관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약 200회 이상의 메이커 페어(미니 메이커 페어 포함)가 개최
  - ※ 우리나라는 2012년 처음 시작되어 '17.10.21. ~ 22. 제6회 메이커 페어 서울 개최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창업가, STEM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메이커의 창의성을 촉발하고 발명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을 초청합니다.”

(2014. 6. 17, Barak Obama, 백악관 메이커 페어)



### 📦 (국내 주요 메이커 스페이스)

- (메이커 스페이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지원
  - 메이크올<sup>1)</sup>에서 메이커 행사·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 검색·예약 가능
  -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간에 메이커들의 제작·교육·체험을 위한 각종 장비 구비
  - 메이커들 간 지식·정보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

구분	일반랩	전문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li> <li>- 생활반경의 쉬운 접근성과 아이디어 구현 및 타인과의 공유가 용이한 공간</li> <li>-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li> <li>-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제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일반랩-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전문 공간</li> </ul>

- (무한상상실<sup>2)</sup>)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 제작을 하거나 UCC제작, 스토리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등의 지원
  -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국 무한상상실 21개(거점 16개, 거점 전환형 5개) 운영 중

1) <https://www.makeall.com>

2) <https://ideaall.net>

-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sup>3)</sup>) 서울시가 만들었고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N15이 위탁운영 중
  - 철판을 자르는 플라즈마 커터, 용접기 등 중장비를 비롯해 CNC, 레이저커터, 비닐커터, 펀칭기, 전기톱, 연마기, 재봉틀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
  - 운영초기여서 현재 하루 이용자는 10~20명 정도이며, 장비 사용법 등 중심의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예비창업자들에게는 필요한 기술과 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
  
- (팹랩) “Fabrication Laboratory(제작실험실)”의미를 가진 Fab Lab은 미국 MIT의 인증을 받은 전문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 팹랩 서울<sup>4)</sup>은 13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이 설립한 타이드인스티튜트 부설 기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세운상가에 위치
  - 팹랩 청주<sup>5)</sup>는 맞춤형 제조 전문기업인 (주)메이킹브라더스에서 운영
  -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팹틴, 장비를 싣고 찾아가는 팹트럭을 운영하고, 만들기 대회인 무박 2일 메이커톤(메이크+마라톤)도 개최

3) <https://www.digital-blacksmithshop.com>

4) <http://fablab-seoul.org>

5) <http://fablab-cheongju.org>



## 다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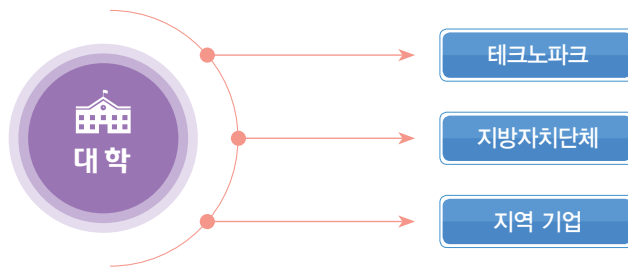
### 1)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활성화 방안

📦 (개요) 지역 대학 간 또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시제품 개발, 창업멘토링 및 자금투자/Demo-day 등 종합적인 창업활동지원까지 가능한 원스톱 예비 창업공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설립방법) 대학 소속(단독) 또는 지역대학 공동(연합) 등을 통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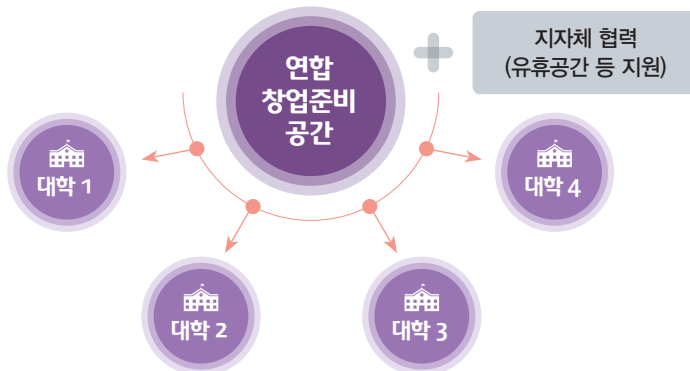
- (단독설립) 대학 소속으로 단독 설립할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가족회사를 통해 차별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자체 보유 공간 및 장비 등을 최대로 활용 가능
- (대학-외부기관 연계 설립) 대학과 지역 테크노파크,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에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

[ 대학-외부기관 간 연계 설립 ]



- (대학간 연계 설립) 지역 내 외부 위탁기관(지자체 또는 창업선도대학 등) 등의 유휴 공간을 지역 내 대학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

[ 대학 간 연계 설립 ]



## 2)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우수사례

### 공간 및 장비

#### ● 가톨릭관동대학교

##### ▶ Open創創공작소(오픈창창공작소)

###### | 개요 |

- 3D 모델링 및 프린팅, APP 제작, 임베디드 S/W 등 (예비)창업자의 제품구현 지원

###### | 주요 내용 |

- 3D 프린터 활용 교육, 3D 프린팅 시작품 제작(출력) 무상 지원
- 출력물 피드백(24시간 이내), 디자인마케팅센터의 디자인 보완컨설팅



#### ● 동서대학교

##### ▶ 공용장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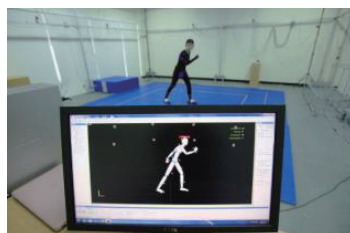
###### | 개요 |

- 지역 유관기관,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개발진입장벽 해소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플랫폼 구축

\* 분야 :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영상미디어, 디자인

###### | 주요 내용 |

- 스마트디바이스 기반 장비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장비사용 포인트제 운영, 패밀리기업제도 운영을 통한 장비 활용 소요금액 일부 지원 등





PART 3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환경 구축하기

I 운영 절차 I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PART IV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IV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대학(원)생의 창업 교육은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로 구분함
  - 정규 교과는 창업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창업강좌 커리큘럼을 사례를 제시함
  - 비정규 교과는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특강 등을 확인함
- 교원 창업 교육에서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소개함
  - 창업교육거점센터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사례 소개
  -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과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소개

## 1

## 대학(원)생

### 가

### 정규 교과

#### 1) 추진배경 및 목적

국내·외 선진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창업교육 정규 교과목 운영현황 및 세부 커리큘럼, 강의 내용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학별 효과적인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운영현황

##### 가) 정규 교과 : 창업강좌 현황

대학 내 창업강좌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교양, 전공)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하는 비정규 교과, 강좌운영형태에 따라 이론형과 실습형(체험형),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규 교과 :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 비정규 교과 :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경진대회 등

'17년 창업강좌를 운영한 학교는 313개교(74.9%)이며 전년과 동일, 총 강좌수는 11,828개, 수강 인원은 410,033명으로 나타남

창업강좌 운영여부, 강좌 수, 수강인원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181	92	273	182	88	270
	비중	66.3	33.7	100.0	67.4	32.6	100.0
전문대학	빈도	132	17	149	131	17	148
	비중	88.6	11.4	100.0	88.5	11.5	100.0
전체	빈도	313	109	422	313	105	418
	비중	74.2	25.8	100.0	74.9	25.1	100.0

(단위 : 개, 명)

구분	강좌 수				수강인원			
	2016		2017		2016		2017	
	강좌 수	학교당	강좌 수	학교당	인원	강좌 당	인원	강좌 당
대학교	5,534	30.6	6,063	33.3	231,458	41.8	240,200	39.6
전문대학	4,927	37.3	5,765	44.0	154,113	31.3	169,833	29.5
전체	10,461	33.4	11,828	37.8	385,571	36.9	410,033	34.7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전체 강좌 중 전공은 53.1%(6,279개)이며 전년대비 17.3% 증가

창업강좌 전공·교양 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전공	교양	전체	전공	교양	전체
대학교	빈도	2,648	2,886	5,534	2,884	3,179	6,063
	비중	47.8	52.2	100.0	47.6	52.4	100.0
전문대학	빈도	2,704	2,223	4,927	3,395	2,370	5,765
	비중	54.9	45.1	100.0	58.9	41.1	100.0
전체	빈도	5,352	5,109	10,461	6,279	5,549	11,828
	비중	51.2	48.8	100.0	53.1	46.9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전체 강좌 중 실습형은 2,479개(21%)이며 전년대비 14.5% 증가

**창업강좌 콘텐츠 유형**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이론형	실습형	전체	이론형	실습형	전체
대학교	빈도	4,353	1,181	5,534	4,852	1,211	6,063
	비중	78.7	21.3	100.0	80.0	20.0	100.0
전문대학	빈도	3,942	985	4,927	4,497	1,268	5,765
	비중	80.0	20.0	100.0	78.0	22.0	100.0
전체	빈도	8,295	2,166	10,461	9,349	2,479	11,828
	비중	79.3	20.7	100.0	79.0	21.0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창업강좌 필수·선택 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필수	선택	전체	필수	선택	전체
대학교	빈도	923	4,611	5,534	1,107	4,956	6,063
	비중	16.7	83.3	100.0	18.3	81.7	100.0
전문대학	빈도	1,309	3,618	4,927	1,524	4,241	5,765
	비중	26.6	73.4	100.0	26.4	73.6	100.0
전체	빈도	2,232	8,229	10,461	2,631	9,197	11,828
	비중	21.3	78.7	100.0	22.2	77.8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전체 강좌 중 오프라인 강좌가 93.7%(11,079개)이며 전년대비 9.7% 증가

**창업강좌 강의방법**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오프라인	온라인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전체
대학교	빈도	5,295	239	5,534	5,665	398	6,063
	비중	95.7	4.3	100.0	93.4	6.6	100.0
전문대학	빈도	4,801	126	4,927	5,414	351	5,765
	비중	97.4	2.6	100.0	93.9	6.1	100.0
전체	빈도	10,096	365	10,461	11,079	749	11,828
	비중	96.5	3.5	100.0	93.7	6.3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3) 창업강좌 커리큘럼

#### 가) 실전형 창업강좌 :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무 중심의 창업강좌 사례

##### 연세대학교 : 창업 201 캠퍼스 CEO

- 강의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팀프로젝트의 명확한 제시와 이를 위한 세부 수행 단계가 주차별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창업201 : 캠퍼스CEO’ 과목의 주차별 강의 계획

주차	수업방법	주제	비고
1	강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2	강의, 팀활동	창업로드맵 및 팀빌딩	
3	강의, 팀활동	아이디어 도출기법 실습 - 브레인스토밍	
4	강의, 팀활동	사업아이디어 평가방법- BMI Method	
5	강의, 팀활동	Business Model Canvas 개요설명	
6	발표	중간발표	
7	강의, 팀활동	Business Model Canvas 작성 - 가치제안, 고객세그먼트	
8	강의, 팀활동	Business Model Canvas 작성 - 채널, 고객관계, 주요활동 등	
9	팀활동	Business Model Canvas 워크샵	
10	강의, 팀활동	사업계획서 작성방법(1)	
11	강의, 팀활동	사업계획서 작성방법(2)	
12	강의, 팀활동	자금조달 전략(VC를 통한 자금조달 위주)	
13	팀활동	사업계획서 코칭 및 Role Playing	
14	발표	데모데이	
15	발표	기말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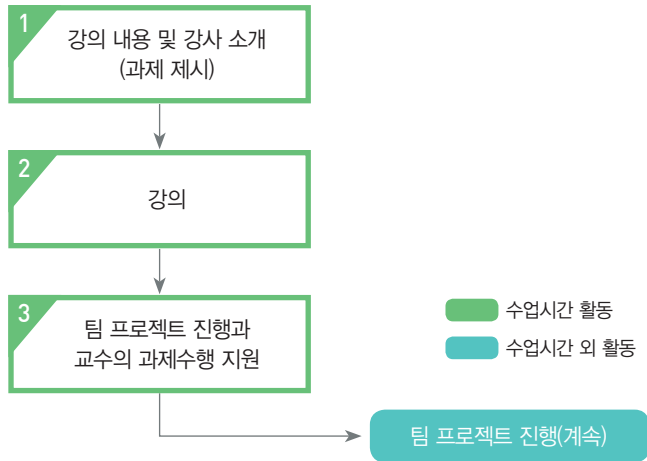
- 수업 흐름

팀티칭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담당 교수의 강의를 매주 1시간씩 진행되고, 나머지 2시간은 학생들의 팀프로젝트를 해당 주차의 교수가 질의응답을 하거나 멘토링을 통해 과제수행을 지원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창업201 : 캠퍼스CEO' 과목의 수업 흐름 ]



● 활동 주체

- 교수 주도하나,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가 중심으로 진행됨. 교수들의 팀티칭,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 수업 활동(내용)

- 매주 3시간의 수업시간 중, 1시간은 담당교수 강의/특강을 진행하고, 2시간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  
 - 강의 내용은 기업가정신 및 사업계획 관련 내용이며, 프로젝트는 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 평가 대상

- 사업계획서 중심(중간, 기말 평가, 동료평가), 참여도 및 출석을 평가에 반영

● 기타 특이사항

- 평가는 특강 강사 및 멘토그룹으로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피드백을 줌  
 - 사업아이템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과 아이템이 우수할 경우, 아이템개발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인덕대학교 : 창업실무

강의계획서 검토

창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강의방식으로 예측되거나 평가방식이 드러나지 않아 세부사항 확인 필요 있음

'창업실무' 과목의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수업방법	주제	비고
1	강의	창업환경 이해 - 창업의 정의, 창업의 3요소, 창업의 종류	
2	강의	업종별 창업절차 및 사업자 등록	
3	강의	기업가정신의 정의	
4	강의	사업아이템 개발 - 사업아이템의 발굴, 아이디어 발상기법	
5	강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의미, 내용, 프로세스	
6	강의	입지와 상권의 중요성, 상권 분석을 위한 기본학습	
7	강의	경영과 마케팅 - 마케팅 전략 수립과 마케팅 기법의 이해	
8	-	중간고사	
9	강의	기업회계 - 재무제표의 이해, 종류, 분석법	
10	강의	창업자금의 추정 방법, 자금의 종류, 자금조달 전략	
11	강의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및 실전 사업계획서 작성	
12	강의	산업 환경의 변화와 특성, 기업의 대응방안	
13	강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 출원과 등록, 기술계약 및 거래	
14	강의	세무와 회계 -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	
15	-	기말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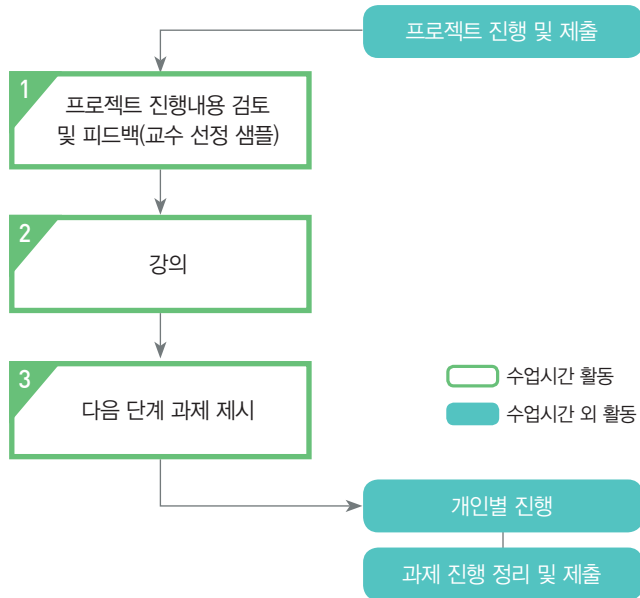
수업 흐름

학생들이 개인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중간 산출물에 대하여 매주 교수가 검토 및 피드백을 제공. 이 때 검토대상은 전체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수가 미리 선정해 온 몇 건으로 제한함. 이후 과제의 다음 단계 수행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안내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창업실무' 과목의 수업 흐름 ]



● 활동 주체

수업시간은 교수 중심으로 진행되고 과제(개인)는 학생 중심으로 진행

● 수업 활동(내용)

교수 강의 방식으로 수업의 앞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소개와 피드백을 진행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 진행

학생 요청에 의해 수업시간 앞뒤, 수업 이외 시간에 개인 과제에 대한 질문, 피드백

● 평가 대상

과제를 중간/기말에 나눠 평가하고, 레포트 형태의 과제도 제출함. 주요 평가 대상은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업계획서

- 중간 35% : 아이템 중심, 기말 35% : 발표 완성도

- 기타 30% : 출석과 중간에 제출하는 레포트

● 기타 특이사항

교수의 강의 내용은 이론 중심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서칭 기법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제공함. 중간 레포트는 산업키워드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을 요구



## 나) 이론형 창업강좌 : 창업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이론 중심의 창업 강좌

### ◆ 건국대학교 : 벤처창업경영의 이해

#### ● 강의계획서 검토

일반적인 창업과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파악됨

‘벤처창업경영의 이해’ 과목의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수업방법	주제	비고
1	강의	기업가정신과 한국의 벤처	
2	강의	벤처기업의 성공과 실패	
3	강의	벤처기업가	
4	강의	벤처기업의 지원과 역량	
5	강의	벤처기업의 산업환경	
6	강의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7	강의	사업기회의 발견	
8	-	중간고사 시험	
9	강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위험평가	
10	강의	사업계획서	
11	강의	자금의 조달과 관리	
12	강의	벤처마케팅	
13	강의	벤처기업의 조직관리	
14	강의	벤처기업의 국제화	
15	강의	벤처기업의 M	
16	-	기말고사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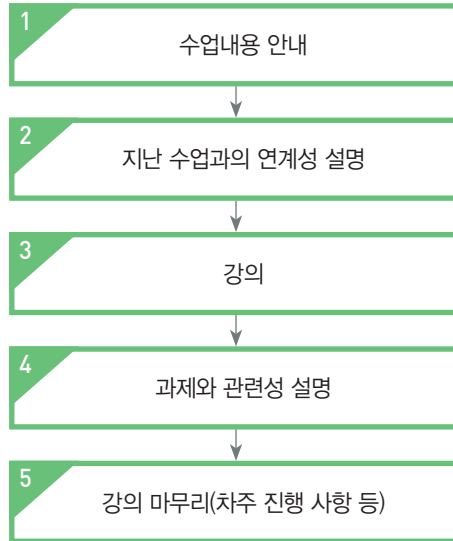
#### ● 수업 흐름

교수의 해당 주차의 수업 안내와 지난 수업과의 연계성 및 해당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사례들을 소개받으며 레포트 등의 과제가 있을 시 안내를 제공 받음. 마무리에는 다음 시간 강의에 대한 안내를 제공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벤처창업경영의 이해' 과목의 수업 흐름 ]



● **활동 주체**

교수 중심으로 주로 강의 진행

● **수업 활동(내용)**

교수의 강의를 수업활동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자의 간단한 질의응답 등의 활동이 포함

● **평가 대상**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를 모두 과제로 제출하며, 출석과 제출된 과제물로 평가함

● **기타 특이사항**

교양과목으로, 학생들이 학년, 전공, 국적이 너무 다양하여 높은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설명하며, 창업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인식, 흥미 유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단국대학교 : 벤처창업경영론

● 강의계획서 검토

일반적인 창업과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파악됨

'벤처창업경영론' 과목의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수업방법	주제	비고
1	강의	강의계획서 소개, 창업의 중요성	
2	강의	사업장(점포) 소재지 계획(The Location Plan)	
3	강의	수확계획(The Harvest Plan)	
4	강의	고객관계 증진의 중요성(Customer Relationships)	
5	강의	제품 및 공급사슬관리(Product and Supply Chain Management)	
6	강의	가격과 여신조건(Pricing and Credit)	
7	강의	판촉계획(Promotional Planning)	
8	-	중간고사(Mid term)	
9	강의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	
10	강의	전문경영과 리더십(Professional Management and Leadership)	
11	강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12	강의	오퍼레이션(생산, 품질, 재고, 물류) 관리(Operation Management)	
13	강의	기업의 자산관리(Management the Firm's Assets)	
14	강의	창업성공사례 동영상 시청	
15	-	기말고사(Final Examination)	

● 수업 흐름

교수의 해당 주차의 수업 안내와 지난 수업과의 연계성 및 해당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사례들을 소개받으며 레포트 등의 과제가 있을 시 안내를 제공 받음. 마무리에는 다음 시간 강의에 대한 안내를 제공

[ '벤처창업경영론' 과목의 수업 흐름 ]





##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 활동 주체

교수 중심으로 주로 강의 진행

### ● 수업 활동(내용)

교재를 바탕으로 한 교수의 강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에 참여

### ● 평가 대상

지필고사형태와 단순 레포트형의 과제를 통해 평가

### ● 기타 특이사항

교양과목으로 운영되며, 수강신청 목적, 학생들의 관심도, 참여도 등이 매우 다양하고 격차가 큰 편으로 유튜브 등의 인터넷의 좋은 자료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 사회적경제 관련 강좌

### ■ 남서울대학교 : 사회적경제와 창업

#### ● 과목 개요(Course Description)

사회적경제와 창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 및 기업가를 연구하는 분야로 해외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process의 연구를 주된 분야로 함.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실업문제, 부의 분배불균형,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실생산적 사회정책과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서비스의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후원하는 대기업이 상당수 증가, 사회적기업을 실현하는 상당수의 사회단체가 출현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대

또한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본 과목에서는 국내외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론과 사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하며 또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및 이론을 학습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차이를 고려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모색

● 수업 목표(Course Goals)

본 강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과목목표는

-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례와 연구
- 2)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해
- 3) 사회적 기업가정신
- 4)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모형과 비즈니스사례
- 5) 협동조합의 개념과 사례
- 6)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 7) 사회적기업과 창업
- 8)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책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

● 강의 진행 방식(Course Procedures)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및 배포되는 논문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 자료 및 각종 site 등에 기초하여 발표를 수행하며 발표에 대하여 토의를 통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종 사례소개를 통하여 심화학습을 수행

● 학습 평가 방법(Grading and Evaluation)

출석 20%, 팀 프로젝트 발표 40%, 기말고사 40%

● 주별 강의내용/과제(Weekly Course Schedule/Assignments)

1주차 강의내용	강사 및 강의계획 소개(오리엔테이션)/학습목표 및 수업진행방법 등 소개 - 창조경제와 대학생 창업의 이해
2주차 강의내용	청년 창업과 진로 선택 - 국내 청년창업의 환경의 이해 - 대학생 진로선택과 창업
3주차 강의내용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이해 - 창업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기업가의 특성과 비전 설정
4주차 강의내용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이해 1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커뮤니티 등
5주차 강의내용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제도의 발전과 미래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등
6주차 강의내용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배경 - 유럽과 미국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유럽), social venture & social entrepreneurship(미국)
7주차 강의내용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용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해 및 실습 1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8주차 강의내용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용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해 및 실습 2
9주차 강의내용	협동조합의 이해 및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마을기업, 커뮤니티 등) :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10주차 강의내용	비즈니스 플랜 Process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계획서를 중심으로
11주차 강의내용	Team Project : 5달러 프로젝트 팀 빌딩 및 토론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팀 프로젝트
12주차 강의내용	-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 자금조달과 자금지원 - Team Project : 5달러 프로젝트 토론
13주차 강의내용	지역경제개발과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개발 모델
14주차 강의내용	Class 총괄 정리 :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 - Team Project : 5달러 프로젝트 발표
15주차 강의내용	기말고사

## 나 비정규 교과

### 1) 추진배경 및 목적

- 현장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창업의 특성 상 학생들이 업무경험, 생태계 체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현장실습 강화 필요

※ 2016년부터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을 발족하여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학생리그'인 '학생 창업유망팀 300'을 운영 중

### 2) 운영현황

- (프로그램) 비정규 교과 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으로 각 대학은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캠프, 특강 등을 운영 중

- (창업동아리) '17년 창업동아리를 보유한 학교는 283개교(67.7%)이며 전년대비 5.6% 증가, 창업 동아리 수는 5,596개, 회원 수는 41,440명

창업동아리 보유 여부, 동아리 수 및 회원 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대학교	빈도	152	121	273	160	110	270
	비중	55.7	44.3	100.0	59.3	40.7	100.0
전문대학	빈도	116	33	149	123	25	148
	비중	77.9	22.1	100.0	83.1	16.9	100.0
전체	빈도	268	154	422	283	135	418
	비중	63.5	36.5	100.0	67.7	32.3	100.0

(단위 : 개, 명)

구분	창업동아리 수				회원 수			
	2016		2017		2016		2017	
	전체	학교 당	전체	학교 당	전체	동아리 당	전체	동아리 당
대학교	4,202	27.6	4,451	27.8	28,622	6.8	26,502	6.0
전문대학	1,266	10.9	1,145	9.3	16,765	13.2	14,938	13.0
전체	5,468	20.4	5,596	19.8	45,387	8.3	41,440	7.4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창업경진대회) '17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학교는 256개교(61.2%)이며 전년대비 5.3% 증가, 총 개최 수는 597개

창업경진대회 개최 여부, 개최 수, 및 공동개최 여부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개최	미개최	전체	개최	미개최	전체
대학교	빈도	144	129	273	155	115	270
	비중	52.7	47.3	100.0	57.4	42.6	100.0
전문대학	빈도	99	50	149	101	47	148
	비중	66.4	33.6	100.0	68.2	31.8	100.0
전체	빈도	243	179	422	256	162	418
	비중	57.6	42.4	100.0	61.2	38.8	100.0

(단위 : 개, %)

구분		개최 수				공동개최 여부					
		2016		2017		2016			2017		
		개최 수	학교 당	개최 수	학교 당	공동	단독	전체	공동	단독	전체
대학교	빈도	381	2.6	447	2.9	128	253	381	144	303	447
	33.6					66.4	100.0	32.2	67.8	100.0	
전문대학	빈도	156	1.6	150	1.5	17	139	156	29	121	150
	10.9					89.1	100.0	19.3	80.7	100.0	
전체	빈도	537	2.2	597	2.3	145	392	537	173	424	597
	27.0					73.0	100.0	29.0	71.0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캠프) '17년 창업캠프를 개최한 학교는 238개교(56.9%)이며 전년대비 10.2% 증가, 총 개최 수는 774개

창업캠프 개최 여부, 개최 수, 공동개최 여부

(단위 : 개, %)

구분		개최 수				공동개최 여부					
		2016		2017		2016			2017		
		개최 수	학교 당	개최 수	학교 당	공동	단독	전체	공동	단독	전체
대학교	빈도	572	4.3	629	4.2	188	384	572	197	432	629
	32.9					67.1	100.0	31.3	68.7	100.0	
전문대학	빈도	152	1.8	145	1.6	16	136	152	27	118	145
	10.5					89.5	100.0	18.6	81.4	100.0	
전체	빈도	724	3.4	774	3.3	204	520	724	224	550	774
	28.2					71.8	100.0	28.9	71.1	100.0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개최	미개최	전체	개최	미개최	전체
대학교	빈도	133	140	273	149	121	270
	비중	48.7	51.3	100.0	55.2	44.8	100.0
전문대학	빈도	83	66	149	89	59	148
	비중	55.7	44.3	100.0	60.1	39.9	100.0
전체	빈도	216	206	422	238	180	418
	비중	51.2	48.8	100.0	56.9	43.1	100.0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2019), 2018년 대학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 **(창업특강)** 모든 대학이 2개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창업지원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공 CEO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특강 실시
- **(자율특화)** 대학에서 창업훈련 등을 위해 자율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초기창업패키지 운영 대학은 평균 6개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 중

### 초기창업패키지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사례

구분	주요내용
창업 Dream On 센터 (강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아이디어 등록 및 전문가 평가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li> <li>• 등록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를 통해 검증·구체화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지적권 출원, 인증 획득 등 후속지원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연계</li> </ul>
제품설계 및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동아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창업기업과 본교 디자인 전공자를 매칭하여 협업 프로젝트 진행</li> <li>• 재학생 컨소시엄별 담당교수를 지정, 창업기업의 제품디자인, 브랜드(B, C)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약 3개월 소요)</li> </ul>
청년상인물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체험관 운영</li> <li>• 초기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진행, 마케팅전략 수립 지원</li> </ul>
비즈쿨 활성화 프로그램 (조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쿨 메이커톤 대회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아이템 제작 지원</li> <li>• 비즈쿨 꿈나무 교류회 : 비즈쿨 학생 간 네트워킹, 창업마인드 제고</li> <li>• 비즈쿨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창업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협업 체험</li> </ul>
대학생 Level-up 창업 네트워크 (건국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인 대학생 간의 네트워킹, 현직 CEO 및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역량 강화 지원</li> <li>- (1차) 현직 CEO 특강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참가자 네트워킹</li> <li>- (2차) Level-up 멘토링 (개인/그룹), 참가자 네트워킹</li> </ul>
SK2U 카톡 (성균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관련 소모임 운영을 통해 재학생과 선배 창업자, 예비창업자와 멘토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li> <li>•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창업 관련 지원내용에 대한 접근성 제고</li> </ul>

※ 자료출처 : 고혁진(2017), 대학 창업지원 모델 고도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3) 비정규 교과 창업활동

#### 가) 창업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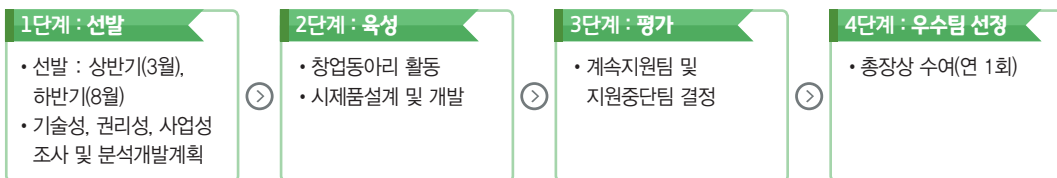
##### 개요

- (목적) 창업동아리의 기능을 역량있는 학생 창업자 발굴의 등용문 뿐 아니라 대학 창업문화를 선도하고 창업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조직으로서 기능 부여
- (운영주체) 창업지원단 또는 창업관련조직
- (모집대상) 교내외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팀
- (모집시기) 연 2회(3월, 9월)
- (지원내용) 창업공간, 기획 및 제작비 지원, 전문멘토링, 주요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지원 등
  - (창업공간) 아이템전시실, 시제품제작실, 창업준비실, 창업카페 등 창업동아리 활성화 및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 제공
  - (멘토링) 지도교수 및 전담멘토 등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 및 지원 실시
  - (네트워킹) 교내외의 창업전문가 Pool 구성하고, 창업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분야별 자문활동(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 등의 연계 지원

##### 주요사례 : 인천대학교 창업동아리<sup>1)</sup>

- 창업동아리 발굴 · 육성
  - 대학 내 창업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프로세스 진행
  - 창업동아리 실패 최소화를 위해 전담멘토제를 활용하여 아이템 시장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 후 개발비를 지급하고, 현실성이 낮은 아이템은 포기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창업동아리 발굴 · 육성 체계도 ]



- 창업동아리 지원
  - (집중케어지원) 지도교수, 전담멘토, 담당실무자 배정을 통한 전담 관리 및 지원

1)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www.inustartup.or.kr)

### 창업동아리 집중케어지원 방법

지도교수 배정	전담멘토 배정	담당실무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동아리별 지도교수 1명 필수 배정</li> <li>• 창업동아리 아이템 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 1인당 3~5개팀 창업동아리 지정</li> <li>• 시장조사 및 경영전략수립 지도, 사업의 방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확산팀 직원(2명)의 행정처리 지원</li> <li>• 면담을 통해 사업진척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로드맵 구성</li> </ul>

- (활성화지원) 창업공간, 아이템 기획·제작비 지원, 네트워킹 지원, 우수창업동아리 선정

### 창업동아리 활성화지원 방법

창업공간(Do!Lab)	아이템 기획·제작비	네트워킹	우수창업동아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06.6㎡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5백만 원 지원 (팀별 차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 커뮤니티 구축,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장명의 상장 수여</li> </ul>

- (연계지원) 멘토링센터, 아이디어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문멘토링 지원

### 창업동아리 연계지원 방법

INU 멘토링센터	INU 아이디어센터	INU 리더스	창업기업뿌리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변리·법률 등 상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 상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배기업(동문창업자) 멘토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li> </ul>

## 나) 창업(사업계획서) 경진대회

### 개요

- (목적) 학생들이 보유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실전창업을 위한 기본역량 배양
- (신청대상) 대학(원)생 개인 및 그룹 등
- (고려사항) 사업계획서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동영상강좌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교육자료 제공
- (운영주체) 각 대학 창업지원단 또는 산학협력단 등 창업관련 업무수행 조직
- (운영절차) 서류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시상

※ 교내에서 수행한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지역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국내 창업리그(경진대회) 추진 체계도 : 도전! K-스타트업(2018년도 기준) ]



**주요사례 : 원광대학교 1학과 1기업 창업<sup>2)</sup>**

88

- (개요) 교내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1학과 1기업 창업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함으로써 학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문화 조성
- (신청자격) : 우수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보유한 재(휴)학생  
\* 창업지도교수 및 학생 포함 3인 이상
- (지원내용) : 팀별 최대 5백만 원 창업사업화 자금 및 1학과 1기업 창업 활동 공간 제공

사업화지원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홈페이지제작비, 마케팅비, 현장견학비, 사무용품비
창업아이템 맞춤형 멘토링	아이디어 검증 및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지원
창업장학금	최대 150만원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지원,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사무공간 제공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

2)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changup.wku.ac.kr>)

[ 1학과 1기업 창업 운영 절차 ]



**사례** 사업계획서 공모전 관련 해외 사례

- 라이스 대학은 수상자에게 기업 착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경품 및 현물 자원으로 120만 달러 이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금은 다수의 우승팀에게 제공
-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FAU)은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의 우승자에게 인큐베이터의 여유 공간을 반년 간 제공
- 미시간 기술 대학은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 우승자에게 개인이 아닌 그들 비즈니스에 직접 상금을 지급 하며, 다음해에 수상자는 기금으로 인한 비즈니스 마일스톤을 강조
- 워싱턴 대학은 세미나, 코스 및 멘토링과 함께 학년 내내 다른 공모전으로 구성된 무대의 문을 여는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다음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줌
- 오레곤 대학의 Venture Launch Pathway 프로그램에서 학생 팀은 다른 국가의 연방 연구소, 기업, 대학 및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기술을 선택하며,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술은 법, 비즈니스 및 과학에 대한 배경을 가진 학생 팀에서 국제 비즈니스 공모전으로 진출
- 위스콘신 대학은 학생들이 제품을 구입하여 변경하고 홍보활동을 위한 공개 URL을 만들기 위한 100시간의 도전과제를 수행한 다음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 루이지애나 대학-Lafayette는 Innov8 Lafayette 프로그램을 주최하며, 이 8일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는 혁신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는데, 일부 활동은 환경, 기업가정신 및 예술에 중점을 둠

**다) 창업캠프**

**개요**

- **(목적)** 창업동아리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유도, 잠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창업자를 육성하여 창업활동 장려
- **(방식)** 창업캠프는 단기간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커톤, 메이커톤 등의 방식이 유행 중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운영주체) 창업지원단, LINC 사업단 등 창업관련 전담 부서
- (캠프기간) 1박2일
- (참가대상) 전국 대학생 또는 일반인 포함

**주요사례**

- (한밭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쿨(Bizcool)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간 비교과 창업교육 활동의 연계를 통한 창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1박2일간 집중형 창업캠프를 진행
  - 학부모, 초·중·고, 비즈쿨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

**비즈쿨과 초기창업패키지 간 창업캠프**

행사명	2017 대전·세종·충남 부모님과 함께하는 DT 창의·창업캠프	2017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Biz-Cool 창업캠프
기간	1박2일	1박2일
목적	자기 탐색과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및 활동을 통해 창업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보므로써 실천 창업역량 강화 및 기업가정신 함양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실습·체험중심의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안목, 전략적 마인드 배양
교육방법	사물인터넷과 적정기술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메이커(Maker)를 창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아이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	빅데이터 실무·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에 의한 멘토링 및 코칭 시스템을 갖추고, 창업실행의 전반적 과정에 걸친 빅데이터 활용방법을 이론·실습형 강의로 진행

- (경기대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창업캠프”를 추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과 가족 구성원 간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 소통 및 이해를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 1박2일의 일정으로 신청자 1인과 가족 1인이 동반 참여, 부모-자녀, 부모-부모, 자녀-자녀 등 팀빌딩
  - 창업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팀프로젝트, 부모-자녀 간 역할극, 토크콘서트, 벤처창업 특강, 창업현장(기업) 방문 등의 프로그램 운영
- (국민대학교) “K-GEB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재학생과 다국적 대학생 간 협업을 통해 아이템 발굴
  - 제품 제작 등의 아이디어 실현 경험 기회 제공
  - 6개의 글로벌 창업팀을 구성, 총 4주의 커리큘럼 운영(주차별 목표에 따라 세부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 월요일~목요일 : 강의, 창업유관기관 방문, 전문멘토링, 팀프로젝트 등, 금요일 : 한 주 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프리젠테이션 데이

## 라) 창업특강

### 개요

- (목적) 창업관련 전문지식과 창업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연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진로선택 기회 제공
- (강사) 창업전문가, 청년창업CEO, 동문창업CEO 등
- (운영방법) 학생 또는 교원(교직원 및 교수) 수준에 적합한 특강 및 세미나 형태로 약 2~3시간 진행
- (특강주제) 창업트렌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성공사례 등

###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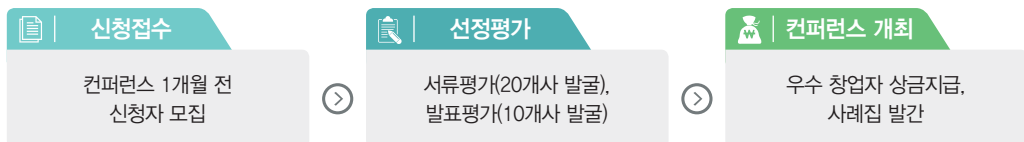
- (충북대학교) 교원(교직원 및 교수) 교육 항목 내 '창업' 기초 강의를 추가하여 대학 내 창업인식 제고 및 창업 지원 역량 함양교육 실시
  - 교직원 대상 창업교육을 직장교육 및 상시교육으로 연계하여, 학생 창업지도 역량 강화 지원

교원 창업교육 커리큘럼(안)

구분	내 용
교직원 창업교육	창업자의 자세 및 관계스킬
	평생 한번은 창업하는 시대
	인문학과 창업
	미래 트렌드 이해하기
창업교수법 확산	한국 경제 상황, 창업의 필요성
	충북대 창업지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창업하게 하는 교수법
	글로벌시대의 디지털 활용 경영전략 수립

- (단국대학교) 교원DKU 페일컨퍼런스를 연 1회 개최하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패를 통한 성공사례를 공유

[ DKU 페일컨퍼런스 운영절차 ]





## 마) 기타

### 인턴십(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 (개요) 대학생의 창업관련 관심과 지식함양을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창업관련 열정과 지식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초기 벤처기업 등에서 직접 창업실무 경험
  - 대학과 학부는 창업 프로젝트, 기술이전사무소, 벤처캐피탈 회사 및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기술혁신에 중점을 둔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
- (추진방안) 방학 및 학기 중 국내외 주요 창업우수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
  - (국내인턴십) 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및 동문벤처기업, 지자체 혁신주체(지역혁신센터, TP)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연계
  - (해외인턴십)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팀(개인)을 선정 및 피드백 실시 필요
- (참가자격)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학생, 각종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을 보유한 학생 등



#### 사례

#### 해외 주요대학의 인턴십(체험학습) 프로그램

- ◎ 일리노이 대학의 특허 클리닉은 법대 학생에게 학생발명가를 위한 특허 신청서를 작성하는 기회를 제공
  - 잠재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발명품을 가진 학생 혁신가는 공대의 기술기업가센터(TEC)에서 특허 클리닉에 회부
  - 그 후 특허 클리닉은 혁신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며 각 법대 학생을 위한 하나의 혁신을 선택. 각 법대 학생은 강사와 상의한 그들의 혁신에 대해 발명가와 협력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
- ◎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Entrepreneurial Deli”는 학생들이 경험 많은 젊은 사업가들과 만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푸드 코트’로 비유
  - “Grab ‘n Go Entrepreneurship” 태그라인과 스피드데이트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워크숍은 학생들이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의 벤처기업이 대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학습하도록 권장
- ◎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여름학기에 25번의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일주일에 4일을 신생회사에서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의 체험학습 워크숍에 참석
- ◎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UCSD)의 Rady School of Business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Lab to Market”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도록 요구
  - Lab to Market 수업에서 MBA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교수 및 비즈니스 멘토의 조언을 받아 사업화 과정을 학습



### 다양한 창업방법론 적용을 위한 리빙랩 운영

- **(개요)**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를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수행되는 사용자 기반 혁신플랫폼
- **(참여주체)** 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 **(운영방식)** 기획, 공동창조, 실행 등의 혁신활동이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룹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

#### 리빙랩 방법론의 단계 구분

방법론	단계/프로세스	
Katzy	① 아이디어 단계 (ideation phase) ③ 벤처사업화 단계 (Venturing phase)	② 공동 창조 단계 (co-creation phase)
SEE	① FIND ③ Design Lab : PoC, PoS, PoB	② InnovationNet
Helsinki LL	① 기반형성 단계 (grouping phase) ③ 적용 및 실행 단계 (appropriation and implementation stage)	② 상호적 · 반복적 공동설계 단계 (co-design phase)
Catalan LL	① 집단선택 (group selection) ③ 맥락 개발 (context development)	② 혁신장 (innovation arena)
iLab.o	① 맥락화 (contextualisation) ③ 실행 (implementation)	② 구체화 (concretization) ④ 피드백 (feedback)
RIM	① 공동체 기획 ③ 공동체 관리 과정	② 의사소통 전략 설정 ④ 이해관계자 동기 유지
FormIT	① 기획 (planning) ③ 프로토타입 설계 주기 (prototype design cycle) ④ 혁신 설계 주기 (innovation design cycle) ⑤ 사업화 (commercialization)	
C@R	① 지역사용자 공동체 구축 ③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② 사용자 참여 ④ 네트워크 및 시너지 창출 ⑤ 실행 연구

※ 자료출처 : STEP(2017), 리빙랩 방법론 :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Vol.208

#### 리빙랩 방법론별 포함 내용

내용	방법론							
	FormIT	SEE	iLab.O	Helsinki	Catalan	C@R	RIM	Katzy
사전기획	○	○				○	○	
사용자 선발			○	○	○			
참여자 동기 유지							○	
리빙랩 공동체 형성		○		○		○	○	
리빙랩 공동체 관리						△	○	△
제품/서비스 실용화	○				△			○

※ ○ : 포함, △ : 부분적 포함

※ 자료출처 : STEP(2017), 리빙랩 방법론 :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Vol.208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고려사항)** 사업아이템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별도의 리빙랩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실시

**국가별 리빙랩 현황**

국가	리빙랩	주요 내용
미국	Palce Lab	- 실제 삶의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여 연구수행 목적 - 캠브리지와 메사추세츠 주거 코도로 다학제적 연구시설이며 사람과 신기술, 주거 환경과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활동 수행
네덜란드	Living Tomorrow	- 대중에게 혁신을 통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 새로운 SW와 어플리케이션들이 미래와 집, 사무실에서의 역할,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
스웨덴	E2Home	- Electrolux와 Ericsson의 합작회사로 미래 지능형 홈 솔루션 제공 - 지역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실제 대규모 아파트에 솔루션을 설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피드백 제공
독일	Mobile City Bremen	- 모바일 APP시장을 시험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신제품, 서비스 등 수용성과 기능을 실제 환경에서 검사
대만	Suan-Lien Living Lan	- 아시아 최초로 리빙랩을 새로운 ICT혁신모델 및 실험 플랫폼으로 도입 연구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에 ICT도입을 통한 혁신 활동 실험

※ 자료출처 : 정다희(2017), 리빙랩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슈리포트 2017-제26호



**사례**

**리빙랩 : 생활 및 학습공간(Living and Learning Spaces)의 사례**

- 플로리다 대학의 Inspiration Hall은 혁신스퀘어 내에 위치한 새롭고 최첨단의 경험학습 커뮤니티이며 플로리다 대학과 플로리다 혁신허브에서 불과 두 블록 거리
  - 혁신스퀘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함으로써 학부생은 동료 학생, 연구원, 교수, 비즈니스 전문가 및 기업가와 같은 다른 유사한 사람들과 학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 용이
- 퍼듀 대학은 Harrison Hall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및 혁신 학습 커뮤니티(ELC)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정신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

## 2 교원

### 가 창업교육거점센터

#### 개요

- ‘창업 교육 및 연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산-학-관 협업을 통한 창업인재 양성을 목표
-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주요 기능은 ▲초기 창업 교육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보급 ▲창업 교육자 스쿨 운영을 통한 창업 교육 확산 ▲대학 간 또는 대학과 초·중등 간 창업 교육 연계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 ▲창업동아리 학생들 및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 궁극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목표임

#### 중부권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사례 (2019년 1월)

국가	시간	내용
1일차	09:00 ~ 10:00	참가접수
	10:00 ~ 12:00	오리엔테이션 - 뇌를 깨우는 아이스브레이킹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5:00	기업가정신 역량게임 1
	15:00 ~ 17:00	기업가정신 역량게임 2
	17:00 ~ 18:00	일과 정리 및 복습
2일차	08:30 ~ 09:00	접수 및 수업준비
	09:00 ~ 12:00	기업가정신 교과융합: 미술 프로토타입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6:00	기업가정신 교과융합: 과학(VR/AR/360캠)
	16:00 ~ 18:00	콘텐츠 활용 및 개발법
3일차	08:30 ~ 09:00	접수 및 수업준비
	09:00 ~ 12:00	기업가정신 교과융합: 음악(마이크로 컨트롤러)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6:00	융합창작 실습
	16:00 ~ 18:00	콘텐츠 활용 사례 최종 발표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남부권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사례 (2019년 9월)**

시간	9월 27일(금) 1일차	비고
13:00 ~ 13:30	등록 및 아이스 브레이킹	
13:30 ~ 14:00	개회사 및 인사말	
14:00 ~ 14:30	실전 창업 교육 설계와 방향 - 고희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30 ~ 15:00	창업교육 K-MOOC 개발 사례 - 최용석 교수(중앙대학교)	
15:10 ~ 15:40	고객발굴 교육과정 개론과 사례 - 김철한 교수(대전대학교)	
15:40 ~ 17:20	고객 발굴 교육 방법론 실습 - 박정배 대표(올빛에이치)	
17:30 ~ 18:00	실전창업교육 교과과정 설계 및 성공사례 - 김승현 교수(경남대학교)	교수 트랙
17:30 ~ 18:00	창업 매뉴얼 3.0기반 창업교육 서비스 전략 - 이상한 교수(순천향대학교)	실무자트랙
18:00 ~ 18:30	소셜벤처 활성화 동향과 과제 - 이윤석 팀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교수 트랙
18:00 ~ 18:30	실전 창업 학생 지도를 위한 실전 팁 노하우 - 이정희 대표(퀵스타트인베스트먼트)	실무자트랙
네트워킹 및 휴식시간		
시간	9월 28일(토) 2일차	비고
10:00 ~ 10:30	지역 사회 연계형 메이커 창업 교육사례 - 김병국 교수(계명대학교)	
10:30 ~ 11:00	성공적인 창업동아리 코칭 사례 - 최유길 교수(충북대학교)	
11:00 ~ 11:30	창업기업 발굴부터 보육까지 - 정현준 국장(창업보육협회)	
11:30 ~ 11:40	폐회사 및 안내	
11:40 ~ 13:00	점심식사	

## 나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Train the Trainer)

### 개요

- 「공공기술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해외교육 부문인 Lean Innovation 교육의 국내화를 위한 국내 실험실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
- 미국 NSF Node가 운영하는 I-Corps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며, 자격을 갖춘 현지 아이코어 인스트럭터의 강의 및 워크숍으로 구성
  - 의료, 행정서비스 분야 중심의 산업 및 창업 인프라가 집중된 미국 동부 Node로 교육 추진
  - 동계 미니 NSF I-corps 프로그램과 연계

### 〈 NSF I-Corps Node 개요〉

- ◎ NSF의 과제공고를 통해 모집하여 7개의 지역별 Node 선정 (북부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텍, 워싱턴 DC 지역, 텍사스 지역, 미시간 등 중서부)
- ◎ 교육, 인프라, 연구의 허브로서 I-Corps Team에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 DC Regional Node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Maryland, Virginia Tech, Johns Hopkins University
  - Bay Area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tanford
  - NYC Regional Innovation Node :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Columbia
  - IN-LA Node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ltech
  - Southwest Alliance for Entrepreneurial Innov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Rice University, Texas A&M, Texas Tech
  - South Node : Georgia Tech,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Upstate NY Alliance for Entrepreneurial Innovation Cornell,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Rochester
  - Midwest I-Corps Node :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Purdue University

- 인스트럭터로서의 교육과 창업팀으로서의 교육을 통한 창업인스트럭터 양성과정(TTT) 프로그램 학습효과 극대화



## PART 4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활용하기

### 교육내용

#### ● 인스트럭터로서의 교육

- 미국 현지에서 3주간의 창업 인스트럭터 양성과정을 연수 후,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강의 교안 완성
- Faculty Development Workshop: 발표 및 토론 위주 수업 방식(flipped classroom)을 통한 Lean Startup 교육법 실습
  - 커리큘럼 개발 : 3일/2주/7주 등 다양한 기간의 교과과정 개발 실습
  - 강의노트 개발 : 강사 개인의 창업교육/창업 경험 및 노하우를 녹여 낸 교안 작성
- GW I-Corps Workshop Sessions: GW I-Corps팀의 Lean Startup 교육법 참관을 통한 학습
- Relentlessly direct approach: 끊임없이 팀들을 자극하는 접근법
  -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팀 선별법(실패 가능성이 높은 팀의 징후)
  - 참가팀 발표 시 코멘트 및 피드백 실습
- 인스트럭터와 멘토의 역할: 답을 가르쳐주는 컨설팅이 아닌 팀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가이드
- 프로그램 진행 : 발표시간 엄수 및 효율적인 교육운명을 위한 조교의 역할 등
- Launch Pad Central 소프트웨어 사용법

#### ● 창업팀으로서의 교육

- BMC 개발 및 Customer Discovery를 위한 Cold-call 실습
- Customer Discovery를 통한 아이템 검증 방법
- 창업팀으로서 GW인스트럭터의 가이드 방법 습득

### 기타

- (참가자격) 전년도 혁신단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역량 있는 인스트럭터를 선발
  - 창업 경험자, 창업교육전문가, 기업가정신(창업)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자로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 인스트럭터에 적합한 선발 기준 마련
  - 특히, 창업 및 창업교육 경험 등 현장경험 전문가 중점 선발
- (운영기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운영하며, 연간 1회 10명 내외의 창업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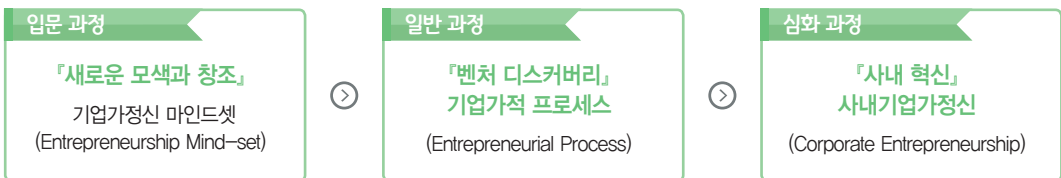
## 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추진목적

-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따른 교육기반 마련 및 교육자 대상 인식 전환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콘텐츠 중심 교수법 및 구체적 활용방안을 전달하는 체험형 ·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

### 세부 추진내용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인식
  - 3단계로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수법 및 구체적 활용방안을 학습하는 체험형 · 참여형 교사 연수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성 인식
- 참여형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수방법론 습득
  - 모둠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가정신 교재, 교구 등의 교육 콘텐츠 직접 체험을 통한 활용방법 습득
  -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구성방안, 온라인 콘텐츠 활용방법 등 공유



### 주요 추진실적

- 운영현황
  - '15년부터 '18년까지(4년간) 총 35회 개최
  - 현직 교사 및 교수 2,232명 수료
- 교육신청 전용 웹사이트 : [www.koefedu.com](http://www.koefedu.com)
- 사업문의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
  - 02-2156-2292, [angel@koef.or.kr](mailto:angel@koef.or.kr)







PART V

---

창업도전 지원하기





# V

## 창업도전 지원하기

### 1 대학(원)생 및 청년 창업지원사업

- 2019년도 창업지원사업 조사결과, 14개 부처 총 1조 1,180억 원 규모(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부처별로는 중기부(9,975억 원, 89.2%), 행안부(362억 원, 3.2%), 고용부(280억 원, 2.5%), 과기정통부(152억 원, 1.4%) 순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

구분	중기부	행안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등	합계
예산 (억 원/비중)	9,975.6 (89.2%)	362.2 (3.2%)	280.6 (2.5%)	152.4 (1.4%)	116.6 (1.0%)	293.4 (2.7)	11,180.8

-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5,130억 원, 45.9%), 연구개발(3,797억 원, 33.9%), 시설·공간(1,493억 원, 13.4%) 순

지원유형별 예산규모

구분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합계
예산 (억 원/비중)	5,130.7 (45.9)	3,797.0 (33.9)	1,493.8 (13.4)	471.0 (4.2)	221.8 (2.0)	66.5 (0.6)	11,180.8

- 주요 창업지원사업은 4개 사업 구분에 따라 15개가 있으며, 지원 대상별 및 창업 단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주요 창업지원 사업 구분

구분	사업	대상별				단계별		
		대학생	대학원	졸업생	교원	대학	창업이전	창업이후
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	●	●			●	
	초기창업패키지	●	●	●	●	●	●	●
	창업도약패키지	●	●	●	●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	●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	●				●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		●		●	
	대학기술경영 촉진	●	●		●	●	●	
	청년 TLO			●			●	
	대학창업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	●		●	●	●	
창업교육	대학기업가센터	●	●			●		
	희망사다리장학금	●				●	●	
행사 네트워크	학생 창업유망팀 300	●					●	●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				●	●	
정책자금 지역연계	대학창업펀드 운용	●	●	●	●	●		●
	지역 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	●				●	●

## 가 사업화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019년 1차 선정 규모

분야	주관 기관	신청자격	모집인원	모집업종	지원한도
일반	서울본부 경기본부(강원포함) 인천본부 충청본부 호남본부 대구본부 부산본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500명 (접수현황에 따라 본부별 선정규모 결정)	수 기술분야	최대 1억원
	한국여성벤처협회	만 39세 이하 여성 예비 창업자	100명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만 39세 이하인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지원예산 및 규모 : 1,027억 원, 8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 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 시제품 제작, 지적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없음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 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등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사업화자금(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전담멘토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			

### ❖ 초기창업패키지

- **(사업목적)**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기관, 대학 등을 통해 지역창업 활성화 및 예비·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성장 지원
  - ※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이 2019년도 초기창업패키지로 통합
  - **(지원 기관)**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기관 지원 내용)** 평균 20억 원 내외(창업자 사업화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구성(안)

구분	내용	예산
창업자 사업화 지원	예비·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평균 13억 원 내외
창업 프로그램 운영	공동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평균 3.5억 원 내외
전담조직 운영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평균 3.5억 원 내외

- **지원대상**
  - **(사업화 자금)** 제조 및 지식 서비스 분야 창업 3년 미만 기업
  - **(성장지원 프로그램)** 각 주관기관 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에 따라 상이
- **지원예산 및 규모** : 1,027억원, 8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 유치, 판로개척, 기술 확보 및 보호 등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 별 운영)
- **(주관기관 역할)**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장가능성 제고와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숲단계를 지원
  - 예비·초기창업자 선발 및 자금지원 : 창업자 선발을 위한 사업홍보,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 자율·특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운영 : 주관기관이 기관의 역량, 지역 창업환경, 외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고도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상담창구 설치



### 자율·특화 프로그램

특화유형	주요 내용
지역거점	지역정주창업기업 선정, 지역별 IR 등 네트워킹 행사
대학·연구소	교원·대학(원)생·연구원 창업기업 선정,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청년	청년창업자 선정, 창업기업의 청년 고용
중장년	세대융합 창업팀 선정, 창업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산업	특성화 산업분야 사업자 선별, 관련 분야 대기업 등 기관 연계, 소비자 반응조사
글로벌	초기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타당성 조사, 박람회 및 대회 참가 지원

### ■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목적 및 주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등을 도와 창업기업의 빠른 수익창출을 도모
- (지원 대상)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 내용)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 연계, 성과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주요 지원 분야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강화)

업종 (지원분야)	신산업	•ICT융합 •고급소비재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의료관광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로봇</li> <li>•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li> <li>• 스마트자동차</li> <li>• 수직이착륙무인기</li> <li>• 신재생 하이브리드</li> <li>• 직류송배전시스템</li> <li>• 융복합소재</li> <li>• 빅데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용형 스마트기기</li> <li>• 가상훈련시스템</li> <li>• 심해저 해양플랜트</li> <li>• 맞춤형웰니스케어</li> <li>• 재난안전시스템</li> <li>• 초소형발전시스템</li> <li>• 지능형반도체</li> <li>• 첨단소재가공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감형콘텐츠</li> <li>• 5G이동통신</li> <li>• 사물인터넷</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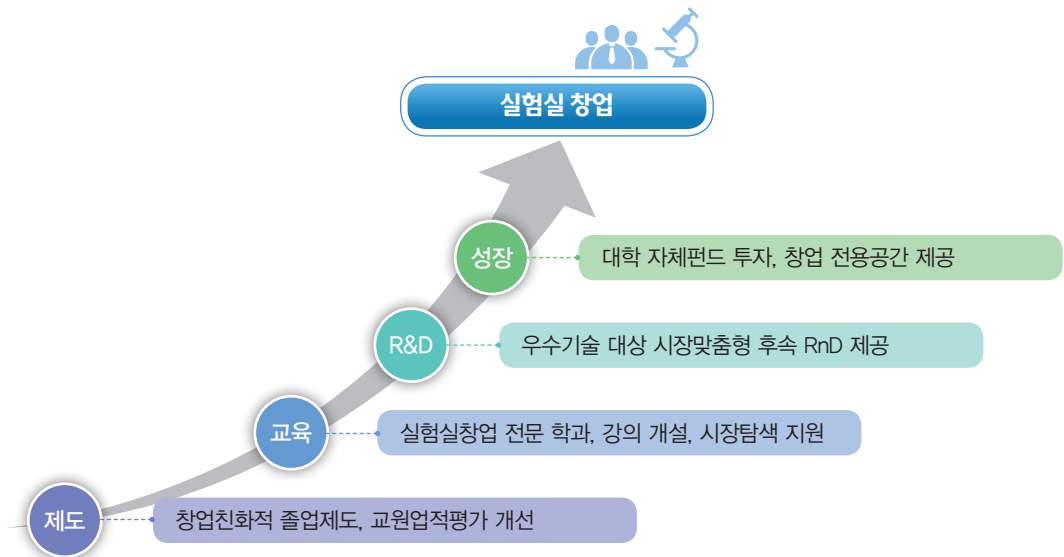
● 성과평가 지표

- (주관기관 성과평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은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주관기관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하위 10%이내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화
- (주관기관 성과평가 지표) 정량지표(매출, 고용, 자금, 지식재산권)와 정성지표(사업연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 지표 60%, 정성 지표 40% 비중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항목 및 배점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 육성

- (개요) 대학(원) 실험실(Lab)이 보유한 기술이 高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수준의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및 기술기반창업 인재 양성
- (지원대상)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수행 대학중 대학원 연구성과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인재 육성을 희망하는 대학
  - '19년의 경우 기 선정 5개 대학 계속 지원
  -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
    - ※ 선정된 5개 대학에는 대학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과 함께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바이오·나노 등 대학의 유망 기술 발굴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 등을 연간 약 5억 원 내외로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학생) 창업장학금, 학생창업수당 등
  - (연구실) 연구실(Lab) 운영비, 창업전담교원 인건비 등
  - (교육과정) 기술기반 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본 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창업 활동을 하나로 뭉쳐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주요 지원 내용 ]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18), 대학,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



##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창업에 적합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실험실이 시장 수요에 맞도록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모델(Business Model, BM)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R&D) 자금을 제공
- 실제로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 개선 및 실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에 실험실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창업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
- 또한, 학교 내의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 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실험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며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마련
- 창업기업의 설립·성장이 용이하도록,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공간도 조성

###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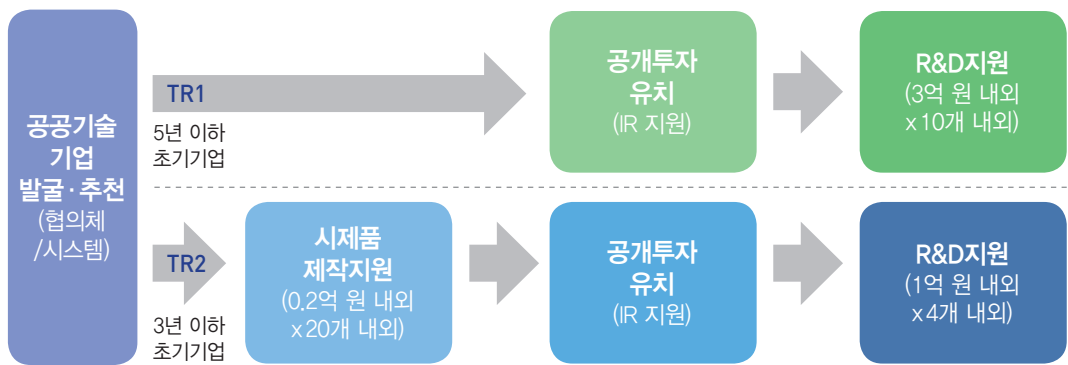
- 대학·출연(연)이 보유·연구 중인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참여 연구원들의 시장연계 창업탐색 등을 지원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을 통해 '18년 60개 내의 실험실 창업탐색팀을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
  - 실험실창업혁신단은 발굴한 창업팀의 수에 비례하여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며,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창업교육 단계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40~70백만 원 내외의 창업지원비(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등)를 차등 지원
-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시장조사 및 창업아이템 개발, 美NSF I-Corps 교육, 잠재고객 인터뷰 등의 국내·외 창업교육 이후 일대일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후 수수료식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IR 발표 기회를 제공받음
  - ※ '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I-Corps 사업은 101개 창업팀을 발굴, 31개의 실험실 창업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총 고용 105명(기업당 평균 3.4명), 매출액은 평균 6천만 원(12개사)으로 조사(과기정통부 보도자료)



◆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 창업 이후 투자가 유치되어 시장에서 가능성이 검증된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은 투자연계형 공공 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 R&D 자금을 지원
- 지원 대상은 논문·특허 등 실험실 기술을 활용한 업력 5년(Track1) 및 3년 이하(Track2)의 실험실 창업기업이며, 사업화 R&D 14개(Track1 10개, Track2 4개) 내외 및 시제품 제작 20개(Track2) 내외 기업을 지원
  - ※ Track1 사업화 R&D는 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평가하여 기업당 2.6억 원 내외를 지원하며, Track2 시제품 제작의 경우 기업당 0.2억 원 내외를 지원 후 투자가 유치된 기업에 사업화 R&D의 경우 기업당 1억 원 내외를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구체화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과, 투자가 유치된 기업은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실험실 기술 실증을 위한 사업화 R&D 자금을 지원
  - ※ 기존 사업인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15~'17)'을 통해 사업화 R&D 지원을 받은 122개사의 총 매출증가액 41.5억 원, 총 신규고용 202명, 총 후속투자는 240억 원으로,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

[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추진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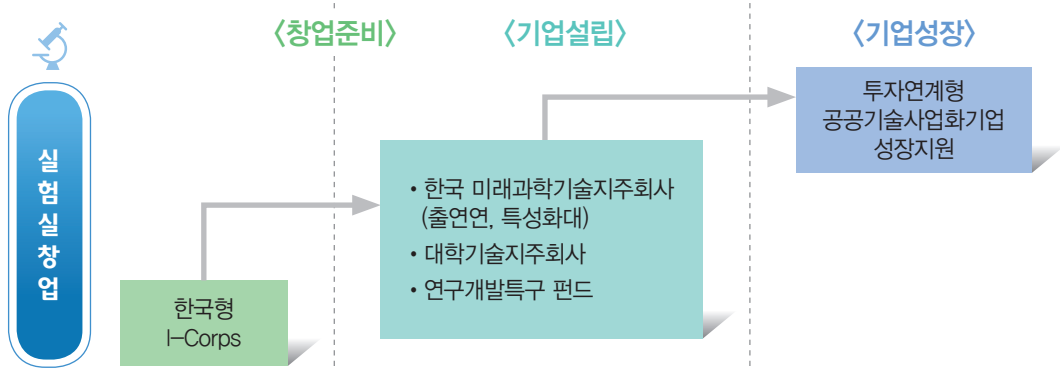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18), 청년 일자리, 실험실 창업으로 만든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과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연계를 통한 고도화된 운영계획을 수립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18), 청년 일자리, 실험실 창업으로 만든다

대학기술경영 촉진

- 통합적 대학기술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및 기능을 연계·통합하는 대학기술경영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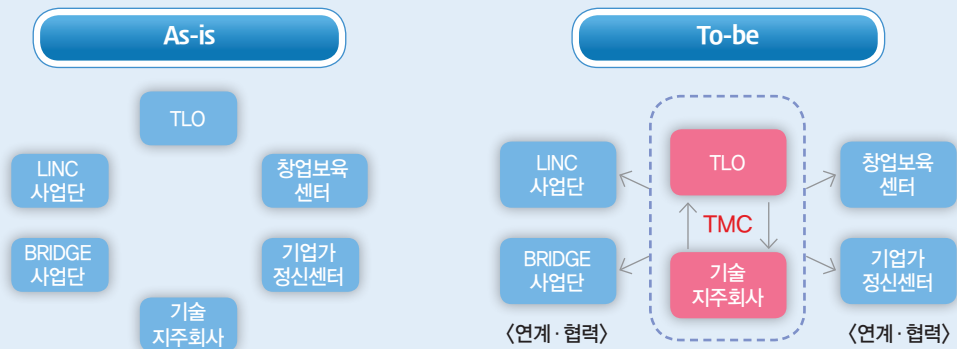
※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와 사업화 중심의 기술지주회사를 연계해 ① IP 창출·관리, ② 기술이전·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하며, 2016년 기준 자회사 154개 신설, 743명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창출 중

- 기술경영센터는 단독형과 연합형으로 구분되며,
  - 단독형 TMC에는 부산대·성균관대·전남대·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 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을 지원
  - 연합형 TMC에는 강원연합(기술지주)·경희대(산학협력단)·부산연합(기술지주)·서강대(산학협력단)·전북연합(기술지주)·충남대(산학협력단)·KAIST·광주연합기술지주·세종대산학협력단·인천대 기술지주·충북대 산학협력단 등 11개 컨소시엄(총 46개 대학)을 지원

### 〈 대학 TMC 개요 〉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등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 IP창출·관리, ② 기술이전·기술출자·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지주회사 연계 또는 조직통합(TLO+지주회사) 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 ◆ 청년 TLO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창업 및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담당할 청년과학 기술인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 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학이 일정기간(6개월) 청년 TLO'로 채용\* 후 취·창업 연계

\* 대학은 청년 TLO를 산학협력단 등 대학 소속의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 '청년 TLO' 1인당 4대 보험 포함 월평균 185.3만 원(학사 : 최저임금 월 173만 원, 석사 : 학생인건비 기준 198만 원 적용) 지원(총 6개월)

- 청년 TLO는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또는 노하우)이전을 위한 기술이전 마케팅(기술소개자료 작성,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설명회 등)을 수행

- 통상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이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평가하고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마케팅 과정 등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이전
-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대학의 해당 학과 미취업 졸업생을 선발하여, 본인이 졸업한 대학 학과의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을 청년 TLO가 기업에 이전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대학 내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18), 2018년 추경사업 '청년 TLO 육성' 본격 착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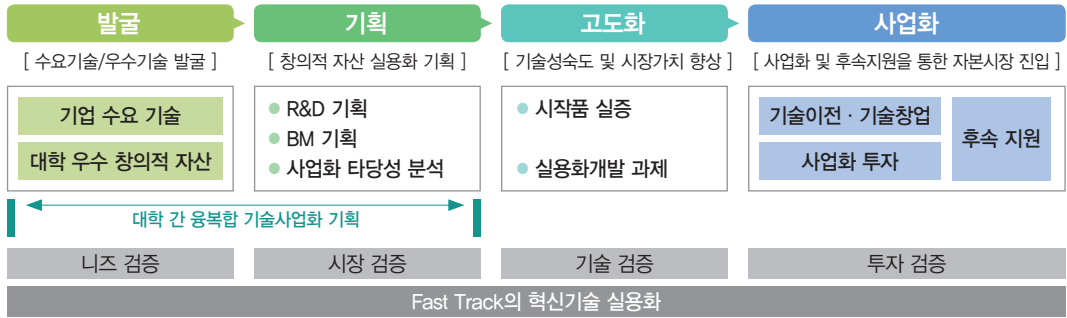
- 대학이 자발적으로 잠재력 있는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도록 지원·유도하여 대학을 혁신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15년부터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41개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
  - 대학 별 우수기술분야(전략분야)를 선정,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수행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실적 향상 견인
    - ※ BRIDGE 대학(41개교) 전체 기술료 수입 중 전략분야 수입 비중('16년) : 57.0%

**사례** BRIDGE사업 우수 사례

- ◎ 연세대 : 사업화 실패 사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시제품 제작·자회사 설립 전략 개선을 거쳐 항(抗)비만·대사성질환 자회사 창업(외부투자 10억 원) 성공
- ◎ 고려대 : 인간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유래한 간질환 치료제 개발용 간독성 임상실험 키트 개발(관련특허 5건), 기술이전 성공(기술료 4억 원 수입 성과, 중국 '국가약용식물연구소'에 5년 간 13억 원 규모 임상실험 키트 공급계약 체결)
- ◎ 건국대 : 학생 아이디어에 기반한 초유 활용 천연 마스크팩 개발 성공, 관련 기술 특허 출원 및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화(판매) 준비 중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8년부터 BRIDGE+ 사업을 통해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교당 연 평균 7억 내외를 지원하고자 함
  - (실용화 프로세스 고도화) 대학 보유 우수기술 또는 기업수요 중심으로 실용화 가능성 높은 창의적 자산을 발굴하여 기획,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실용화절차 주요 지원 내용 ]



※ 기술의 특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 자료출처 : 교육부(2018),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전담조직 · 인력 운영 혁신) 대학 내 실용화 전담조직 전문성 · 자율성 강화, 실적중심 전담인력 인사제도 운영, 실용화 경험 축적 · 관리 등
- (대학 수익 창출) 대학 여건에 따른 기술이전 · 사업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 · 시행하여 대학 수익 창출 등 가시적인 기술이전 실적 향상에 기여

**나 창업교육**

▣ 대학 기업가센터

- (개요) 대학생 · 예비창업자 대상 실전형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공 창업자 발굴 · 육성
  - 대학 내 여러 조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기업가정신과 창업관련 교육 및 보육, 연구, 컨설팅, 네트워킹 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조직
- (추진현황) '14년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 대학은 최대 6년(3+3) 동안 연간 6~7억 원 지원
  - '14년도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숙명여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15년도에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선정
  - 지원 내용은 인건비, 콘텐츠 개발비, 교육과정 개설비, 일반경비 등이며, 자립화 유도를 위해 학교 대응투자(현금, 현물, 기부금 등 포함) 확대
- (지원대상) 대학 기업가센터 지정대학의 대학생, 교수 및 교원
- (지원내용) 창업전담조직 기능강화, 창업강좌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 네트워크



##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창업전담조직 기능 강화) 창업관련 교육계획 수립·운영 등 총괄기능 강화 지원
- (창업강좌 및 교육) Cash Class 등 최신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전공강좌 운영지원
-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 콘텐츠(교재, 모듈 등) 개발·보급
- (네트워크) 동문기업, 성공창업가, VC 등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선정대학) '14년도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숙명여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15년도에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선정
- (소관부처/주관(수행)기관/'19년도 예산) 중기부 / 대학 / 18억 원

### 대학창업 교육체계 구축

- (개요)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확산하고, 양질의 창업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창업교육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인재 양성 및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 도모
- (추진현황) '15년도 교육과정을 통해 3,451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444개의 앱개발 및 창업 지원분야에서 총 330개를 선발하여 지원
- (지원대상) 대학, 전문대학 / 대학(원)생, 교수 및 대학 내 창업지원인력 등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교육 후발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 (5개교 내외)
    -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등
  -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대학생 창업유망팀 300개를 선발하여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출전기회 부여 및 산학협력 EXPO 내 시제품 전시 기회 제공 등 단계적·체계적 지원
  - (창업전담인력 연수) 대학 내 창업전담 교원 및 직원들의 창업지도·지원 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연수(Startup Trainers' School) 실시 ('19.1월 시범운영)
- (지원예산) 12.2억 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 (개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확대 및 우수 인재의 창업도전 동기부여를 위한 등록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추진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기여

- **(추진현황)**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3년도부터 사업 추진
  - '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3월) 및 계획 수립·시행(5월)
  - '15년도 창업유형 신설 및 의무종사 기업 범위 확대
    - ※ (기존) 중소기업 → (개선)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 '16년도 학점형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sup>1)</sup>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sup>2)</sup> 도입
  - '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성과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지원인원	1,643	1,519	3,127	2,970	9,259
지원건수	2,082	2,175	4,363	4,460	13,080
지원금액	9,318	9,540	18,957	20,355	58,170
평균금액	5.67	6.28	6.06	6.85	6.28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2016),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 **(지원대상)** 대학생
- **(지원내용)** 학기 학자금 전액 및 창업 준비 장려금
- **(소관부처/ 주관(수행)기관/18년도 예산)**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286억 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 **(개요)** 이공계 대학원생 등 연구자 중심의 실험실 창업팀 대상 국내·외 시장탐색 중심 실전형 창업교육(I-Corps) 및 권역별 거점대학 통한 창업보육·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Post-Doc 등으로 구성된 (예비) 실험실 창업팀
- **(지원내용)**
  - 美 과학재단 창업교육 프로그램(I-Corps) 활용한 국내·외 시장탐색 중심 실전형 창업교육
  - 권역별 거점대학 통한 창업컨설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등 맞춤형 창업 보육
  - 투자자·VC 등 대상 사업설명회(IR) 및 데모데이 기회 제공
- **(선정대학)** '14년도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숙명여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15년도에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선정
- **(지원예산 및 규모)** 6,580백만 원, 70개팀

1) 현장실습 미실시 학과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2)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16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



## 다 행사·네트워크

### ▣ 학생 창업유망팀 300

- (개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내 유망한 학생 창업팀(300개)을 선발하여 성장단계별 집중 육성·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도전! K-스타트업” 예선 차원에서 수행하는 학생리그
- (추진절차) 전국예선을 통해 학생 창업유망팀 300개 팀을 선발하고,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할 40개팀을 선발하여 자격 부여

[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추진절차(2018년 기준) ]



- (참가자격)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
- (포상) 창업유망팀 300 선발팀은 각 50만 원의 상금 및 특전이 제공되며, 300 중 우수 50팀에게는 추가상금 100만 원 지급 및 특전 제공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특전(2018년 기준)

프로그램명	개요		창업유망팀 300 지원규모	최종선정규모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li> </ul> 청년창업기업 생존률 증진을 위한 팀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바우처 제공		134팀	39팀
주거사무 통합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최/주관 : 손해보험협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li> </ul>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주거 및 사무공간 통합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69팀	5팀
Get In The Ring 한국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최/후원 : GEW / 중소벤처기업부</li> </ul>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투자유치 훈련 제공 세계결선 진출 시 해외투자유치 기회 제공 GEW Korea 행사 연계 참가팀 홍보기회 제공		9팀	1팀
IP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최/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li> </ul>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특허출원 지원 특허 출원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특허 등록비용 지원		300팀	16팀
UI/UX 무료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원 : 충청권 최종선발 호모루덴스 팀</li> </ul> ICT 등 웹/앱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팀에 대한 무료 사용성 테스트 제공		300팀	



### ▶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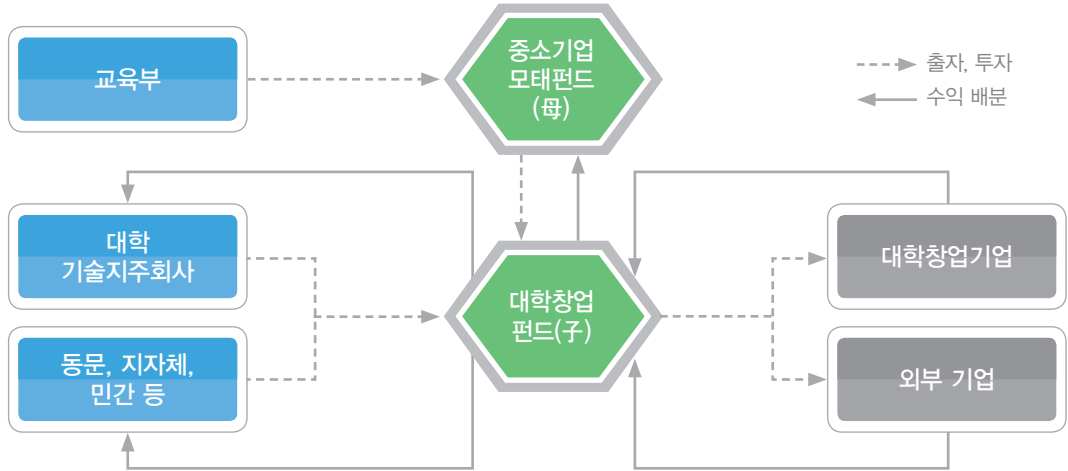
- (개요) 대학보유 지식재산권 중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과정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유도
  - 대학보유 지식재산권 중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학생이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는 경우 대학(적립금 등)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화 지원
- (추진현황) 산학협력 중개센터(온라인 1센터, 오프라인 5개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대학 지식재산권의 창조적 활용과 산학협력 강화하고,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거래 지원
  - 캡스톤 옥션 구축·운영 및 기술이전·사업화 계약체결 지원 등
  - '15년 말 기준, 33개 대학에서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건수는 479건, 지원금액은 179억 원, 이를 통한 창업건수는 21건을 실현

## 라 정책자금 및 지역연계

### ▶ 대학창업펀드 운용

- (개요) 대학창업펀드는 대학과 정부 매칭으로 대학의 창업기업에 집중하는 투자 펀드로서, 우수한 대학창업기업이 있어도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7년에 처음으로 기획·추진
  -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매칭 출자(정부 3 : 대학 등 1)하고, 사업 운영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 (벤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에서 담당
  -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대학 창업기업에 총 투자액의 75% 이상(학생 창업 기업은 50% 이상)을 투자

[대학창업펀드 운영 구조]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18), 대학, 실험실 창업 전진기지로 나선다

- (추진현황) 대학과 동문 등 민간에서 25%, 정부가 75%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171억 원의 펀드를 조성

※ 당초 계획은 160억원이었지만, 일부 조합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펀드 조성규모 확대

- 조성된 펀드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투자자인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관리

대학창업펀드 선정 조합 현황

업무집행 조합원(GP)	조합 명칭	운영책임자 (대표펀드매니저)	모태 출자액	대학 등 부담액	결성 예정액	매칭 비율
고려대 기술지주	고려대학교 대학창업 제1호 투자조합	송승용	22.5	7.5	30	75
부산연합 기술지주	부산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이태수	22	8	30	73.3
서울대 기술지주	서울대 대학창업펀드	목승환	30	20	50	60
연세대 기술지주	연세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 투자조합	김훈배	22.5	7.5	30	75
전남대 기술지주	NUC-4 대학창업투자조합	이찬희	23	8	31	74.2
합 계			120	51	171	70.2

※ 자료출처 : 교육부(2017), 대학창업펀드 선정결과 발표

- 2018년에 추가 모집을 통하여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에서 운용하는 6개 조합이 사업에 선정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운용방안)** 선정된 조합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진행
  -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대학원 랩(La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 유망인재를 발굴하고 실전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

**대학창업펀드 투자대상**

유형 구분 (투자 비율)		투자 대상 요건
대학창업기업 (75)	대학구성원 기업	학생(대학원생, 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을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학기술기반사업화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외부 기업 (25)		그 외 외부 기업

※ 자료출처 : 교육부(2017), 대학창업펀드 선정결과 발표

**지역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 **(개요)** 대학은 공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교통, 소음, 환경, 복지, 방법 등)를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스타트업 육성·지원
- **(운영주체)** 산학협력단(또는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관련 전담조직)
- **(주요내용)** 사회문제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기획 및 운영,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그룹(교원 및 학생)에게 인프라 및 자금,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제공
- **(창업주체)** 교내 연구실을 보유한 교원 및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학생 등
  - ※ 크고 작은 캠퍼스에서 공통적으로 발전하는 주제는 교수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례**

**지역사회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학생 참여 사례**

- ◎ 툴레인 대학(Tulane University)의 사회적 혁신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는 학교 전체를 경제 및 사회 생태계와 통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AB Freeman 경영학과, 건축학과, 과학 및 공학부를 포함한 모든 학과와 제휴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뉴 올리언스 커뮤니티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학생주도 단체 및 사회적 벤처를 창출
  - 툴레인 대학은 툴레인 비즈니스 플랜 공모전, 도시혁신챌린지, PitchNOLA, NewDay 사회적 혁신 챌린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공모전도 개최하여 학생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년 1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퍼듀 대학의 기술지원프로젝트는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모아 비즈니스 및 기술문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는 컨설팅과 지역 그룹 지원을 제공
- ◎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의 서비스학습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의 학과 및 학부에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강화된 과정 제공
- ◎ 캔자스 대학의 RedTire 이니셔티브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고군분투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및 과세기준의 상실로 인한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 이 협업노력을 통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캔자스로부터 더 많은 펠로우 고용 가능
- ◎ Merrimack Valley Sandbox의 Campus Catalyst 프로그램은 메사추세츠 대학 로웰캠퍼스, Merrimack 대학, Middlesex 커뮤니티 대학, 그리고 Northern Essex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들에게 캠퍼스 외부 및 지역사회에서 기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00달러의 소규모 보조금을 제공



## 2 교원 창업지원

### 가 개요

- 대학은 연구개발을 통해 수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기반 창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교수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은 해당 기술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 연구개발비 등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소유권자인 학교의 승인도 필요
-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술의 소유구조에 대한 오해 및 잘못된 인식으로 기술의 사업화에 관계된 이해관계자간에 다툼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창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일방에 유리한 계약,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대학 보유기술 기반 창업에 이해 관계자(대학, 교수, 학생)간의 협력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불만이 소송, 투서 등의 형태로 표면화됨
- 그간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기업 설립 자체에만 집중되어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관계되는 협력주체인 대학-교수-대학원생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대학기술 기반 창업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툼을 대학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필요한 ▲ 정책 ▲ 법규정 ▲ 사례 등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고, 본 매뉴얼에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나 주요내용

#### 1) 발명 단계

##### 가) 교원의 직무발명

###### ■ 주요 이슈

- 대학교수의 발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발명
  -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
    - ※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대학교수의 직무중의 하나는 연구로, 연구를 할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나 실험기자재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기 전공을 연구한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감사원·특허청의 직무발명 판단시 고려사항, 2003)



대학교수의 직무중의 하나로 연구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고, 연구를 할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나 실험기자재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기 전공을 연구한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감사원·특허청의 직무발명 판단시 고려사항, 2003)

- 그러나 산학공동연구, 실험실창업 등 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해당 기술이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대학과 교원간 갈등이 발생

## 해결 방향

- ▶ 대학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과 교원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 대학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발명자인 교수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함

- 대학교수가 재직 중 발명한 경우는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되므로, 교수는 직무발명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대학의 관련 부서와 상의하도록 해야 할 것
  - 직무발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이나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는 중대한 사안임을 교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미신고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됨

- 대학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발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환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란 ① 정부 R&D 과제 협약 시 특허성과의 개인소유를 허용한 경우 ② 연구기관 유형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등록 ③ 연구기관의 특허성과 소유권 포기 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한 경우

-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의 연구개발 의뢰에 의하여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지급 받고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 완성된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는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을 의뢰한 외부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므로 대학(사용자)측의 관여가 배제되는 자유발명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은 계약 (교원임용계약), 학칙 등에 따라 통상실시권 등의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 그 기술분야의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 대학교수는 외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고문 즉 종업원의 지위에서 완성한 발명이므로 대학 교수가 기술고문으로 재직중인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내출원은 진행하였으나 해외출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반면, 발명자가 해외출원을 진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 물론,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산학협력단에 있으나, 발명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발명자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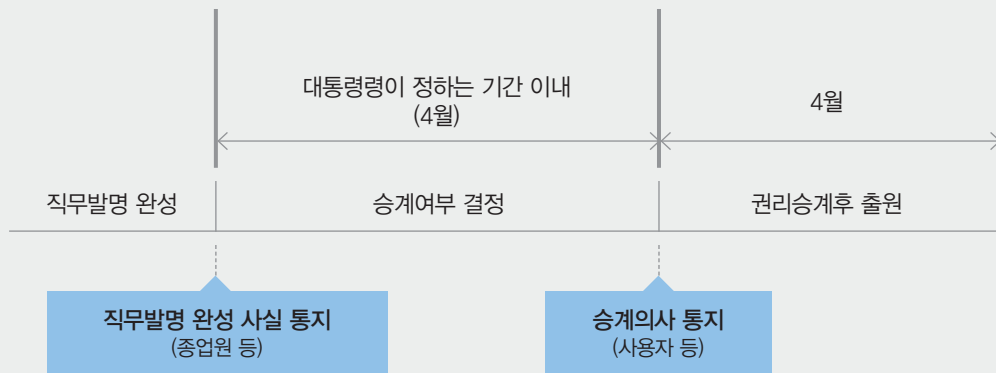


- 이 경우, 발명자의 해외출원 요청을 문서로 받고, 산학협력단은 해외출원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또한,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을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의 단서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을 참작할 때 해당 발명자에게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제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발명 심의 및 승계결정〉



## 나)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 주요 이슈

-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학생이 R&D 과제에 참여하여 창출한 발명과 학내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창출된 발명에 대한 취급방식이 대학마다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명자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소속 대학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발명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대학 중 약 47%가 교직원에 대한 구분 없이 발명자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 학생신분에 대한 발명자 혹은 종업원 인정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박지환 등, 2015)

- 여기서 핵심 이슈는 조교나 대학(원)생이 학생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가'임. 만약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면 직무발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해결 방향

- ▶ 대학(원)생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나, 산학협력계약에 참여하여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직무발명 보상대상에 대학(원)생이 포함될 수 있음을 학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료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 교수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에 내부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명자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상 강행규정 위반임

- R&D 과제에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공동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여 학생들에 대해 해당 발명의 기여 지분을 인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학생 발명에 대한 법적 지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해당 발명에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즉 대학생 등을 통상 직접 지도하는 교수, 발명을 위한 시설과 자원을 제공하는 대학교, 나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체의 이익을 해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출발점으로 필요함(박준석, 2010)
- 학생이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교수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 그 발명과 관련한 고용계약서의 유무, 보수의 수령 유무와 같은 1차적 판단기준에 이어 교수와 학생 간의 지위·감독 관계의 존재여부나 대학이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발명하였는지 등을 근거로 직무발명임을 판단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나동규, 2014).
- 학생 발명 취급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지침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학 지침에서 학생발명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함
  - 학생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프로젝트 범주 내에서는 종업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다만, 종업원성이 인정되면 타 법률에 따른 권리·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이 교수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에 내부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명자의 권리나 보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판례는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은 경제적인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음(박준석, 2010).
  - 따라서 사용자 등이 대학이나 교수가 학생과의 계약에 의해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임

## 2) 창업단계

### 가) 교원창업의 신고 및 자격요건

#### 주요 이슈

- 교원 창업을 위한 휴직 및 겸임·겸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학 교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및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의 경우 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해 5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5. 18., 2018. 3. 13.>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5.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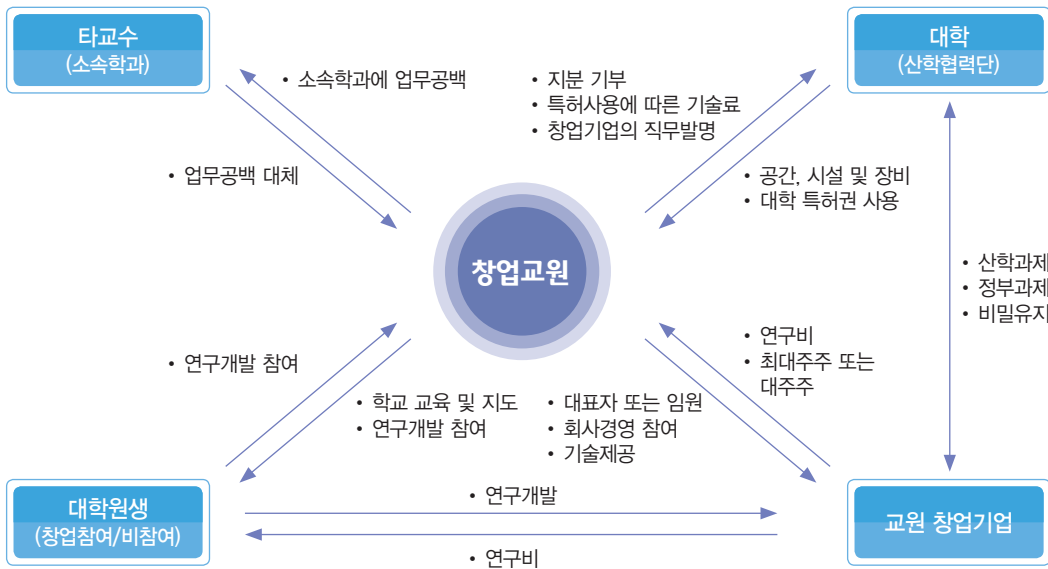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행법규는 교원창업을 위한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 외에는 교원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개념)가 없으며, 자격요건, 신고, 승인 등에 있어서도 기준이 다양하고 대학 내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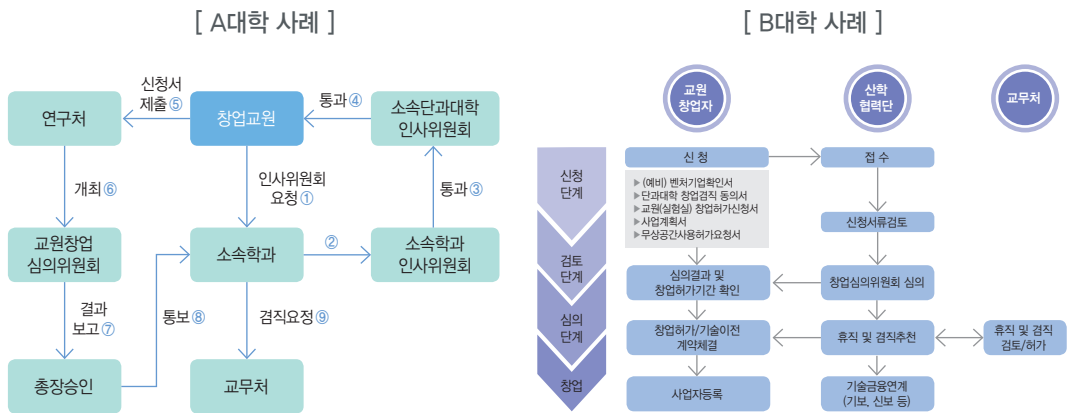
[ 교원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간 이해관계 ]



- 창업교원이 휴직이 아닌 겸임·겸직으로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해서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대학행정 등에서 업무공백의 발생 가능성으로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해결 방향

- 교원창업 관련 사항은 학교 규정 및 개별적인 계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으로 인해 대학 자원이 편법적으로 남용되거나 소속학과의 업무행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원창업 승인 기준, 자원활용에 대한 비용 산정 및 지급 기준, 대학 업무 수월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한 일정한 제약사항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교원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교원의 신청자격은 넓게 해석하되, 교원의 본분인 교육 및 연구의 의무에서 예외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겸임·겸직을 승인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용되어 최소한 대학에 의무 또는 봉사의 기간을 갖는 교원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교원창업으로 인해 대학 또는 국가 등에 기여하거나, 산업적 파급력이 큰 창업아이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창업승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를 해야 하며 교원이 아닌 자가 대학의 자원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면서 주식을 주거나 또는 외부투자유치 등으로 주식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주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에 준하는 지분 또는 대주주인 경우 까지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
- 교원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교원이 기업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창업교원의 소속학과 또는 단과대학내 창업교수의 허용비용 또는 창업교원의 기업활동 허가시간 등에 대해 창업교원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교원창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해 소속학과의 업무행정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교원창업 승인 절차에 있어서 먼저 소속학과 또는 소속단과대학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대학본부 내 설치된 교원의 창업을 심의하는 기구에 안전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교원창업을 심의하는 기구에서는 사업타당성 등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창업 시 학교에 대한 재정기여이익 및 교원의 겸직/휴직의 타당성까지 사전에 검토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창업을 심의하는 교내교수들의 경우 사업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교원창업을 심의하기 전 교내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창업기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아서 교원창업 심의 시 위원들이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

### 나) 실험실 기반 대학(원)생 창업

#### 주요 이슈

- ▶ 실험실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대학-교원-학생 3자간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대학에서는 규정 제정 시 실험실 창업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가능한 대학(원)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이슈1) 대학(원)생이 실험실에서 교수 및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물(논문 또는 특허)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실창업의 경우 연구결과물의 권리를 보유한 대학-교수-학생 간 이해관계에 있어 갈등이 발생
  - 대학(원)생 창업의 경우 실험실 창업과 일반창업으로 분류되며, 대학(원)생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자유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창업의 경우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음
- (이슈2) 한편, 대학(원)생이 재학중에 창업하는 경우 학업과 창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며, 실험실 내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갈등이 발생함
  - 실험실 참여인력인 석/박사생의 경우 논문을 써야 졸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논문작성에 드는 노력을 고려하면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려움

-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경우 교원의 승진 및 업적평가가 논문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입장에서 대학(원)생이 논문 대신 창업을 한다는 것이 반갑지 않음
- 또한 실험실 내 동료간에도 창업활동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동료 대학(원)생의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해결 방향

-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 과정에서 대학-교수-학생 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 내 규정 또는 지침 등의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가능한 대학(원)생 창업도 교원창업과 동등한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실험실 창업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가능한 대학(원)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됨
  - 첫 번째 방향은 대학원(생)의 부담을 최소로 한다는 것임. 즉 대학(원)생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상으로 기술실시에 대한 계약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원 창업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형태로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는 것임. 또한 대학과 학생 창업기업의 목표일치(goal congruency)를 통한 상호 지원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분납부와 경상기술료 방식의 보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두 번째 방향은 다양한 옵션의 제공과 대학(원)생의 선택을 수용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기술실시 계약 시 대학(원)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학생의 선택을 대학이 수용함
  - 세 번째 방향은 기술이전 계약의 편리성 제고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원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삼자(학생-교원-대학) 이해관계 시 대학(원)생은 대학과 협상을 하고, 교원과의 협상은 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 ◆ 권고안

- 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의 경우에도 대학은 교원의 실험실 창업에 준하여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방지하여야 함
  - 기술실시의 경우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가능하며, 양도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실시료를 정해야 함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대학(원)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실시 옵션을 대학이 제시하고, 가능한 학생의 선택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단, 창업 이후 대학과 학생간의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실시 계약은 양도보다는 지분 및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 왜냐하면, 지분 및 경상기술료 방식이 창업기업이 생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학생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
  
- 한편 창업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기술료는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부터 특허권 종료기간까지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교원창업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단, 기술이전 시점에 기술의 가치가 현저히 높은 경우는(예 : 1억 원 이상 등)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실시 계약을 실시하되, 이 또한 교원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와 학생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실험실 기반 학생 창업기업에 대한 교수 지분의 상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창업기업 지분에 대한 부분은 학생과 교수의 자본금 투자금액, 기술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대학에서 강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2016년 시행된 창업을 희망하는 5개 과기특성화 대학의 대학원생과의 심층면담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험실 창업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창업 시 교수의 과도한 지분 요구를 지적하였음
  - 실험실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교수의 현금출자가 없다면 교수지분의 상한비율을 특정지분을 이내로 제한하거나 지분(스톡옵션), 기술이전계약, 연구 계약 등 다양한 협력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전략적 파트너 영입 등을 위해 지분의 역할을 중요하기 때문
  
- 마지막으로 논문, 특허의 권리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기여가 있는 학생이 해당 기술을 통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례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의 개발에 기여한 경우는, 특허 출원 당시 공동발명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추후 공동발명자로 인정
    - ※ 기업이 대학교수에게 발명을 의뢰하였고 지도학생도 발명에 관여하였는데 기업과 교수만 공동발명자로 하여 기업명으로 출원, 등록받은 것에 대해 지도 학생이 특허지분이전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지도학생에게 지분 30%를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0)



-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실험실 창업과 관련된 제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학(원)생이 학업과 창업(준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많은 대학에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였지만, 대학원의 창업프로젝트 트랙은 아직 구축이 미흡함
  - 실험실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높은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창업(준비)활동의 결과물로 대체할 수 있는 창업프로젝트 트랙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
- 학사제도 전반의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

### 3) 성장단계

- ▶ 교원 창업은 창업 이후 수업-연구-창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
- ▶ 실험실의 연구활동과 창업기업의 연구활동의 경계가 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학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 ▶ 창업교원이 창업 후 창업기업에서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에도 대학의 지재권 규정 및 대학창업 규정 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따라야 함
- ▶ 교원은 벤특법에 근거하여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창업 이후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에 이를 보고해야 함
- ▶ 대학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교원 창업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은 이를 준수해야 함

#### 주요 이슈

- 교원 창업기업의 경우 교원은 창업기업 소속의 근로자들과 함께 대학소유의 특허에 기반한 개량기술을 발명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발명의 소유권에 대하여 기업-대학-교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
  - 또한 휴직·겸직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PART 5 창업도전 지원하기

- 실험실창업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구조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분야 등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있음

### 해결 방향

- 교원이 창업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학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고,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함



####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학의 종업원인 교원(X2)이 제삼자인 교원 창업기업(Y1) 및 근로자(Y2)와 공동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학(X1)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가짐
- 이 경우에도 출원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함. 만약 교원(X1)이 창업겸직 상태에 있다면, 교원은 대학의 종업원이면서 창업기업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대학(X1)과 창업기업(Y1)이 공동출원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발명자는 교원(X2)을 포함한 발명에 기여한 자(Y2)로 하는 것이 합리적



#### 사례

#### Q.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가. 사실관계

**A**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임

- 피고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임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 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음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9. 03. 11,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음

##### 나. 결론

**A** -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됨. 그런데 피고인Y2는 사내창업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동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출원, 등록, 유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창업기업이 창업교원과 산학과제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비 규모에 맞는 실제 용역의 대가(연구수행 또는 기술개발)가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연구개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학(원)생의 연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도 안됨
  -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됨
  - 미국대학의 경우는, 연구실과 교원 창업기업 간에 강한 방화벽을 설치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음
    - ※ 미국대학 정책에 있어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을 자신의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이용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교원 창업기업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대학 교원 창업규정 주요 내용〉

- 교원 창업기업이 창업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부과제에 자신의 창업기업을 참여시킬 수 없음. 단, 기업의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교원 창업기업을 위한 개발연구를 대학에서 진행할 수 없음
- 교원 창업기업의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활동에 의한 결과물은 창업기업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대학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 창업기업으로부터의 구매내역은 소속학과장에게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창업교원은 구매 결정 과정에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요구 할 수 있음



#### 4) 교원 창업기업의 창업 후 관리 및 지원방안

- ▶ 교원은 벤특법에 근거하여 겸직 및 휴직을 통한 창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분 이므로, 창업 이후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에 이를 보고해야 함
- ▶ 대학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교원 창업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은 이를 준수해야 함
- ▶ 교원 창업기업의 창업 후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는 ① 보고(정기보고, 수시보고) ② 창업승인의 철회 ③ 창업지원 ④ 재정적 기여 ⑤ 교육 및 연구성실의무를 포함하고 있음

#### ▣ 교원 창업기업의 보고 관련

- 해외의 주요 대학에서도 교원 창업기업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대학의 모든 교수들은 매년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의 학장으로부터 책임충돌(conflict of commitment)과 이해충돌에 대한 대학의 정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외부기관과 새롭게 발생한 금전적 관계 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전적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학장에게 알려야 함
  - 또한, 단과대학장은 교수들이 신고한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야 함
  - 연구처장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매년 신고되는 서류와 연구처장과 함께 작성한 해결확인서를 보관해야 함. 연구처장이 내린 결정에 항의하고자 하는 교수는 교무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교무처장은 학술위 자문단(Advisory Board of Academic Council)에 자문을 받아서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함
- 교원의 창업 후 보고는 정기보고, 수시보고로 구분
  - (정기보고) 교원 창업기업이 대학에 매년 1회 하는 보고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 카이스트 창업규정 제17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 ② 교직원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한국산업기술대 교원창업 규정 제14조 : ① 창업교원은 당초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창업지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교원 창업기업은 일정 기간 이내에 대학에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함
- 대학에서는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내 변경통보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규정내에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통보를 받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다음 : 사업 계획의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자진 퇴거, 기타 회사의 주요 변경사항)
- 교원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교원 및 교원 창업기업은 사업계획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원창업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즉, 산학협력단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교원 창업기업이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촉구 및 시정 요구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 또한 상기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 통보 관련 요청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함. 단, 대표자의 변경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 카이스트 창업규정

**제17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직원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제13조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수 창업자(기업)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포항공대 창업규정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① 대학은 창업교직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2008.5.9)

1. 기업경영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② 창업교직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기 1항의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교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 2008.5.9)

### 교원 창업기업의 승인취소 관련

- 교원의 근본적인 업무는 교육과 연구이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창업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원창업 승인 이후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카이스트 창업규정

**제15조 (창업 승인의 철회)** ① 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학기술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 8 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제7조 (창업 승인 취소)** 창업 승인을 받은 자(또는 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 제 9조에 의한 겸직 또는 휴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2. 규정 제 8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규정 제 11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4. 창업 신청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 ◆ 교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 교원 창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과 연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필요
  - 대학 보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나아가 창업과 교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교원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카이스트 창업규정

- 제14조 (교직원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겸직기간 내의 교원 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창업기업에게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창업보육 전용공간의 사용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 서울대학교 창업규정

- 제11조 (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공간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⑤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원 창업기업의 재정적 기여

- 교원 창업에 대한 일부 교직원의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원 창업기업의 성장에 따른 대학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여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원 창업기업이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재정적 기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교원 창업기업의 성장이 대학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기여보다는 주식기부 등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 서강대 교수창업 규정

#### 제3장 재정적 기여

**제16조 (재정적 기여)** 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당해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 자본금은 당해기업 발전기금 산정시점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수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자본금에  $(2\% - [1.5\% \times (\text{자본금} - 1\text{억 } 5\text{천만 원}) / \text{자본금}])$ 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 원까지는 양도금액의 2%,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 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2%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수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 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① 교수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② 당해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17조 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③ 위원회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건을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19조 (기술이전의 실시)** ① 교수 창업자는 창업 후 매 1년마다, 기술이전을 통해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단 창업 2년 이내에 교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인하대학교 교원창업 규정

#### 제4장 재정적 기여

**제18조 (재정적 기여)** ① 교원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의 주식 일부를 무상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제19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하고 당해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로 하며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1.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3%
2. 자본금 1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2.5%
3.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2%



-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 원까지는 양도금액의 3%,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다.
-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 ⑤ 교원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한다.

1.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2. 당해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3. 위원회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21조 (산학협력발전기금 출연)** ①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교원창업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회사는 창업 3년 이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무상증여로 재정적 기여 방법을 전환한다.

**제22조 (준용규정)** 교원창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내 관련 규정과 관리기관 지침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 교육 및 연구성실의무

- 교원의 창업승인은 벤특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
  -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교원의 창업활동으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대학자원이 영리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
-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교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지하고 관련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코멘트

- ▶ 교원 창업 규정은 아직 대학별로 전체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에, 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자료 1〉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안)'과 '〈참고자료 2〉 대학창업규정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을 작성하기 바람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 PART VI

## 대학 창업교육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VI 대학 창업교육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1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의 이해

정부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2016)'에 따라 대학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대학 창업지원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함

\* 2016년 12월 1차 연구를 통하여 기본모델을 구축하였고, 2017년 6월에 2차 연구를 통하여 완성(고혁신 외 2인)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교육부,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2016.04)

### 1. 추진배경

▶ 기간 정부·대학 등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었던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졸업자 등 창업 수요자의 준비상태 및 역량 등에 따라 체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동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 “대학 창업지원 체계화”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 2. 주요내용

▶ 「대학 창업지원 모델」 정립 및 확산

• 현재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인덕대 등 창업선도대학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정립·확산할 계획

\* 창업선도대학협의회(34개 대학) 및 LINC 대학 협의회(87개 대학) 등이 “(가칭)대학 창업지원 모델 T/F” 구성·운영(‘16.5~)

● 이후 기재부에서는 대학 창업지원 협업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상당 → 사업화 → 보육」 종합 지원체계를 전 대학으로 확산하였고, 대학창업지원모델을 전 대학에 배포함

대학 창업지원모델은 정규 교과, 비교과, 창업사업화, 창업지원 인프라의 4개의 모듈로 구성

● 표준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은 창업지원 체계 완성 수준을 자가 진단 후 도입이 필요한 세부 모듈을 선택·활용

창업단계별 필요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모듈 도출(예시)

구분	창업 단계	(1단계) 아이디어 창출 : 깨움	(2단계) 창업 준비 : 키움	(3단계) 창업 및 성장 : 이룸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력, 도전정신</li> <li>시장에 대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기술 및 지식</li> <li>시제품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팀 빌딩, 피칭</li> <li>네트워크</li> </ul>
모듈명		적용이 필요한 창업 단계		
Module1(깨움)	정규 교과과정	■		
Module2(키움)	비교과과정		■	
Module3(이룸)	창업사업화			■
Module4(인프라)	① 조직/인력	■	■	■
	② 공간/장비		■	
	③ 학사제도	■	■	
	④ 창업포털	■	■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7), 대학 창업지원모델 길라잡이

- (Module1 : 정규 교과) 대학생의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강좌를 의미하며, 창업강좌는 대학 내에서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으로 개설

구분	정의
창업강좌	<p>대학생의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기업가마인드 함양, 사업아이템 창출, 사업타당성 검토, 제품개발, 자금조달, 판로 확보, 마케팅홍보전략, 기업성장전략, 성공사례, 실습 등의 수업내용을 포함(단, 1회성 특강은 제외)</p> <p>*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창업강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함. 창업관련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등</p>
교양과목	창업에 관한 이론과 기업가마인드 함양 등 창업 일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편성된 교양과목
전공과목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등 각 전공영역에서 창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전공과목
실습과목	수업내용의 절반이상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조별 모의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등의 실습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성된 교과목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에 반영된 교과목의 경우 제외)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Module2 : 비정규 교과) 시제품제작, 창업팀 빌딩, 창업역량배양 등을 목적으로 창업준비 단계에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창업활동
  - 비교과의 기본유형은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특강, 기타 활동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 중 창업동아리 활동이 중요

**비교과 창업활동 기본 유형**

구분		정의
창업 동아리	대학 알리미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창업에 대한 학습, 교육, 실무 등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창업선도 대학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3명 이상(타교 연합 가능)이 창업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창업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대학이 등록·지원·관리 - 최소 99㎡이상의 창업동아리실 공간 확보 - 아이템 기획/제작비, 교육참가비, 회의비, 멘토링비 등 지원
창업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 검증 및 우수 창업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대학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행사
창업캠프		창업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플랜작성 등 창업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숙박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교육
창업특강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단발성 창업 관련 특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서포터즈 : 각종 채널을 활용한 교내외 창업 관련 정보 수집 및 홍보 활동을 담당,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등) 지원</li> <li>• 창업마일리지 : 창업활동 이력을 점수화하여 우수자 대상 장학금 지급, 시상, 기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li> <li>• 창업포럼/세미나 : 창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교류</li> <li>• 네트워킹 행사 : 대학생, 졸업생, 일반인 등 다양한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li> <li>• 투자 유치 : 학생들의 창업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활동 등</li> </ul>

- (Module3 : 창업사업화) 우수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대학 자체 또는 외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 사업화의 성공을 지원하는 활동

**창업사업화 활동 기본 유형**

구분	정의
스카우팅	교내외 우수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아이템을 상시 발굴하는 활동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의 투자와 전문보육을 통해 창업 초기 실패율과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 * 투자 : 초기투자 펀딩, 투자설명회 개최, 후속투자자 연결, 데모데이 개최 * 전문보육 : 사업 아이디어 및 BM 고도화, 창업팀 구성 및 우수인력 추천 및 영입, 세무/회계/법률 등 경영 자문, 업무공간 및 시설 제공, 창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 경영 전반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스케일업	R&D, 마케팅, 투자 등 패키지 혹은 연계 지원을 통해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활동

- (Module4 : 창업지원 인프라) 효율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인력의 구축, 공간 및 장비 구축, 제도 구축, 예산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의미함
  - (조직/인력)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능형 조직 유형\*과 통합형 일원화 유형\*\*으로 분류 가능
    - \* 기능형 조직 유형 : 대학 내 창업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등이 각각 독립 조직으로 운영
    - \*\* 통합형 일원화 유형 :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본부와 같이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보유
  - (공간) 활용도에 따라 전용공간과 연계공간\*으로, 창업단계별로 창업동아리방,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등으로 분류 가능. 창업지원공간의 명칭은 대학별로 자유롭게 네이밍 가능
    - \* 연계공간 :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교수연구실,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예비)창업가가 입주를 지원하는 공간
  - (장비) 대학(원)생의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구축과 운영이 핵심,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연계활용이 중요

- ◎ 미국은 차고(garage)기반의 DIY 및 오픈소스 문화를 바탕으로 '06년부터 민간 중심의 메이커 운동이 확산
  - (메이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
  -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갖춰놓은 작업 장소
    - \* (美) Techshop, MIT Fablab, (中) Seeed Studio, (日) DMM.make AKIBA 등

- (창업친화적제도)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관련 학사 및 인사제도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로 구분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창업친화적제도의 종류

구분		정의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 등 창업 준비과정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 현장실습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 학점교류제	타 대학과 창업강좌와 관련한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타 대학의 창업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창업연계전공	창업관련 정규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시 학위(부전공/복수전공)를 부여
	창업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창업특기생	우수한 창업역량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제도
	창업대체논문제	대학원 :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창업 및 창업 준비활동을 학위논문으로 대체하는 제도
인사제도	창업 휴 · 겸직	일정기준에 충족되는 창업의 경우 휴직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교원 업적평가	교원의 창업 또는 창업교육활동을 교원의 업적평가 반영하여 창업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제도
	창업(중점)교수	교원(전임, 비전임 포함)선발 시 창업경험자 및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토록 하여 창업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제도
	창업연구년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년을 부여하는 제도

- (창업포털) 창업 관련 정보제공, 창업활동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데이터 전산화 등 교내 창업지원 기능을 집결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원 DB, 창업활동 이력 DB 등 대학 학생경력관리 시스템(이하 교내 시스템)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2개로 구분

구분	세부 내용
기본형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포털 관리주체로, 교내 시스템과 별도 구축 · 운영
심화형	대학 본부가 포털 관리주체로, 교내 시스템 내 창업포털을 신규 구축하거나 일부 기능(창업활동 이력 관리)을 연동 * 창업활동 이력 관리 : 정규 교과 수료, 비교과 참여, 창업 현황 등



## 2 대학 창업지원 역량 자가진단하기

### 가 자가진단모델 1 \_ 실전창업 중점형

-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델은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2016년, 교육부, 중기부)’계획에 따라 개발된 대학창업지원모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자가진단모델1(실전창업 중점형)은 창업선도대학, LINC+사업 수행 대학 등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가 육성이 목표인 대학이 적용 가능한 모델임
  - 대학창업지원모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모델의 구성체계는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및 창업 지원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 자가진단 지표 이해) 대학에서는 4장 1절의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참고하여 각 세부제표에 대해 이해하고, 각 지표에 대한 대학 현황을 파악

대학 창업지원역량 자가진단표

구분		세부지표 (예시)	자료형태
창업교육	정규 교과	대학생 창업강좌(개)	Metric
		창업동아리(개)	Metric
창업활동	비교과	창업경진대회(회)	Metric
		창업캠프(개)	Metric
		창업특강(개)	Metric
		기타 자율특화프로그램(개)	Metric
		기술창업 스카우트(명)	Metric
창업사업화	스카우팅	아이템사업화선정기업(일반)(명)	Metric
		아이템사업화선정기업(고급)(명)	Metric
		창업지원사업 유치	Binary
	액셀러레이팅	대학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건)	Metric
		교내 투자환경 조성 - 기술지주회사, 기금 등 직접투자	Binary
		'11~'16년 누적, 직/간접 피투자기업 (개)	Metric
		투자 및 전문보육 프로그램 (개)	Metric
	스케일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마케팅, R&D 등) (개)	Metric
지원 인프라	조직	전담조직	Binary
		상담창구	Binary
		통합형 일원화	Binary
	인력	전담인력(명)	Metric
		3년 이상 경력자(명)	Metric
	공간	창업동아리실 면적(m <sup>2</sup> )	Metric
		창업지원공간 면적(m <sup>2</sup> )	Metric
	장비	장비 보유	Binary
		장비 관리 인력	Binary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Binary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지원 인프라	제도	창업휴학제 (도입 여부)	Binary
		창업휴학제_활용_누적치 (명)	Metric
		창업특기생 (도입 여부)	Binary
		창업특기생_활용_누적치 (명)	Metric
		창업연계전공	Binary
		창업대체학점인정	Binary
		창업학점교류	Binary
		창업장학금	Binary
		교원 창업 휴·겸직	Binary
		창업중점교원	Binary
	창업포털	사이트 운영	Binary
	회원관리 기능	Binary	

- (2단계 : 각 지표별 점수 부여) 대학에서는 각 모듈별 세부 항목에 대한 현황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배점표에 근거하여 점수를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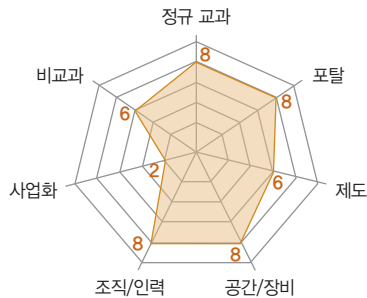
모듈 (Module)	배점(Scoring)					가중치 (점)		
	2	4	6	8	10			
정규 교과 (20)	강좌 수	2개	5개	7개	10개	11개 이상	10	
	이수학생비율	~2%	2%~4%	4%~6%	6%~10%	10% 이상	10	
비교과 (25)	동아리 수	3개	6개	10개	15개	16개 이상	5	
	동아리참여학생비율	0~0.5%	0.5%~1%	1%~1.5%	1.5%~2%	2% 이상	5	
	경진대회	1건		2건		2건 이상+고도화	5	
	캠프 및 특강	5건		10건		10건 이상+고도화	5	
	자율특화	자율프로그램 1개		자율프로그램 2개		자율 3개	5	
창업 사업화 (25)	스카우팅	스카우터보유 1명		창업자발굴 (일반) 2건	창업자발굴 (고급) 2건	대학보유기술 사업화 2건	10	
	액셀러레이팅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1건	투자유치 2건	창업지원사업유치 or 기술지주회사투자	10	
	스케일업	글로벌시장진출지원 1건		글로벌시장진출지원 2건		기타 특성화 성과	5	
지원 인프라 (30)	조직	전담조직보유		원스톱창구 구축		통합형조직	5	
	인력	2명 이상 전담인력		4명 이상 전담인력		5명 이상+ 3년 경력자 30% 이상	5	
	공간	동아리방 운영	동아리방 115.5㎡ 이상	창업준비실 운영	공동창업 보육실 운영	연계공간 운영	4	
	장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운영전문 인력1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연구 장비와 연계	4	
	제도	학사 제도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전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문		5
			2개	3개	4개	5개	6개	
	제도	인사 제도	창업휴·겸직, 교원 창업 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생 창업 업적평가 반영		5
			1개	2개	3개	4개	5개	
창업포털	운영여부			이력관리연계		2		
<b>합 계</b>							<b>100</b>	

- (3단계 : 역량진단) 대학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모듈별, 지표별로 창업지원역량을 진단
  - 대학평균역량은 개별 대학수준에서는 해당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추후 각 대학별 역량진단을 수행하여 평균값의 제시가 필요함
  - 각 대학의 지표별 값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레이다차트로 나타내면 부족한 영역에 대한 진단 수행 가능

자가진단모델을 통한 창업지원역량 진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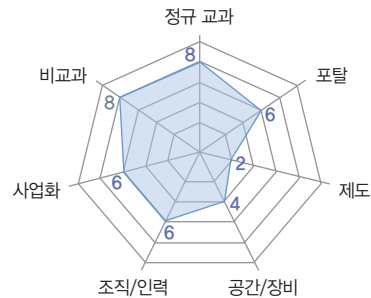
모듈(Module)		A대학	가중치(점)	A대학 역량	대학평균역량	
정규 교과 (20)	강좌 수	8	10	80	85	
	이수학생비율	8	10	80	75	
비교과 (25)	동아리	동아리 수	8	5	40	30
		참여학생비율	8	5	40	30
	경진대회	6	5	30	40	
	캠프 및 특강	10	5	50	70	
	자율특화	4	5	20	30	
창업사업화 (25)	스카우팅	8	10	80	75	
	엑셀러레이팅	8	10	80	70	
	스케일업	4	5	20	30	
지원인프라 (30)	조직	4	5	20	30	
	인력	6	5	30	25	
	공간	10	4	40	30	
	장비	10	4	40	30	
	제도	학사제도	6	5	30	40
		인사제도	6	5	30	45
	창업포털	10	2	20	10	
합계			100	730	745	

A 대학



A대학은 창업지원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사업화역량 강화 추진 필요

B 대학



B대학은 창업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그 중 제도(규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



## 나 자가진단모델2\_창업교육 중점형

- 자가진단모델2(창업교육 중점형)는 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의 역량진단을 위하여 본 매뉴얼을 통해 개발된 모형임
  - 대학 창업지원모델의 구성요소를 참고하되 창업교육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투입 ⇒ 활동 ⇒ 산출의 3단계 논리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 자가진단 지표 이해) 대학에서는 4장 1절의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참고하여 각 세부제표에 대해 이해하고, 각 지표에 대한 대학의 현황을 파악

구분	세부지표(예시)	자료형태	
투입 (인프라)	조직	전담조직	Binary
		상담창구	Binary
		통합형 일원화	Binary
	인력	전담인력(명)	Metric
		3년 이상 경력자(명)	Metric
	공간	창업동아리실 면적(m <sup>2</sup> )	Metric
		창업지원공간 면적(m <sup>2</sup> )	Metric
	장비	장비 보유	Binary
		장비 관리 인력	Binary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Binary
	제도	창업휴학제 (도입 여부)	Binary
		창업휴학제_활용_누적치 (명)	Metric
		창업특기생 (도입 여부)	Binary
		창업특기생_활용_누적치 (명)	Metric
		창업연계전공	Binary
		창업대체학점인정	Binary
		창업학점교류	Binary
		창업장학금	Binary
		교원 창업 휴·겸직	Binary
		창업중점교원	Binary
	창업포털	사이트 운영	Binary
회원관리 기능		Binary	
활동 (창업교육)	정규 교과	대학생 창업강좌(개)	Metric
	비교과	창업동아리(개)	Metric
		창업경진대회(회)	Metric
		창업캠프(개)	Metric
		창업특강(개)	Metric
		기타 자율특화프로그램(개)	Metric
산출	대학(원)생	학생 창업기업 수	Metric
	교원	교원 창업기업 수	Metric

- (2단계 : 각 지표별 점수 부여) 대학에서는 각 모듈별 세부 항목에 대한 현황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배점표에 근거하여 점수를 계산

모듈 (Module)		배점(Scoring)					가중치 (점)	
		2	4	6	8	10		
투입 (40)	조직	전담조직보유		원스톱창구 구축		통합형조직	5	
	인력	1명 이상 전담인력		2명 이상 전담인력		3명 이상 + 3년 경력자 50% 이상	5	
	공간	동아리방 운영	동아리방 115.5㎡ 이상	창업준비실 운영	공동창업 보육실 운영	연계공간 운영	5	
	장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운영전문인력 1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연구 장비와 연계	5	
	제도	학사 제도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전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문		10
			2개	3개	4개	5개	6개	
		인사 제도	창업휴 · 겸직, 교원 창업 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생 창업 업적평가 반영		7
			1개	2개	3개	4개	5개	
창업포털	운영여부			이력관리연계		3		
활동 (40)	창업강좌 수	2개	5개	7개	10개	11개 이상	10	
	창업강좌 이수학생 비율	~2%	2%~4%	4%~6%	6%~10%	10% 이상	5	
	동아리 수	3개	6개	10개	15개	16개 이상	10	
	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0~0.5%	0.5%~1%	1%~1.5%	1.5%~2%	2% 이상	5	
	경진대회	1건		2건		2건 이상+고도화	3	
	캠프 및 특화	5건		10건		10건 이상+고도화	3	
	자율특화	자율프로그램 1개		자율프로그램 2개		자율 3개	4	
산출 (20)	학생 창업기업 수	1~2개		3~4개		3~4개	10	
	교원 창업기업 수	1~2개		3~4개		3~4개	10	
합 계							100	

- (3단계 : 역량진단) 대학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점수를 활용하여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모듈별, 지표별로 창업지원역량을 진단
  - 대학평균역량은 개별 대학수준에서는 해당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추후 각 대학별 역량진단을 수행하여 평균값의 제시가 필요함
  - 각 대학의 지표별 값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레이다차트로 나타내면 부족한 영역에 대한 진단 수행 가능

\* 레이다차트 사용 시 지표별 값은 아래의 표의 1)대학 원점수의 값을 입력, 각 지표별 만점은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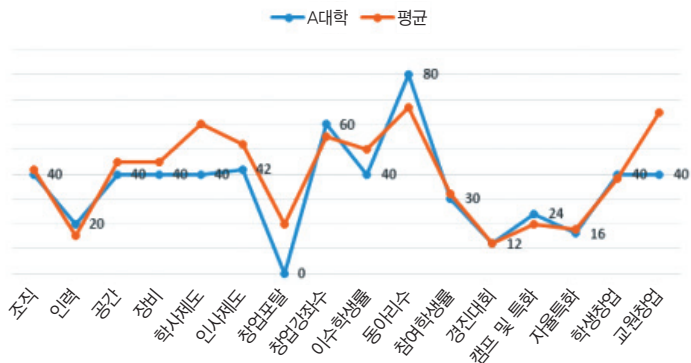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자가진단모델을 통한 창업지원역량 진단 예시

모듈(Module)		A대학 <sup>1)</sup> 원점수	가중치(점)	A대학역량	대학평균역량	
투입 (40)	조직	8	5	40	42	
	인력	4	5	20	15	
	공간	8	5	40	45	
	장비	8	5	40	45	
	제도	학사제도	4	10	40	60
		인사제도	6	7	42	52
	창업포털	0	3	0	20	
활동 (40)	창업강좌 수	6	10	60	55	
	창업강좌 이수학생 비율	8	5	40	50	
	동아리수	8	10	80	67	
	동아리 참여학생 비율	6	5	30	32	
	경진대회	4	3	12	12	
	캠프 및 특화	8	3	24	20	
	자율특화	4	4	16	18	
산출 (20)	학생창업 기업 수	4	10	40	38	
	교원 창업 기업 수	4	10	40	65	
합계				564	636	

A대학



A대학은 창업동아리 수가 비교적 높으며, 학사제도와 인사제도가 다소 미흡하며 특히 교원창업이 저조하게 나타남

### 3 대학 창업지원 역량 자가진단시 고려사항

#### 정규 교과

- 창업강좌 개설의 질적인 수준인 전공/교양 개설 현황, 학년별 개설현황, 필수교과의 수, 전체 창업 강좌 구성체계 등을 진단
  -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창업의 특성 상, 다양한 학과가 팀빌딩을 할 수 있도록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이상적
  - 기초 모듈에서 '기업가정신' 등 1~2개 과목은 저학년 교양필수로 개설을 권고하나 세부사항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조정
  - 단순히 몇 개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창업 강좌 우수사례를 학습하여 전체적인 교과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 연세대학교 창업강좌 운영체계 : 예) 기초단계 → 심화단계 → 실전창업단계 등
- 중장기적으로 창업연계전공의 개설을 통해 고도화된 창업교육 체계를 구축이 중요함을 인지
  - 단순히 창업강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실전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

#### 비정규 교과

-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전공으로 팀을 구성하여 융합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을 훈련
  - 2014년 기준 학생 창업기업의 63.6%가 창업동아리 출신 기업인 것을 고려하면, 창업동아리 활동이 중요
  - 학생들은 학교의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공간제공”을 제시한 바, 학생들이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창업경진대회는 특정일에 발표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을 병행하여 교육적 효과 추구. 경진대회 결과물의 활용(IP확보, 시제품제작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
- 창업캠프는 단기간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커톤, 메이커톤 등의 방식이 유행 중임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
  - ※ (한국산업기술대 4UP 프로그램) 창업강좌(정규 교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비교과)를 개최,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여 창업동아리(비교과)로 선정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창업사업화**

- 교내 인프라를 활용한 자체지원,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지원 등 대학 고유의 창업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
  - 교내외 우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아이템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스카우터\*로 지정
    - \* 교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센터장급 이상(교수 포함), 기업가, 투자자, 창업지원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
  - 사업화 단계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사업과 매칭하고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
  -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별 정책자금(보조, 출연, 보증, 융자)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K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창업교육 정보시스템, 기업가정신 포털 등) 접속
  - 정부지원사업은 미래부, 중기청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 클라우드 펀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클라우드 펀딩 대회 또는 실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봄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장에 검증
  - 창업기업에 들어가서 현장감각을 익히고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인턴십 참여기회 제공
  -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학생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TLO, LINC사업단 등 활용
  -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창업자금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빠른 시도와 성장을 지원
  -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펀드를 확보하고, 교육부에서 시행예정인 '대학창업펀드'와 매칭 추진
  - 궁극적으로는 각 대학이 배출한 창업기업이 대학의 수익원이 되고, 해당 수익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을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 창업지원인프라

- **(조직/인력)** 대학 내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형 일원화 조직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 적절한 수준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와 고용형태 등을 진단
  -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근무가 중요한 바 근무기간을 진단하고, 무기계약직 제도 등의 구축여부 등을 진단
  - 창업지원 센터 등 전담조직의 장의 경력 등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가를 진단
  -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이 대학본부 소속인 것이 이상적이나, 대학의 상황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도 무방하나, 사업단 소속(초기창업패키지, 링크+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 종료 후 전담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진단
  - 전담조직(창업지원센터 등)의 장이 대학의 중요이사결정에 참여(창업강좌 확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의 구축 등)하기 위한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진단. 임명이 중요한 바, 교무위원 임명을 권고
  - 대학 내 창업관련 조직(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기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 바, 중장기적으로 관련조직의 통합을 권고
    - ※ 사례 : 한국산업기술대는 창업지원본부를 만들어 대학 내 4개 조직(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을 통합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공간/장비)** 공간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적화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비의 경우 기존 대학 내 실험실습실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필요
  -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창업동아리방,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등의 적절성을 진단
  - 학생들은 공간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현장서 창업동아리는 많은데 지원공간이 부족한지 여부를 진단
  - 창업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학의 경우는, 창업한 학생들이 대학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창업보육실 등의 운영이 바람직
  -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제품제작소(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가와 운영형태에 대해 진단
  - 창업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학의 경우는,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시스템이 있는지', '시제품제작실을 운영하는 전담인력(근로학생 등)이 있는지', '장비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개선



PART 6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 및 자가진단

- (창업친화적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인사제도의 구축은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 부분이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핵심 평가지표로 최대한 구축이 필요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사업의 핵심지표
  - 학사제도의 다양한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특히 창업 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의 차이, 창업연계전공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 창업휴학제 신청자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 필요,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창업연계전공 등에 대한 성과가 중요
    - ※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의 경우, 제도 마련 이후 과정개설, 지도교수 활용, 커리큘럼 및 구체적 결과물 등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필요
  - 창업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학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학사제도 완성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
  - 대학 본부 등 운영주체, 의사결정기구 및 내부 구성원들이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도 마련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필요
  -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원인 바, 창업(교육)지원에 대한 교원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창업친화적 인사제도의 구축도 중요함을 인지하고, 각 대학의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구축 수준을 진단
  - 본인창업, 창업동아리 지도, 창업기업 지도, 지도학생의 창업 시 점수 부여 등 창업(교육)지원에 참여하는 교원의 업적평가 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권고
  - 신청 자격요건, 심의 및 점검기구 마련을 통해 제도 오용과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마련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 참고자료 ●



## 1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 서문>

본 가이드라인(안)은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의 교원 및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특성화대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3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특성화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초안으로서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후, 과기특성화대학별로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 할 예정임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기특성화대학(이하 과기대)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의의>

과기특성화대학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창업규정이 미비했던 과기특성화대학의 창업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의 범위는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다.
3. “교원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학생 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과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 〈의의〉

- 교원 창업 : 과기특성화대학의 교원(교수, 연구원)이 자신이 근무중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이 개발한 대학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까지 교원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결권있는 주식 50% 이상 소유)도 창업의 범위에 포섭하여 본 가이드라인 상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대학 보유기술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학생 창업 :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생이 창업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각 과기대에서 정하여 명시한다.

## 제 2 장 교원창업

제4조 (교원창업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과기대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이 창업 시 과기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의의〉

- 입사 후 일정기간 (3년 후) 지난 자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년미만의 교원도 학과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통과하면 창업이 가능)

제5조 (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신청자 소속 학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허여 신청서
4. 휴·겸직 신청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참고자료〉

**제6조 (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을 받은 소속학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학과/전공인사심의회 심의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주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1. 창업 휴·겸직 허용여부
  2. 겸직허가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 ③ 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기술이전계약부서, 단과대학, 소속학과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 ④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원창업대상기술은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과기대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1항에는 기업과 공동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의의〉

-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과 공동소유권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공동기술을 창업대상기술로 함

**제8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 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과기대와 체결한다.

② 창업대상기술을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의의〉

- 기업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기술이전 형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창업촉진을 유도함

**제9조 (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과기대 교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창업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시 2년 이내로 하고 학과/전공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②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되거나 겸직이 종료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겸직허가 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조정 기준은 각 과기대에서 정한다.

### 〈의의〉

- 교원이 대학보유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경우 신산업과 혁신기업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증대하는 등 공익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최대 6년의 휴직과 무기한 겸직이 가능토록 함
- 휴·겸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금지하여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함
- 겸직 후 창업활동 병행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적절한 비율을 각 과기대별로 정하여 창업활동과 교육연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제10조 (교원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제2조 3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반드시 제5조 내지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과기대의 기술을 유용한 때에는 과기대는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과기대 기술사업화에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기대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기대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과기대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의의〉

- 대학의 보유기술을 이용한 창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업자의 창업 지원 측면에서 대학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창업자의 창업승인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고 대학의 기술사업화 관리 체계를 강화함

- 제12조 (교원창업지원)** ① 과기대는 겸직기간 내의 교원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과기대는 교원 창업기업에게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기대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의의〉

- 연구기자재 사용등에 대해 과기대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제13조 (창업 승인의 철회)** ① 과기대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기술사업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기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기대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의의〉

- 창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승인 철회의 근거를 둠

**제14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과기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기대는 지재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3. 과기대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의의〉**

-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시 과기대에 통보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과기대에서 정할 수 있게 하여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유실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함

**제15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원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교원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의〉**

- 창업기업의 변경사항과 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기업의 활동을 추적관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3 장 학생창업**

**제16조 (학생창업휴학)**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4학기동안 창업휴학을 할 수 있고, 재심의를 통해 4학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을 합한 기간이 총 8학기를 넘지 못한다.

② 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이용 등의 혜택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의의〉

- 학생이 일반휴학기간(통상2년)의 부족으로 창업기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복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여 최대 4년 동안 휴학할 수 있도록 함
- 창업휴학시 기숙사 등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휴학생이라도 교내에서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과기대는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기술창업 커리큘럼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창업휴학의 승인)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생창업 지원) 과기대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생 창업자(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과기대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생 창업기업의 의무 등)

- ①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 창업자는 재학 및 휴학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의〉

- 창업기업의 변경사항과 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기업의 활동을 추적관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 4 장 기타

제21조 (통계의 관리 등) ① 과기대의 주관부서는 교원·학생 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제 규정과의 관계) ①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기타)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대학창업규정 예시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제 3 조에 따른 교직원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3. “교원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고,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및 제 3 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학생 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직원과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 제 2 장 교원창업

제3조 (교원 창업 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명시된 전임교원 중 3년 이상 재직한 교원. 단, 휴직 및 연구년 기간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으로서 창업 시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 (교직원 창업 신청)**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창업신청자 소속 학과/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승인 신청서 1부
2. 창업 사업계획서 1부
3. 학과(부)추천서 1부
4. 기타 심의 시 참고 서류 1부

② 해당 학과(부)장은 전항 3호의 학과(부)추천서를 발급 시 교무처와 협의하여 겸직 및 휴직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과 수업 등 학과(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교원 창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원창업규정 개정
  2. 교원창업 승인, 기간연장, 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 지원사항
  4. 기타 교원창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 (교직원 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과 창업신청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3. 본교 운영상 지장 초래 여부
  4. 창업교원의 업적평가점수
-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서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④ 승인을 득하지 못한 교원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는 창업신청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⑤ 최초 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승인 연장은 승인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항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
- ⑥ 교원창업 승인은 동일기업에 한해 최대 6년, 재직기간 중 합산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총장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창업자는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승인 후 조치)** ① 창업교원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창업의 형태는 제2조 8호에 명시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한다.
- ③ 창업교원이 설립한 창업기업은 설립 후 2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인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원 창업대상기술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대학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 ② 제1항 중 기술은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9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6조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 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대학과 체결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겸직 및 휴직)** ① 교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창업심의위원회와 교원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로 하고, 교원창업심의위원회와 교원인사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②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총장은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1조 (급여 및 신분)** ① 창업교원의 겸직 및 휴직 시 급여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승진, 승급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한된다.

**제12조 (지원)**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공간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이 창업한 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한 투자지원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하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교원에게 실시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3조 (창업교원의 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이후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의무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에 따른다.

**제14조 (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①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② 재정적 기여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에 따른다.

**제15조 (창업승인의 취소)** ① 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 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대학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대학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의 창업교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대학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대학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3. 대학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6조 (창업교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하는 교원은 교원창업심의위원회 및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 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는다.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창업자로서 외부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의 양해 후에 당해 연구비를 창업기업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유출금지 의무)**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학기술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변경 신고 및 보고 의무)** ① 교수 창업자(기업)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9조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의무)** 창업교원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창업교원의 의무 위반)** 창업교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학은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학기술원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 4 장 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제21조 (기여방식)** ① 기업의 주식 일부를 무상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제22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하고 당해주식의 주당가치 산정은 액면가로 하며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1.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5%
2. 자본금 1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4%
3.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3%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 원까지는 양도금액의 3%,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원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한다.

1.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 참고자료 〉

2. 당해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3. 위원회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 경우

**제21조 (산학협력발전기금 출연)** ①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교원창업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발전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회사는 창업 3년 이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무상증여로 재정적 기여 방법을 전환한다.

## 제 5 장 학생창업

**제22조 (학생창업)**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동등하게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 장 기타

**제19조 (통계의 관리 등)** 대학의 창업지원본부는 교직원·학생 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 규정과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3 최신 창업트렌드

### 가 최신 창업트렌드 소개

#### 1) Maker 창업트렌드

##### ▣ 렉스로보<sup>1)</sup>

- 렉스로보는 코딩 교육용 로봇 모듈인 모디(MODI)를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 창업자인 오상훈 대표는 2014년 초기 7명의 인원으로 렉스로보를 창업하여 2018년 9월 기준 42명의 종업원이 재직 중
  - 창업 초기에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 10만 원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으나, 모두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동고동락하며 위기를 극복
  - 오상훈 대표는 유년 시절 월드로보페스트, 로봇월드컵 등 세계유수대회 등 로봇 관련 대회에서만 180회 이상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영재
  -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졸업 후 틀에 박힌 일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듦
  
- 렉스로보의 매출은 창업 첫해인 2014년 667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4,697만 원, 2016년 6,466만 원, 2017년 2억 7,022만 원까지 성장
  - 국내 350여개 학교에서 모디를 사용 중이며, 추가로 600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 할 예정
  - 기업가치도 2015년 12월에 TIPS에 선정될 당시 6억 원 정도였으나, 그로부터 8개월만인 2016년 8월에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그 후 10개월 뒤인 2017년 6월에 400억 원,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700억 원의 가치가 인정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

1) <https://modi.luxrobo.com/>

< 참고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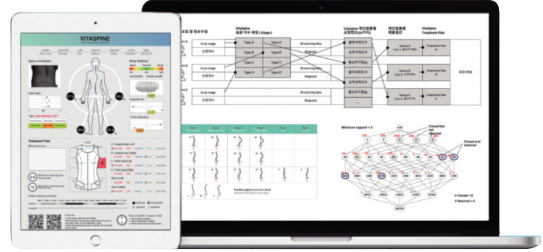


▣ 벨류앤드트러스트<sup>2)</sup>

- 2016년 2월 설립된 벨류앤드트러스트는 보건·바이오 관련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사원수 7명 규모의 메디컬/헬스케어 벤처스타트업
  - 벨류앤드트러스트가 개발한 바이타스파인(VitaSpine)은 맞춤형 척추측만증 교정기기로, 기존 기기가 환자 몸을 본뜬 석고 몰드를 이용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던 반면 바이타스파인은 엑스레이를 이용한 인체의 척추상태 분석을 통해 패브릭 소재로 제작
  - 바이타스파인은 인체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반영해 패브릭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바이타스파인을 쓰는 환자들은 기존 기기를 착용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과 부작용이 해소
  - 바이타스파인 착용 여부를 외관상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무리 없이 일상생활 가능
  
- 2017년 11월 9일 벤처캐피탈(VC)업체에 따르면 LSK인베스트먼트와 BNH인베스트먼트는 벨류앤드트러스트에 10억 원을 투자
  - 투자는 LSK인베스트먼트와 BNH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Co-GP)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 벤처펀드 'LSK-BNH 코리아바이오펀드'를 통해 이루어짐
  - 벨류앤드트러스트는 2016년 초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한 데모데이 '이스트 및 웨스트'(East Meets West · EMW)에서 바이타스파인으로 경쟁해 아시아 부문 우승을 차지
  - 척추측만증 환자를 위한 의복형 교정 수트 바이타스파인의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동시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2) <http://vntc.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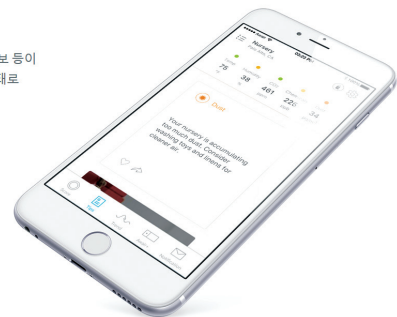
Wearable device  
Personalized device  
Optimized device

### 비트파인더<sup>3)</sup>

- 비트파인더는 실내 공기의 쾌적함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스마트 기기인 어웨어를 개발함
  - 최첨단 모션 센서와 조도 센서를 도입해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
  - 패턴 인식과 동적 벤치마킹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관심에 따라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
  - 어웨어 앱에서는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팁을 제공해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주거 공간을 개인에게 최적화된 환경으로 바꿈




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팁, 건강 정보 등이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3) <http://kr.getawair.com>

< 참고자료 >

- 비트파인더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임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사를 둔 비트파인더는 노범준 대표와 케빈 조(Kevin Cho) CTO가 2013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 IDEO, 보잉, 삼성, 시스코 등에서 제품 기술 개발 경력을 쌓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디자이너로 구성
  - 2015년 8월 28일 모바일, 인터넷, 기술기반 전문 투자사 케이큐브벤처스는 IoT기반 실내공기 측정 서비스기업 ‘비트파인더’에 70만불(약 8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힘
  - 2016년 8월 25일 비트파인더는 알토스벤처스, 삼성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GS shop등으로부터 약 50억 규모의 시리즈 A투자를 받았다고 밝힘
  - 노범준 비트파인더 대표는 “실내 공간에서의 더 건강한 삶을 목표로 더욱 고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생산성과 수면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함

 딜리버<sup>4)</sup>

- 딜리버의 스마트 주얼리 ‘헬렌(HELEN)’은 여성의 성향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밴드 제품으로, 헬렌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함’과 ‘패셔너블’임
  - 딜리버는 스마트 밴드의 역할을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이 아닌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제품으로 한정해 헬렌의 주요 기능을 일상에서 중요한 전화, 문자, SNS 등의 알림을 보내주는 역할에만 집중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설정 앱은 한두 번의 터치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도록 단순하게 제작돼,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여성들도 알림을 받고 싶은 앱과 연락처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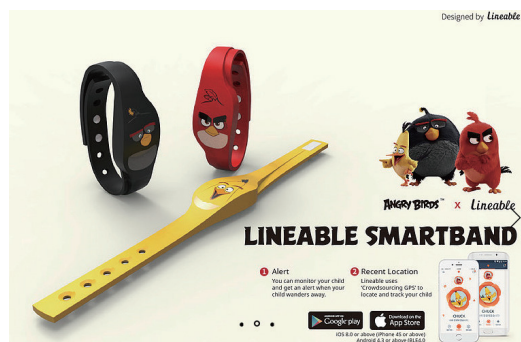
4)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657>



- ‘딜리버’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공대 출신의 전도유망한 청년 창업가 2명(CEO 이종화, CTO 윤희섭)이 지난 2014년 9월 설립한 스마트 주얼리 제조 스타트업
  - 딜리버는 창업 1년여 만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목표 금액의 250%를 초과한 투자금 확보에 성공
  - 2016년 1월 26일 종합SW기업 이스트소프트가 딜리버에 지분 투자 진행

### 리니어블<sup>5)</sup>

- 리니어블은 2014년 11월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에서 스마트 밴드와 모듈, 앱으로 구성된 미아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스타트업
  - 공식 출시되기도 전에 2만 5천 여 개의 제품을 선판매하면서 ‘The king of affordable wearables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웨어러블 기기)’ 라는 평을 받음
  - 이 외에도 국제 아동 구호기구 유니세프가 주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전 ‘웨어러블 포 굿 챌린지 (Wearables for GOOD Challenge)’에 최종 선정되는 등 리니어블의 기술과 사업 이념은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음
- 리니어블 밴드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한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서비스
  - 2015년 5월 기준 본엔젤스 등에게서 15억 원 투자 유치
  -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기술을 적용한 웨어러블 기기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



5) <http://www.lineable.net/koreansmartband>

< 참고자료 >

■ 탱그램디자인연구소<sup>6)</sup>

- 2008년 설립된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소프트웨어 및 제품 디자인이 주 사업 분야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어워드'를 2008년부터 7회 연속 수상하고, 일본 최고의 디자인 어워드인 '일본 굿 디자인어워드'를 2013년부터 2회 연속 수상
  -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자체 설립한 탱그램팩토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영역에 진출
- 2015년 6월 8일, 다음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이 UX 디자인 전문 기업 '탱그램 디자인연구소'의 지분 51%를 인수, 자회사로 편입
  - 탱그램팩토리의 '스마트로프(Smart Rope)'는 손잡이에 달린 센서와 23개의 LED 전구를 이용, 줄을 넘을 때마다 그 횟수를 눈 앞에 가상 현실처럼 보여주는 줄넘기
  - 카카오는 탱그램디자인연구소 지분 약 40%, 이상네트웍스는 탱그램팩토리 지분 약 20%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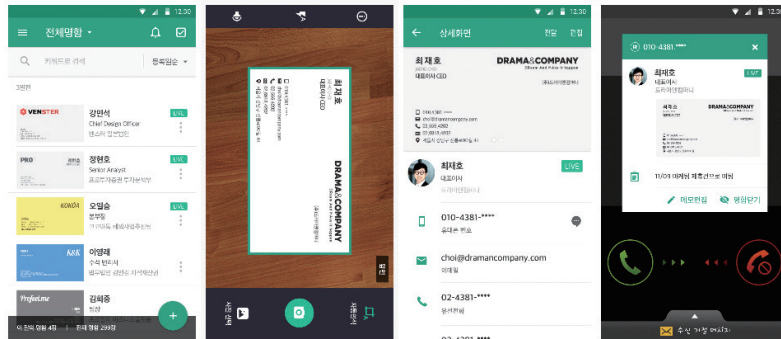


6) <http://www.tangram.kr>

## 2) Software/Contents 창업트렌드

### ▶ 드라마앤컴퍼니<sup>7)</sup>

- 드라마앤컴퍼니의 '리멤버'는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명함관리 서비스로, 입력 정확도가 높은 수기 입력 방식을 채택
  - 타 명함 서비스들과는 달리, 회원 간 이직, 승진 등의 최신 명함 정보의 변경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으며, 카톡과 문자 등을 활용한 명함의 전달 및 저장 기능 제공
  - 명함이 많아 일일이 촬영하기 어려운 회원에게 '대량명함 스캔대행 서비스' 유료 제공



- 2013년 7월 드라마앤컴퍼니 시작하여, 2014년 1월 엔젤투자 2억 원을 유치(프라이머 이택경 대표, 링크나우 정장환 대표)하고, 2014년 1월 리멤버 앱 오픈베타 시작
  - 2014년 4월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0억 원의 초기 자금 유치, 그해 12월 대교인베스트먼트, 사이버에이전트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 2015년 9월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로부터 6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 2017년 11월 네이버가 50억 원을 드라마앤컴퍼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

### ▶ 벤티케이<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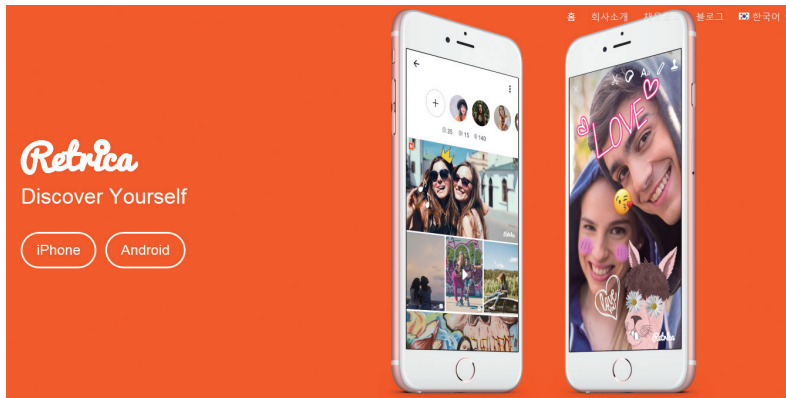
- 벤티케이이 제작한 '레트리카'는 유럽 및 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한국의 글로벌 앱으로 성장하여, 전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누적 다운로드 경신

7) <http://dramancompany.com/>

8) <http://retrica.co>

< 참고자료 >

- 레트리카가 첫 출시됐던 2012년 당시 대부분의 카메라 앱은 사진 촬영 후 보정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레트리카는 촬영 전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었고, 간단한 방법으로 색상과 분위기가 다른 100여 개의 필터를 변경해 손쉽게 찍을 수 있어 화제를 모음
- 뉴욕 타임스에서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고 특별한 필터를 가진 앱을 찾는다면 레트리카가 정답”이라고 소개
- 벤티케익은 네이버 및 다수의 IT벤처기업에서 활약한 박상원 대표와 카카오, 스카이프 및 도쿄대 츠지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2012년 11월 시작
  - 2015년 10월 미국내 벤처캐피털인 베세머벤처파트너스(대표 리바인제레미) 및 굿워터캐피털(대표 김에릭)과 미국계 대표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대표 김한준)로부터 총 6백만 달러(70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
  - 레트리카는 2014년 9월 앱 애니(App Annie)가 발표한 전 세계 'Top 10 안드로이드 앱 리스트'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이어 8위에 오르며, 하루 평균 레트리카 앱을 통해 셔터를 누르는 횟수는 8000만 번 이상
  - 미국, 터키, 러시아, 멕시코, 이탈리아를 포함한 200여 개국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어, 힌디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16개의 언어를 서비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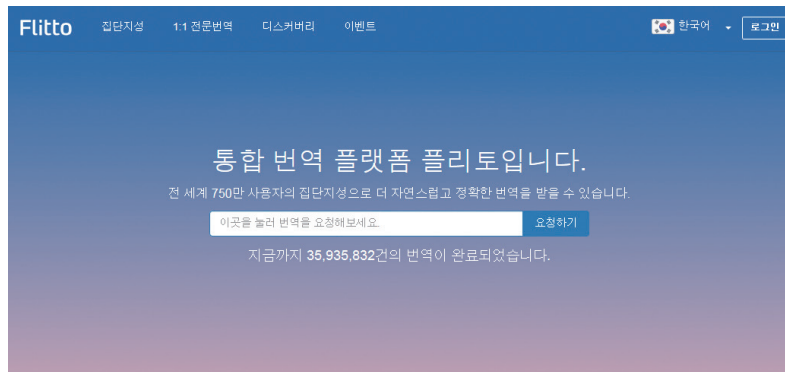


플리토<sup>9)</sup>

- 번역이 필요한 문장이나 사진, 음성을 플리토에 올리면 번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문장을 번역해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번역이 더 빠르게, 정교하게 되는 구조

9) <https://www.flitto.com>

- ‘플리토’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18개국 언어 번역이 가능하고, 하루 7만 건의 집단 번역 요청
- 국내 보다는 해외 사용자가 많아서, 외국인 사용자가 90% 가까이 차지
- 통합번역 플랫폼으로써 플리토의 역량 및 번역권리 집약을 통해 언어 데이터를 축적, 정제,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전망이 높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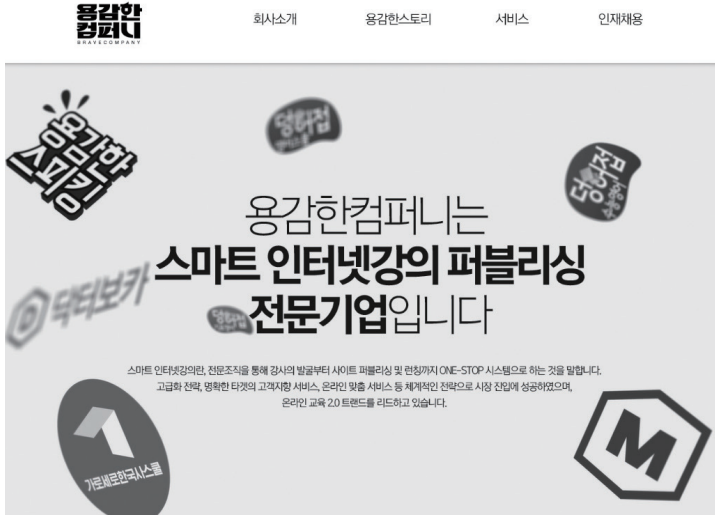


- 2012년 영국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스프링보드(현 테크스타)를 통해 창업한 플리토는 2016년 현재 170개국에서 55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앱과 웹을 통하여 집단 지성의 방식으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천만개나 넘는 번역 DB를 보유
  - 2016년 SBI, K2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스톤브릿지, 에이티넘, DSC, 송현인베스트먼트 등 7개 투자사에서 총 9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 (누적 130억 투자금 유치)
  - 2018년 2월 일본의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Colopl Next)로부터 신규 투자(금액 비공개)를 유치
  - 네이버, NTT 도코모, Air Bnb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데이터 판매 및 서비스 번역을 진행하며 번역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도 확장

#### 용감한컴퍼니<sup>10)</sup>

- 용감한컴퍼니는 2012년 창업한 스마트 인터넷강의 퍼블리싱 전문기업
  - 공무원, 경찰영어 교육 전문 브랜드인 ‘딩어점 영어스쿨’ 등 14개 사이트 운영 중
  - 전문조직을 통해 강사의 발굴부터 사이트 퍼블리싱까지 one-stop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목에 최적화 된 스마트인강 서비스 제공

10) <http://www.bravecompany.net>



- 양승운 대표는 이투스, SK 커뮤니케이션즈, 위너스터디 등을 통해 에듀테크 업무 경력을 쌓아옴
  - 2015년 6월 소프트뱅크벤처스(3억 원) 및 캡스톤파트너스(5억 원)로부터 8억 원 유치
  - 2017년 10월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후속 투자 20억 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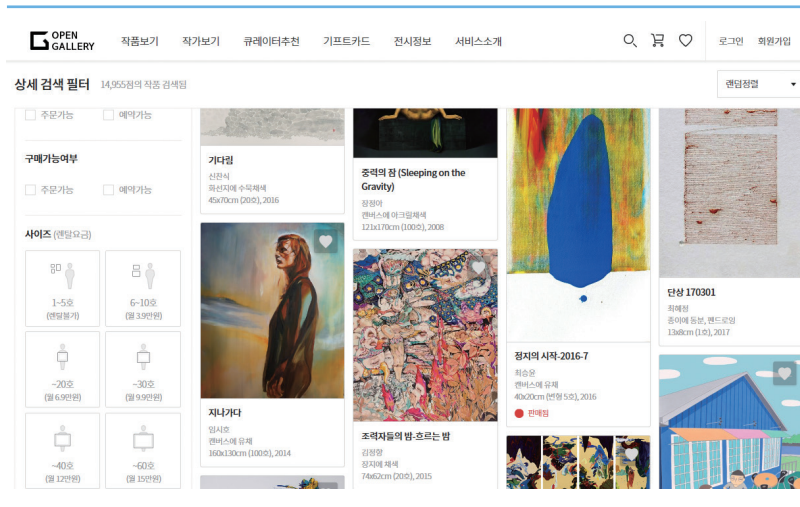
### 3) Service 창업트렌드

#### ◆ 오픈갤러리<sup>11)</sup>

- 오픈갤러리는 국내 인기 작가의 원화 그림을 작품 가격의 1~3%의 가격에 대여해주는 온라인 그림 렌탈 플랫폼
  - 오픈갤러리는 소속 전문 큐레이터 9명이 그림 렌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골라 3개월 단위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
  - 작품은 큐레이터가 직접 보고 작가를 섭외해 계약한 것들이며, 월 최소 3만9000원으로 큐레이터의 작품 추천부터 설치, 그리고 교체까지 지원
- 박의규 대표는 경영학을 전공한 뒤 건설링 회사에 근무하다 학교 친구 6명의 도움을 받아 2013년 11월 창업

11) <https://www.opengallery.co.kr/>





- 2015년 9월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 투자 유치
- 2017년 1월 네이버로부터 투자 유치 (금액 비공개)
- 2018년 1월 KDB인프라자산운용의 'KDB인프라 IP Capital 펀드'와 IBK캐피탈로부터 40억 원 투자 유치

### ◆ 더파머스<sup>12)</sup>

- 더파머스는 '마켓컬리'를 선보인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산지 직배송 신선식품이나 고급 디저트, 빵, 우유, 생수를 비롯해 밀가루·소금 등 양념류, 간편식, 가공식품류까지 판매
  - 셋별배송이라는 오후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신선한 식품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마켓컬리만의 독특한 배송 서비스 운영
  - 2018년 1월 회원수는 50만명 규모이며, 30대 여성이 가장 많음
  - 2016년에는 매출액 173억 원에 영업손실 88억 원, 2017년 매출 530억 원을 달성, 2018년 매출 1,600억 원을 목표
- 김슬아 대표는 컨설팅 회사(맥킨지) 프로젝트 경험으로 더파머스를 2014년 12월 설립
  - 2016년 12월 170억 투자 유치에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UTC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DS자산운용 등 벤처캐피탈이 참여
  - 더파머스는 2018년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신세계에서 인수 고려중이라고 언론에 게시

12) <http://www.kurly.com>

< 참고자료 >

[기획전]

**일상에 새로운 맛을 더하세요!**  
**향신료&조미료 SALE**

자세히 보러가기



**MD 추천**



비가림 물로조 감귤 2종  
9,900원



[잇맛 소콜라토리] I ♥ fruits 프리...  
29,000원



[조선호텔김지] 파김치  
30,580원



[셀러드랜드] 병 셀러드 5종  
5,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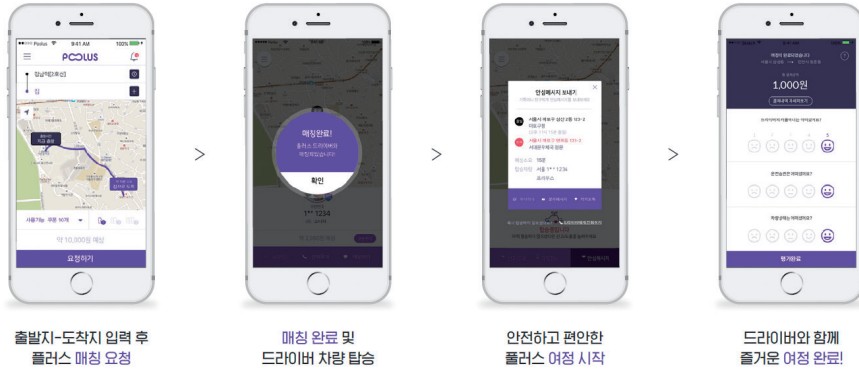
**폴러스<sup>13)</sup>**

- 카풀(Carpool)과 어스(Us)를 더해 ‘우리들의 카풀’이라는 의미를 담은 폴러스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실시간 카풀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출퇴근 시간 카풀을 원하는 사용자(라이더)가 폴러스 앱에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카풀 드라이버들에게 정보가 전송되며, 이 중 가장 경로가 유사한 드라이버와 매칭되고, 비용은 앱에 등록된 결제 카드로 쉽게 결제
  - 2016년 3월 설립하여 4월 처음 카풀 매칭 앱을 선보인 국내 스타트업 ‘폴러스’는 출시 1년 반 만에 회원 75만 명 및 카풀 이용 건수 370만 건 (2017년 9월 기준)
  -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는 2014년 한국에 진출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는데, ‘허가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료 운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관련 규제와 기존 택시 업계들의 반발 때문
- 김지만 대표는 폴러스 이전에 쏘카를 창업했으며 2017년 4월까지 쏘카 대표 이사로 재직할 경력이 있음
  - 2017년 10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합작펀드인 신성장기술펀드, 옐로우독, SK(주),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로부터 220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

13) <http://www.poolu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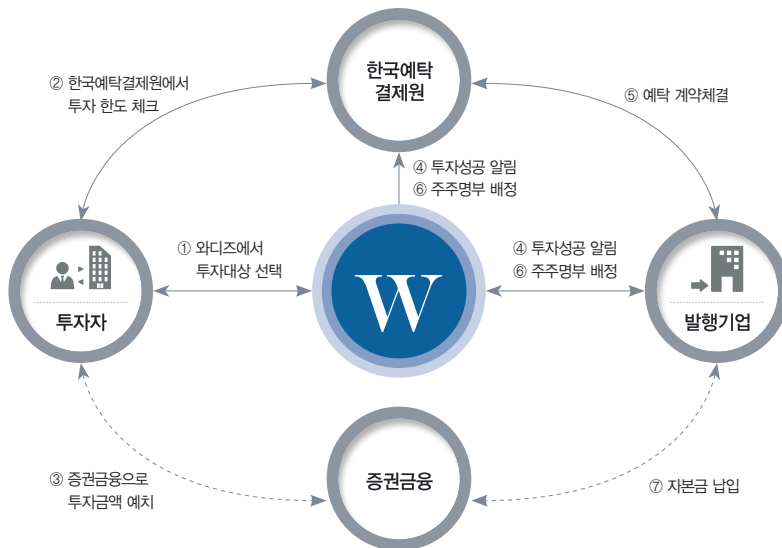
- 폴리스를 세운지 1년여 만에 유상증자를 하며 SK(주)를 주주사로 영입하였는데, 액면가 5,000원 그대로 매입하여 800만 원에 20% 차지



❖ 와디즈<sup>14)</sup>

- 클라우드펀딩기업 와디즈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임
  - 투자자 입장에서는 1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소액으로도 기업에 투자 가능
  - 와디즈는 금융위원회에 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된 기업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체계도 ]



14) <http://www.wadiz.kr/>

〈 참고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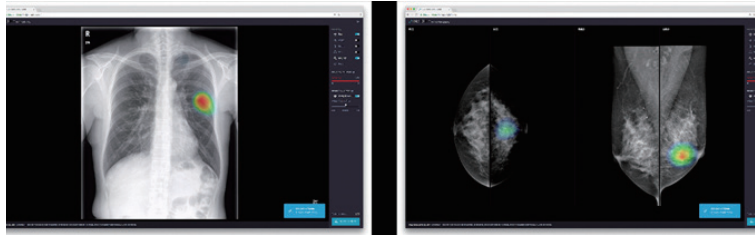
- 크라우드 펀딩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나 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게 십시일반 투자금을 모으는 금융활동으로 소셜펀딩이라고도 하며, 해외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와 유사한 사업 모델
- 신혜성 대표는 2012년 창업 이전에 현대자동차, 동부증권 및 산업은행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기업금융업무, 전략기획업무 및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근무
  - 2015년 DS자산운용으로부터 첫 투자 유치 후,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직전 아이디벤처스, 디터앤인베스트먼트, 대교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 원 투자 유치
  - 2016년 3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와 KDB캐피탈로부터 15억 원 투자 유치
  - 2017년 9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L&S벤처캐피탈을 비롯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 등이 참여한 110억 원의 투자 유치
  - 신혜성 대표는 자신을 ‘지독한 리스크 회피형’이라고 소개하는데, 리스크 회피형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와 같은 말이라고 부연하며, ‘안전을 추구하되 안정을 버려라.’ 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안정을 꾀했다고 말함

#### 4) 4차 산업 창업트렌드

##### ◆ 루닛(Lunit)<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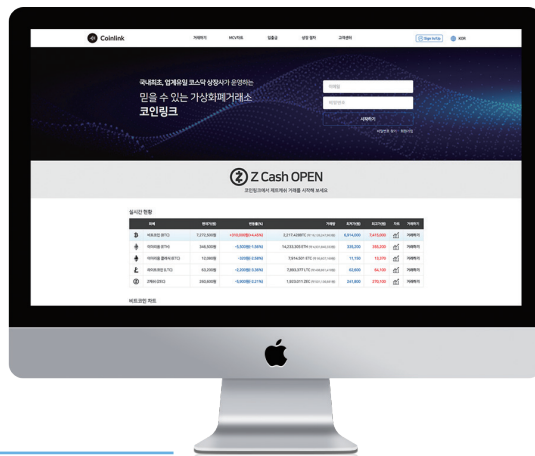
- 루닛은 이미지를 정교하게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에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람의 시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영상 판독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DIB(Data-driven Imaging Biomarker)’를 개발
  - 국내단일검진센터로는 최대규모인 우리원헬스케어는 19년 1월부터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해 건강검진때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에 활용
  - 루닛의 수익모델은 딥러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보건·의학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하며, 의료비용 절감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비즈니스로 발전 가능
  - 소규모 병원에서의 영상판독에 있어 의사가 병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2차~3차 재진료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보험공단에 솔루션 제공 가능
- 서울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딥러닝 스타트업 루닛은 2013년 8월 23일 클디(CLDI)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2018년 기준 48명의 인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15) <http://lunit.io/>



❖ 씨트온<sup>16)</sup>

- 씨트온은 블록체인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 생체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안 및 인증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최근에는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
  -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핵심 기반기술로, 최근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공식화폐로 인정 받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
  -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한 핀테크 사업영역으로 암호화폐거래소, 해외소액송금 인프라를 통해 결제(암호화폐PG)/송금/금융 제휴사업을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송금, 암호화폐결제PG 등 금융핀테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코인링크라는 암호 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



16) <http://www.certon.co.kr>

< 참고자료 >

- 박경옥 대표는 금융보안솔루션 전문회사인 세넥스테크놀로지에서 보안컨설팅 업무와 기획부서에서 약 10여년간 금융보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음
  - 2017년 6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포스링크의 100% 자회사로 편입
  - 2017년 12월 카버넷 캐피탈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조합으로부터 100억 원대 투자 유치

**조이코퍼레이션<sup>17)</sup>**

- 조이코퍼레이션은 온오프라인 쇼핑 경험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분석 서비스 '워크인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접객 솔루션 '채널' 운영
  - 워크인사이트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구매 이전 방문객 분석을 오프라인 매장에 구현한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센서를 통해 유동인구, 방문객, 체류시간 및 재방문 등의 동향을 파악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휠라코리아, 이니스프리 같은 리테일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계 20개국 주요 상권에서 사용
  - 채널은 오프라인 매장의 점원 응대 경험을 온라인에 구현하는 것으로, 채널 솔루션을 설치하면 고객이 웹사이트의 채널 아이콘을 눌러 직원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으며, 야나두, 츄, 우먼스톡, 파파레서피, 셀잇 등 온라인 쇼핑몰 3,000여개와 스타트업 등이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



- 최시원 대표는 2014년 1월 네 번째 창업으로 조이코퍼레이션을 만들었으며, 비디오대여점 관리 프로그램, 온라인게임, 소셜 광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

17) <http://zoyi.co>

- 최시원 대표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스마트폰 무선 신호(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집계해 74만 명으로 추산하여 제공
- 2015년 2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아주IB투자로부터 20억 원 투자 유치
- 2017년 10월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코로뿌라 넥스트(Colopl NEXT) 등으로부터 45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

● **눔**<sup>18)</sup>

- **눔**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08년 한국인 정세주 대표와 구글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자 공동창업자 아텀 페타코브가 워크스마트랩스(WorkSmartLabs)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처음 설립하였고, 2011년 **눔**이라고 사명을 변경
  - **눔**은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눔코치'를 통해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 미국이 본사이고, 한국, 독일, 영국, 일본에 지사를 두고 150개국에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수는 4700만을 기록
  - '눔'이라는 사명은 '달'을 의미하는 MOON을 거꾸로 적은 것으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을 쉽지 않은 일하기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빛을 비춰 주는 달처럼 길을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MOON'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다고 얘기함



- 정세주 대표는 20대 중반 돌아가신 의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기술로 세상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포부로 **눔**을 만들었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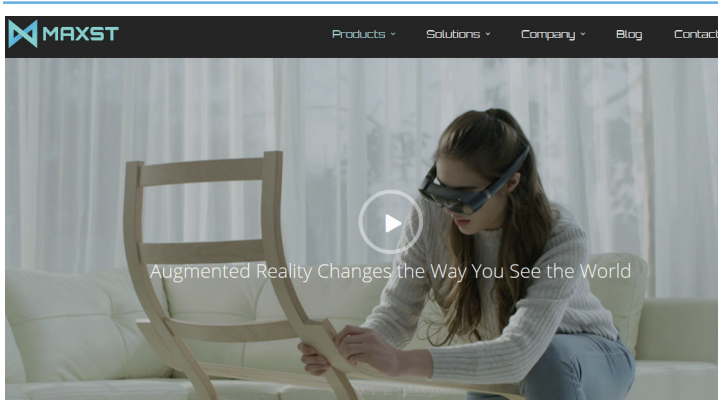
18) <http://www.noom.co.kr>

< 참고자료 >

- 대학생 시절 해외 희귀 음반을 팔았던 첫 번째 사업과 뉴욕에서 뮤지컬 사업을 시도했던 두 번째 사업은 실패
- 2011년 두 차례의 시드투자를 받는데 이어 2012년 하버퍼시픽으로부터 벤처투자, 2013년에 미국 국립 보건원으로부터 그랜트 투자, 2014년 2월에 700만 달러규모 시리즈A투자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뉴욕 디지털 헬스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벤처 투자 받음
- 2017년 1월 삼성그룹 벤처 투자 계열사 삼성벤처투자가 투자(투자금액 비공개, 수백 억 예상)

**맥스트<sup>19)</sup>**

- 2010년도에 설립된 맥스트는 증강현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증강현실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매뉴얼 분야를 개척하고 교육훈련 분야에도 해당 솔루션 제공
  - 맥스트는 ‘AR SDK 3D’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이미지 위에 증강현실을 구현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3차원 현실 공간 위에 증강현실을 구현
  - 현대차는 맥스트의 기술을 ‘현대버추얼가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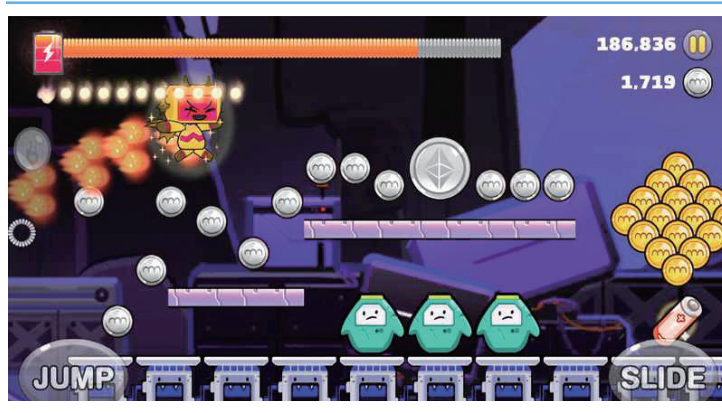
- 증강현실과 영상 통화 기술을 결합한 기업형 원격 지원 서비스 ‘비바(VIVAR)’를 시장에 출시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 관리 및 수리 유지보수 분야, 부동산 관리 및 건설 분야 등에서 출동 횟수 및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가능
  - 2016년 5월 디에스자산운용, 현대자동차, 엘앤에스벤처캐피탈로부터 20억 원 투자 유치
  - 2017년 8월 인터베스트,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 원 투자 유치

19) <http://maxst.com/>



### 코드박스<sup>20)</sup>

- 코드박스는 서울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2017년 8월 창업한 스타트업
  -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러닝 게임인 '고크립토봇'을 개발하여, 2018년 5월에 출시하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확산 중
  - 코드박스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엔진인 '코드체인'은 게임화폐, 아이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티켓, 바우처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엔진



- 창업자 서광열 대표는 포항공과대학교 졸업 이후, 스타트업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직장 외 활동으로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기구 ECMA TC39 위원, 오픈소스 브라우저 엔진 '웹킷'의 커미터(프로젝트 개발 기여자) 등으로 활동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 코드박스 창업 전 2011년 글로벌 33개국에서 RPG장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버디리시'의 제작사 컴퍼니원헌드레드(Company 100)에서 CTO로 약 7년을 근무
  - 컴퍼니원헌드레드에서 함께 일했던 개발인력들과 함께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을 결성하여 창업

20) <https://codechane.io/>

## 5) 사회적기업 창업트렌드

### 📌 제너럴바이오<sup>21)</sup>

- 2007년에 설립된 제너럴바이오(주)는 천연 및 기능성원료, 바이오 신소재 물질 개발과 이 신소재 물질의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친환경 유아 및 생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BIO R&D 전문 기업
  - 주요 제품들은 천연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생활세제, 유아용품으로, 특히 주름 개선 화장품 리프팅 겔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활 제품들은 유명 글로벌 창고형 매장에서 판매
  - 창업자인 서정훈 대표는 엘지그룹에서 엔지니어와, 코스모바이오에서 신소재개발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전북 완주군에서 3억 원의 자금으로 제너럴바이오를 설립
  -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B Lab(미국 비영리조직)이 만든 글로벌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인 'B-Corp'(Benefit-Corporation)인증의 사회적기업 세계적 가치 Top10에 선정



- 2018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기업공개(IPO)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코스닥 상장 목표
  - 2017년 코스닥 시장에 한차례 도전했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최종 미승인 결정을 내림
  -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배당할 때 제한이 있고 회사를 청산할 때도 자산 일 부가 정부에 구속되는 규정 등이 있어 주주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선

21) <http://www.generalbio.co.kr/>



### 기억발전소<sup>22)</sup>

- 기억발전소는 전시, 출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록문화를 창달하려는 문화 분야 소셜벤처로 시작한 사회적기업
  - “기억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란 이 회사 정신에 잘 드러나듯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공유해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
  - 사진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소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인에 침투하는 사회 현상도 기록
-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B2B와 B2G 서비스
  - 지자체가 지역 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을 벌일 때 변화가 일어나기 전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으며, 2011년 시작하여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 기억발전소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 청년과 시니어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시니어들이 참여하는 ‘기억의 지도’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 청년들을 투입해 시니어들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



### 동신이향<sup>23)</sup>

- 동신이향은 교육 인형극이 주 수입원인 나주의 사회적기업이며, 문화예술 기획도 진행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골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 첼로 · 플루트를 가르치는 바우처 사업도 회사의 주요 수입원

22) <http://www.memoryplant.com>

23) <http://www.ehyang.com/>

〈 참고자료 〉

-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트레칭 같은 성장 운동도 가르치는데,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특화된 서비스 사업
- 동신이향은 전라남도 나주 소재 대학인 동신대학교 조교 다섯이 만든 나주의 기업이라는 뜻이며, 이향(梨香)은 나주가 유명 산지인 배의 꽃향기라는 의미로 2010년 법인 설립
  - 동신이향은 나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지망생,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 수행하며, '사회적경제 허브 더 맵'이라고 명명
  - 황현조 대표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자신이 동신이향을 경영하는 목적임
  - “문화예술가도 아니고, 교육 인형극을 한다고 해서 교육자로 불리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몸이 통통한 편인 그는 아이들의 친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예 ‘통통아저씨’라는 브랜드를 만들



6) 유니콘 창업트렌드



'비상장 상태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 성장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전설속의 동물 '유니콘 Unicorn'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326개가 존재하며 그 중 6개가 우리나라 기업임 (2019년 3월 기준)

📦 **바이트댄스<sup>24)</sup>**

- 바이트댄스는 2019년 3월 기준 유니콘기업 중 기업가치 750억 달러로 2018년에 1위 였던 Uber 720억달러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

24) <https://www.bytedance.com/>

- 뉴스 서비스 '진르 터우타오(今日頭條)'는 사용자들이 읽었던 뉴스 콘텐츠의 종류, 매체, 읽는 시간, 분야 같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진르 터우타오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이용 시간도 하루 60분을 넘길 정도로 인기
- 2016년 15초짜리 동영상을 간편하게 제작·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 '틱톡'을 출시
- 틱톡은 유튜브와 달리 스마트폰용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자기취향에 맞는 15초 정도의 동영상을 비어있는 시간에 보거나 손쉽게 투고할 수 있고 AI 기술을 이용 열람자의 취향에 맞춰 동영상을 계속 바꿀 수 있는게 특징



- 바이트댄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장이밍 창업자가 2012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업
  - 자이밍은 중국 톈진의 난카이대학을 졸업하고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2009년 온라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인 '99팡스닷컴'을 공동 창업했다가 3년 만에 물러나고, 곧바로 바이트댄스 창업
  - 2018년 일본 소프트뱅크와 미국 사모펀드(PEF) KKR·제너럴 애틀랜틱으로부터 30억달러(약 3조 3360억 원)를 유치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750억달러(약 83조4000억 원)로 평가
  - 바이트댄스는 설립 7년만에 인공지능, 미디어, SNS, 쇼트클립, 금융,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으며 폭풍 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특히 중국의 기존 IT 공룡 'BAT'(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로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속 성장을 구가해 온 업체로 주목받고 있음

◆ 크래프톤<sup>25)</sup>

- 크래프톤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로 2019년 3월 기준 기업가치 50억 달러로 유니콘 리스트에 있는 6개 한국기업 중 하나임

25) <https://www.krafton.com/kr/>

< 참고자료 >

- PC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인원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2017년 11월말 누적판매량 2,100만장, 동시접속자 수 29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7년 대한민국게임대상’ 수상



- 2007년 창업자 장병규 의장을 중심으로 30명의 멤버가 모여 (주)블루홀스튜디오 설립하고, 2008년 북미법인 블루홀인터랙티브 설립

- 장병규 의장은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와 ‘네오위즈’와 ‘첫눈’을 창업한바 있으며, ‘첫눈’을 NHN에 매각한 뒤 게임 개발사 블루홀스튜디오 설립
- 박용현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과 만남이 계기가 돼 게임회사를 차리게 됐고, 네오위즈 시절 인연을 맺은 김강석 대표에게 CEO를 맡기고, 인터넷 서비스보다 글로벌 공략이 쉬울 것이라는 예상도 게임회사 창업의 이유
- 벤처투자사인 본엔젤스를 창립해 스타트업육성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2017년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 블루홀스튜디오는 신생회사임에도 장병규 의장 등 구성원의 명성에 걸맞게 대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개발에 나서며 개발비 400억 원, 연인원 200여 명이 투입돼 2011년 테라(TERA)를 선보였고 그해 대한민국 게임대상 4관왕을 수상
- 2017년 3월 자회사 블루홀지노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 총쏘기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13주 만에 누적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6개월 만에 1천만 장 판매
- 2018년 회사이름을 ‘크래프톤’으로 변경



장병규의장은 벤처투자사인 본엔젤스를 창립해 스타트업육성에도 참여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2017년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 L&P Cosmetic<sup>26)</sup>

- 엘앤피코스메틱은 2009년 설립된 화장품과 의약품을 접목시킨 코스메디컬 전문 화장품 회사로 2019년 3월 기준 기업가치 17억 달러로 유니콘리스트에 있는 6개 한국기업 중 하나
  - 메디힐의 대표 제품인 'NMF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WHP 미백 수분 블랙 마스크', '티트리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등이 있음
  - 2015년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약 8,300만장이 판매되며 '0.1초에 한 장씩 팔리는 마스크팩'으로 유명해졌으며 누적판매량 13억장을 넘어서며 마스크팩 전문브랜드를 넘어 K뷰티 브랜드로 신기록 수립
  -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시술을 받은 듯한 효과를 낸다는 컨셉의 색조화장품 브랜드 '메이크힐' 론칭
- 창업주인 권오섭 회장은 현 엘앤피코스메틱의 전신인 왕생화학의 창업주 (故)윤임순 여사의 아들로, 왕생화학은 1969년 설립돼 헤어 케어시스템 '아봄'을 대표 브랜드로 삼아 성장했으며, 헤어제품과 남성용 스킨,로션 등을 주요 제조 및 판매
  - 권오섭 회장은 1992년 왕생화학의 후신인 네슈라화장품 운영을 시작으로 화장품 프랜차이즈로 매장만 16곳을 운영했던 그는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고, 그 후 5년 뒤 다시 색조화장품으로 재기를 노려봤지만 참담히 실패한 후, 2009년 엘앤피코스메틱 창업
  - 직원 3명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10년만에 직원 250명, 기업가치 1조 원이 훌쩍 넘는 회사로 성장
  - '직원들이 건강 걱정 돈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철학으로 근무중 자유로운 운동, 자녀학자금 전액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26) <http://www.lnpcos.com>

📌 (주)비바리퍼블리카<sup>27)</sup>

- ‘TOSS’는 상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지문 또는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간편송금 앱 서비스로 2019년 3월 기준 기업가치 12억 달러로 유니콘리스트에 있는 6개 한국 기업 중 하나
  - 서비스 1년 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토스는 공인인증서로 19개 은행, 3개 증권사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하고, 2017년 2월에는 단순히 간편송금을 넘어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 2015년 2월 서비스 시작 후 2018년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2,100만건, 회원 1,000명, 누적송금액 26조 원, 건수 4억3,000만건에 달하며 20~30대가 고객의 4분의 3 이상 차지
  - 현재는 간편송금을 넘어서 계좌 통합 조회, 신용등급 조회, 부동산 및 펀드 소액 투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종합 금융 서비스를 목표로 함
  
- 치과의사 출신 이승건 대표가 2013년 8월에 설립한 비바리퍼블리카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TOSS)’를 운영
  - 이승건 대표는 2007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치과 전공의 출신으로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다가, 국내 첫 장애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동안 공중보건의로 근무
  - 토스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찾아야 하고, 또 수많은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한다는 ‘불편함’ 인식
  -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그리고 액티브X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고민하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찾은 방법은 CMS 자동이체로 CMS 자동이체를 위해 활용되는 ‘뽕뱅킹망’을 이용할 경우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출금해 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 구상



27) <https://toss.im/>

### ◆ 우아한형제들<sup>28)</sup>

- 우아한형제들은 음식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 3월 기준 기업가치 26억 달러로 유니콘리스트에 있는 6개 한국기업 중 하나임
  - 김봉진 대표는 초기 전화번호부 앱을 만들려다 수익성과 이용률이 적어, 한국에서 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분야인 배달 분야로 전환
  - 배민 라이더스는 외식 배달서비스 어플로, 라이더와 주문 고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라이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어 배달 즉시 라이더와 사진을 확인 가능하며 기본 1km 3000원에서 추가 비용을 받으며 수익을 창출
-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대표가 2010년 창업하였으며, 키치와 B급문화로 브랜드 컨셉을 잡아 크게 성공했고 내부 브랜딩도 열심히 신경쓰는 회사로 유명
  - 창업자 김봉진 대표는 1997년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이모션, 네오위즈, NHN(현 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 2010년 6월 위치기반으로 한 ‘배달 음식 주문 앱’을 선보인 이래 국내 배달 앱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며 아이디어가 기발한 TV광고와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배달 앱을 각인 시키는데 성공



28) <https://www.woowahan.com/>

## 나 사회적기업 육성

### 1) 사회적경제

#### ■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기능

- 사회적경제의 개념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사회적경제 기능
  - 고용창출·고용안정·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
  - 소득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강화·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 사회적경제 동향

- 해외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유럽연합(EU)의 경우 평균 전체고용창출의 7% 가량을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10%대의 고용창출 담당(머니투데이, 19.02.21)
- 국내 동향
  - 우리나라는 '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
  -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고용창출은 협동조합(영리법인)을 포함해도 1.4% 수준으로, EU 국가에 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
  - 19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으로 당내 조직이었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며 사회적경제 확산 드라이브(머니투데이, 19.02.21)



##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 ● 사회적경제 진단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이후 본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집행 중
- 2019년 사회적경제관련 정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사업도 15개 부처에 걸쳐 50개로 증가(사회적경제뉴스 이로운넷, 18.06.05)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지역재생, 에너지, 주거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중심·민간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부처별 융합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활형 SOC, 어촌뉴딜 300,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커뮤니티 케어, 협동조합 보육, 저수지, 담수호 태양광 발전 사업, 소셜벤처 창업 등(사회적경제뉴스 이로운넷, 18.06.05)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3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사회적경제뉴스 이로운넷, 18.06.05)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 중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가 창출

###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범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

「사회적경제 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업연초협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

※ 자립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 참고자료 >

(단위 : 개, 명)

조직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조직 수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인원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 일자리 등 제공
  -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 ·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지역의 범위는 읍 · 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이며,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활동 포함시 마을 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 근로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文 대통령,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낙점 이유는 '사회적경제'〉<sup>29)</sup>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는 정부 위원회, 그것도 대통령 주재회의를 열기엔 다소 비좁은 곳이다. 회의실, 라운지가 있지만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췄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헤이그라운드는 사회적경제에 뛰어난 청년 창업가들의 산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문 대통령 의지가 실렸다는 관측이다.

지난 6월 개관한 헤이그라운드는 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이다.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었다. 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총 41개 업체가 입주했다. 입주자들은 '체인지 메이커'라 부른다. 사회적 가치에 기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헤이그라운드란 명칭은 "체인지 메이커들이 서로 가볍게 인사(헤이·Hey)하고, 이들의 든든한 대지(Ground)가 되어준다는 뜻을 담았다"고 일자리위원회가 설명했다.

헤이그라운드는 속을 채울 콘텐츠 없이 단지 하드웨어(건물)만 마련한 것이 아니다. 2014년부터 입주기업을 발굴, 함께 개관을 준비했다. 입주기업으로는 이날 문 대통령이 만난 패션업체 마리몬드, 노숙인 지원 잡지 빅이슈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가치를 담은 헤이그라운드는 '재벌3세'의 비영리 사회적 기여란 점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2012년 루트임팩트를 세운 정경선 대표는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로 현대가 3세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이다.

2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815447633292&outlink=1&ref=http%3A%2F%2F> 요약

## 2) 사회적기업 정보

### ■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의의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의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하는 것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 ● 사회적기업 배경 및 유형

##### - 사회적기업 배경

-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사회적기업 유형

-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 창·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및 인증 요건

#####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2) 소셜벤처

● 소셜벤처의 개념 및 의의

- 소셜벤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
- 사회적기업, (일반)벤처기업 등과 달리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정의는 현재 없으며, 학술적 정의 역시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체로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이 부족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경제적 이윤의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소셜벤처를 사용
- 정부는 2009년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소셜벤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가의 양성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대상으로 소셜벤처를 언급

〈 참고자료 〉

–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소셜벤처의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일반)벤처
미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 재무적 수익	재무적 수익
특성	사회성, 민주성	사회성 + 기업가적 속성	기업가적 속성 (혁신성, 모험성)
장단점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지속가능성은 부족	성공하면 높은 수익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하나, 사회적 영향력은 부족
주요재원	사회기부, 공공지원(보조금 등)	임팩트투자, 사회금융 등	모험자본, 주식 등
사업모델	자선·기부, 사회서비스, 사회가치 배분 모델	사회혁신의 사업모델, 임팩트투자 모델	효율기반 수익모델, 모험적 투자 모델

● 소셜벤처의 특성 (중소기업연구원, 2018)

- 기업가 측면 :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회 추구, (사회)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사업모델의 도입과 적용
- 기업 운영 측면 : (임팩트)투자\*가 가능한 효과적인 사업모델 실현,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

\* 임팩트투자 :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의 투자 방식을 의미

- 기업 성과 측면 :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

● 소셜벤처의 주요특성

특성		내용
기업가측면	사회적 목적	기업 활동 목표의 최우선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둠
	혁신성/모험성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롭고 도전적인 사업모델을 창안하고 적용
기업 운영 측면	지속가능성	기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
	성장성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극대화
기업 성과 측면	재무적 수익 창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환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가 가능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확산

〈 “방문 놀이 서비스 ‘놀담’ 창업한 대학생 대표의 창업기”<sup>30)</sup> 〉



‘놀담’은 ‘놀이’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도담도담’을 합쳐 만든 이름이에요. 학부모가 놀이 돌봄을 신청하면 대학생 시터를 연결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

직접 대학생 시터로 활동하며 필요한 노하우 알게 돼  
아이의 주도성에 맞춘 놀이 서비스로 차별화  
사회적 문제 고민에서 시작한 청년창업

“돌봄서비스는 나라 차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동 중심의 놀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놀이 하면 떠오르는 기업, 제대로 놀 줄 아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27401&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요약



### 3) 대학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 ■ 사회적경제 교육의 의의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구도에서 벗어나서 비경제 교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가치들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 학생들이 재학 당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 학교를 졸업한 뒤 학생들이 사회적영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는 진로준비에도 중요한 의미
- 교육 내용체계에는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사,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원리와 사회경제적 영향, 시민참여와 사회적경제의 발전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
  -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 전달
  -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관, 조직들의 운영원리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확인
  - 일자리창출, 빈곤해소, 공공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환경보호 및 시장기회의 창출까지 사회적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조사
  - 시민사회와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를 위해 기여하고 사회적경제로부터 많은 것을 기여 받으므로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

#### ■ 사회적기업가 교육 방향

-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위해 사회적기업가관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유형화 하며 사회적기업가 태도 교육방안을 고려해야 함
  - 사회성, 사명감, 동기부여, 태도 교육 등이 중요할 것이며, 태도교육은 공감교육 및 도덕적 판단력 교육 등이 필요
  - 공감과 도덕적 판단력 수준은 자기효능감, 유대관계, 문제 인식, 사회적 경험, 사회적 동의 등을 증진하게 해야 함
  - 교육방안으로 컨설팅, 사례 연구, 기업가 인터뷰, 경험담, 현장방문, 행동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사회적기업가 교육방안과 활용 가이드라인<sup>31)</sup>

교육방안	활용 가이드라인	관련 자질
강의, 읽기,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이론과 내용 소개</li> <li>• 입문과목이나, 회계, 법 같은 내용의 과목 등</li> </ul>	역량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끝의 지식 통합(이전 존재)</li> </ul>	역량
컨설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행동양식, 판단력, 가치, 역량습득</li> </ul>	태도, 역량
창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 역량 전반의 학습</li> </ul>	역량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통합과 문제해결 역량</li> </ul>	태도, 역량
기업가 인터뷰, 경험담, 현장방문, 반추저널,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구축</li> <li>• 가치, 전문가 행동양식, 판단력, 기업가적 사고력 습득</li> </ul>	태도
기업가활동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구축</li> <li>• 기업가 역량 전반의 학습</li> </ul>	태도, 역량
역할극 행동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 개발과 연습</li> <li>• 감정 조절능력 개발</li> <li>• 이론학습(일부 시뮬레이션 방식)</li> </ul>	태도, 역량

###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 ●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 일자리 창출 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심사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인건비의 9.36%)를 지원
- 전문인력 지원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기업은 2인, 예비 사회적기업은 1인 한도로 자격요건에 따라 200~250만 원/월 일정기간 지원(기업 자부담有)
-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이내(자부담 비율 10~30%)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월 50명 한도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5년이내 4년간 지원

31) 민동권,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위한 통합적 사회적 기업가정신 모델의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5(1),2017.03

< 참고자료 >

-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사업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일정비율 면제 및 저리 금융지원

●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 소셜벤처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 실행 및 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전국 대학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 소셜벤처 관련 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 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2011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거친 창업팀들은 상당수가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하고 있음  
 - 매년 1회 모집하여 다음 해 1년간 창업공간, 창업비용, 멘토링 서비스,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 스타 사회적기업가 발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스타 사회적기업가 발굴 프로젝트는 창업 단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토대 구축을 위해 기존 창업팀 중 우수한 사회적기업가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전파하고 건강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선정된 사업팀은 우리은행의 후원 아래 프로젝트 선정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아이템의 제품화, 품질 개선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외에도, 성장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교육, 창업자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며 사회적기업 정책매장 우선 입점 등의 판로지원

〈 폐방화복으로 소방관들 ‘재해 소송’ 지원 〉<sup>32)</sup>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1위 건국대 ‘REO팀’ 이승우씨

지난 5일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소방관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동아리 인액터스 소속 이승우 REO 대표가 폐방화복으로 만든 천과 제품들을 들고 있다.

“화마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누적돼 생긴 질병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소방 공무원들이 많아요. 고민 끝에 내구연한이 지난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만든 팔찌와 가방, 티셔츠 등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스토리펀딩으로 판매하고 있죠. 판매 수익금은 재해보상과 관련해 소송 중인 소방관 분들의 소송비 지원에 쓰입니다.”

건국대 건축학과 4학년 이승우씨(25)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학교 동아리 안에 2016년 7월 ‘REO팀’을 결성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32) 경향신문 2018.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32124015&code=10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32124015&code=100100) 요약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처

한국청년기업기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202

TEL. 02) 2156-2294

E-MAIL. education@koef.or.kr